

공주고도 사업지구  
경관기준 종합보고서

2011. 12





공주고도 사업지구  
경관기준 종합보고서

20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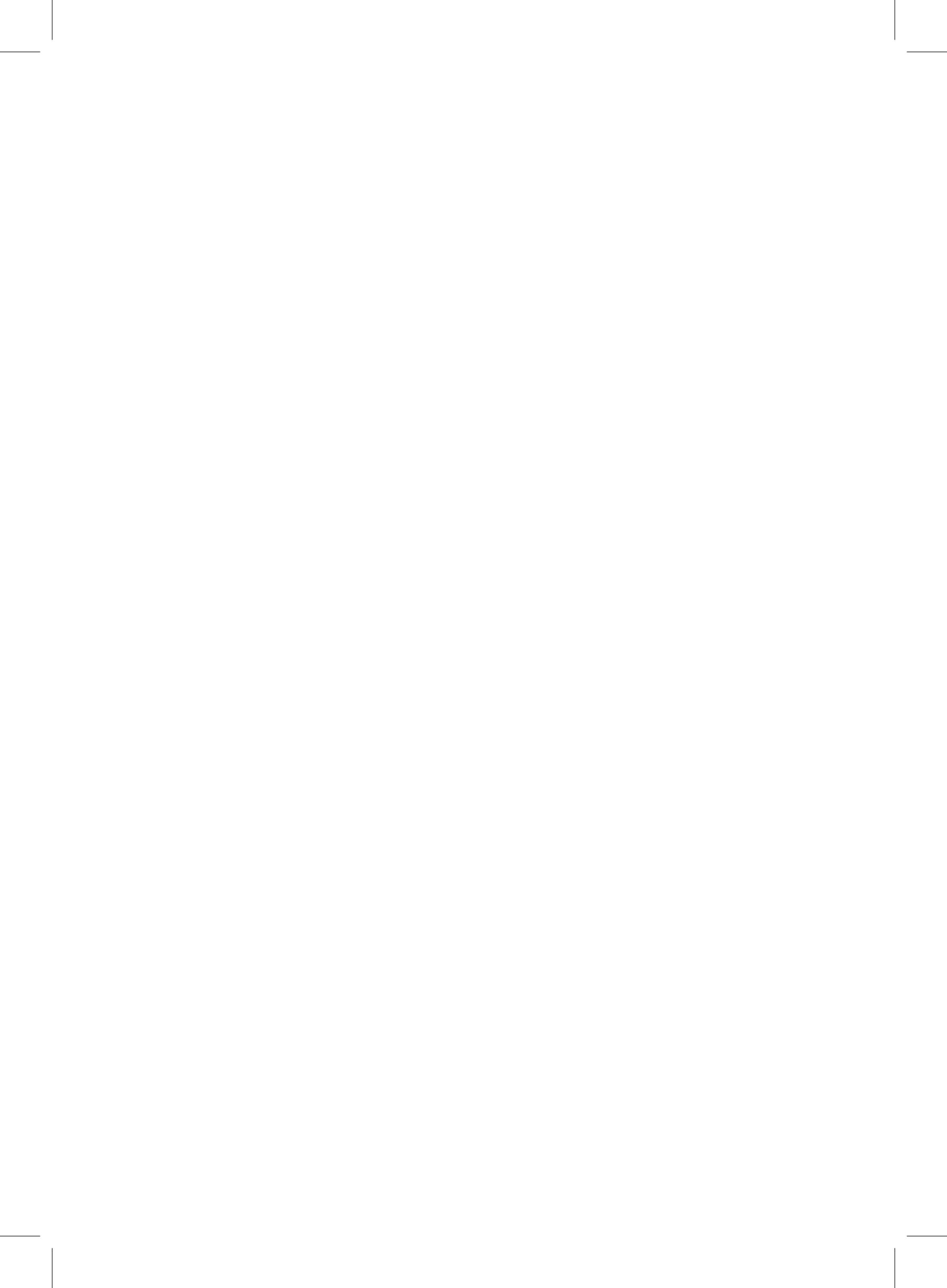
# 제 출 문

공주시장 귀하

공주고도 경관기준작성연구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본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 12. 22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박진도



---

## CONTENTS

<b>I. 계획의 개요</b>	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1) 계획의 배경	1
2) 계획의 목적	1
2. 계획의 방법 및 범위	2
1) 계획의 방법	2
2) 계획의 범위	2
3. 계획의 성격	3
4. 수행체계	3
<b>II. 고도사업지구 현황조사</b>	4
1. 사업지구 현황	4
1) 관련규제 현황분석	4
2) 건축물 현황분석	7
2.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15
1) 경관 현황	15
2) 경관현황분석	15
<b>III. 고도육성 제도 검토</b>	24
1. 관련법제 및 계획검토	24
1) 고도관련 법제검토	24
2) 관련계획과 관계검토	31
2. 사례지역 검토	37
1) 드레스덴	37
2) 그라쯔	41
3) 교토	46
4) 나라마찌	48
<b>IV. 고도경관 형성계획</b>	50
1. 계획의 기본방향	50
1) 기본방향	50
2) 키워드 도출	50
2) 경관 미래상 설정	51
2. 경관축 및 조망경관 기본구상	52

---

---

1) 경관축 기본구상	52
2) 조망거점경관	53
<b>3. 경관권역 설정 및 경관개선 기본구상</b>	56
1) 권역설정	56
2) 경관개선 기본구상	57
<b>4. 유형별 경관형성계획</b>	68
1) 시가지 경관	68
2) 가로경관	68
3) 유적지 경관	70
4) 산림 및 녹지경관	71
5) 수변경관	72
<b>5. 경관유형별 경관형성기준</b>	73
1) 가로 경관 기준	74
2) 유적지 경관 기준	77
3) 산림 및 녹지경관 기준	82
4) 수변경관 기준	85
<b>V. 경관형성설계지침</b>	90
<b>1.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b>	90
1) 추진방향	90
2) 가이드라인 원칙	90
3) 경관가이드라인 체계	91
4) 기본개념	92
5) 적용원칙	92
6) 컬러개념도출	94
<b>2. 경관특성별 가이드라인</b>	96
1) 중점관리지역	96
2) 권장관리지역	103
<b>3.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b>	103
1) 건축물	103
2) 오픈스페이스	111
3) 공공구조물	118
4) 옥외광고물	122
5) 공공시설물	124
6) 환경색채	137
7) 조망경관	141

---

---

<b>4. 유형별 지봉형태 적용</b>	145
1) 경관유형별(단독주택)	145
2) 경관유형별(상가건물)	146
3) 경관유형별(단독주택)	147
4) 경관유형별(상가건물)	148
5) 경관유형별(상가주택)	149
6) 경관유형별(단독주택)	150
7) 경관유형별(상가건물)	151
<b>VI. 실행방안</b>	152
<b>1. 주민지원 방안</b>	152
1) 추진방향	152
2) 국외사례	153
3) 시사점	158
<b>2. 공주고도 경관형성을 위한 지원체계구축</b>	159
1) 기본방향	159
2) 지원방안	159
3) 지원체제 구축방안	161
4) 지역사회 참여방안	165
5) 자원확보방안	167
6) 법제도 정비	171
<b>3. 경관기준 적용방안</b>	171
1) 적용시기	171
2) 적용방안	172

---



# I. 계획의 개요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1) 계획의 배경

#### ■ 공주 고도보존 계획(2009)에 따른 경관기준 방향 제시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의 구성요소를 궁궐, 사찰, 탑, 왕릉 등 과거문화재 보호법상의 보존대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범위를 고도의 생성발전과정의 배경이 되는 가로 및 건물지, 설화, 역사적 장소, 산 하천과 같은 지형적 요소까지 확대하여 간주하고 있음
- 선행연구인 「공주 고도보존 계획(2009)」에서는 공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정비하여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고, 고도지역의 주민보상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며, 문화재로 인하여 위축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재생과 도시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공주고도보존 계획”의 보완·발전차원에서 역사적 흐름과 장소성 차별화를 통하여 공주고도 사업지구내의 경관에 대한 다양한 공간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일원화된 경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공주고도의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기준 체계 수립

- 공주고도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기준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 2) 계획의 목적

#### ■ 미래지향적인 역사문화도시로의 정체성 회복

- 공주 고도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경관 미래상을 설정한 후 기존 경관에 대한 보존·정비를 통해 창조적인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립
- 공주고도경관 개선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 고취

#### ■ 공주 지역 경제의 활성화

- 고도경관개선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공주고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루도록 하며,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지민 대책을 강구
- 공주고도 정체성 및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

#### ■ 고도 경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

- “공주고도보존계획”용역결과 제시된 시범지구(안)을 대상으로 지구별 역사문화환경보존·정비를

---

위한 경관기준안 작성

## 2. 계획의 방법 및 범위

### 1) 계획의 방법

#### ■ 경관기준작성 계획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제고

- 고도경관기준작성연구 수행시 정책방향 확인을 통한 연구 진행
- 경관법규, 조례, 관련기준, 설치기준 및 관련사례를 검토하여 그 범위에서 새로운 경관기준제시
- 고도보존계획 상 제시된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경관기준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의 실현가능성 제고

#### ■ 경관기준 내용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지역주민 및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경관기준내용의 실현가능성 검토하여 계획 추진

### 2)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0~2020년
- 계획수립의 기준연도는 2010년, 목표 연도는 2020년

#### (2) 공간적 범위

- 공주고도보존계획 사업(시범)지구내 지구지정 예상구역
- 공주고도 지구외 인접지역

#### (3) 내용적 범위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9조(고도보존계획)의 각호 의해 수립된 고도보존계획을 기초로 한다.
  - ① 공주고도 사업지구 현황조사
  - ② 행위제한의 분석
  - ③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 ④ 주민지원 예시
  - ⑤ 유사사례분석
  - ⑥ 기타 경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3.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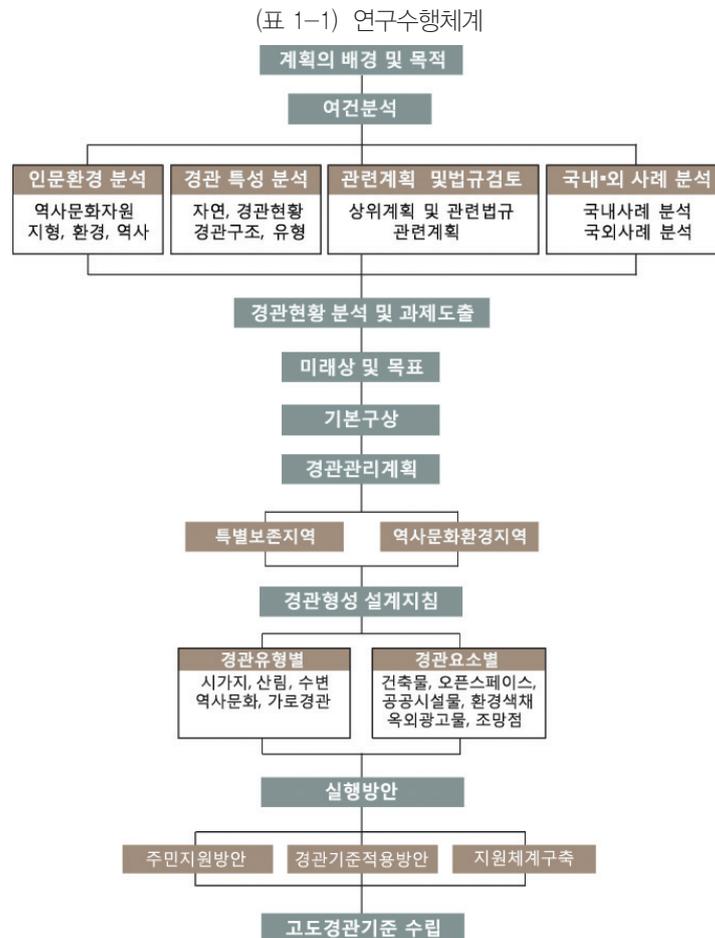
#### ■ 공주 고도 경관 이미지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

- 공주 고도의 우수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주변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시각적, 심미적 경관 특성을 극대화하고, 역사적 흐름과 장소적 차별화를 통하여 다양한 공간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고도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임

#### ■ 공주 고도 경관 기본방향 및 지침을 규정하는 통합적 계획

- 경관 기준작성은 공주 고도 사업지역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건축물 및 향후 건립될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경관색채, 조망경관 등에 대한 도시경관의 관리와 관련계획 추진을 위해 부분별 기본방향 및 설계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경관기준은 공주시 고도경관 유지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모든 규정은 경관 심의, 발주, 실행, 유지, 관리시 고려사항으로 간주 되어야함

### 4. 수행체계



## Ⅱ. 고도사업지구 현황조사

### 1. 사업지구 현황

#### 1) 관련규제 현황분석

##### (1) 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고마나루, 공산성, 송산리고분군(무녕왕릉 포함 7개 고분), 정지산유적, 반죽동 당간지주가 있음
- 도지정문화재로는 옥녀봉성, 선화당, 포정사문루, 영은사 청동범종, 영은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명국삼장비, 쌍수정사적비,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등이 있음
- 향토문화유적으로는 동헌, 금사당, 효자 이복 정려비각, 제민천 영세비 등이 있고, 등록문화재로는 금강철교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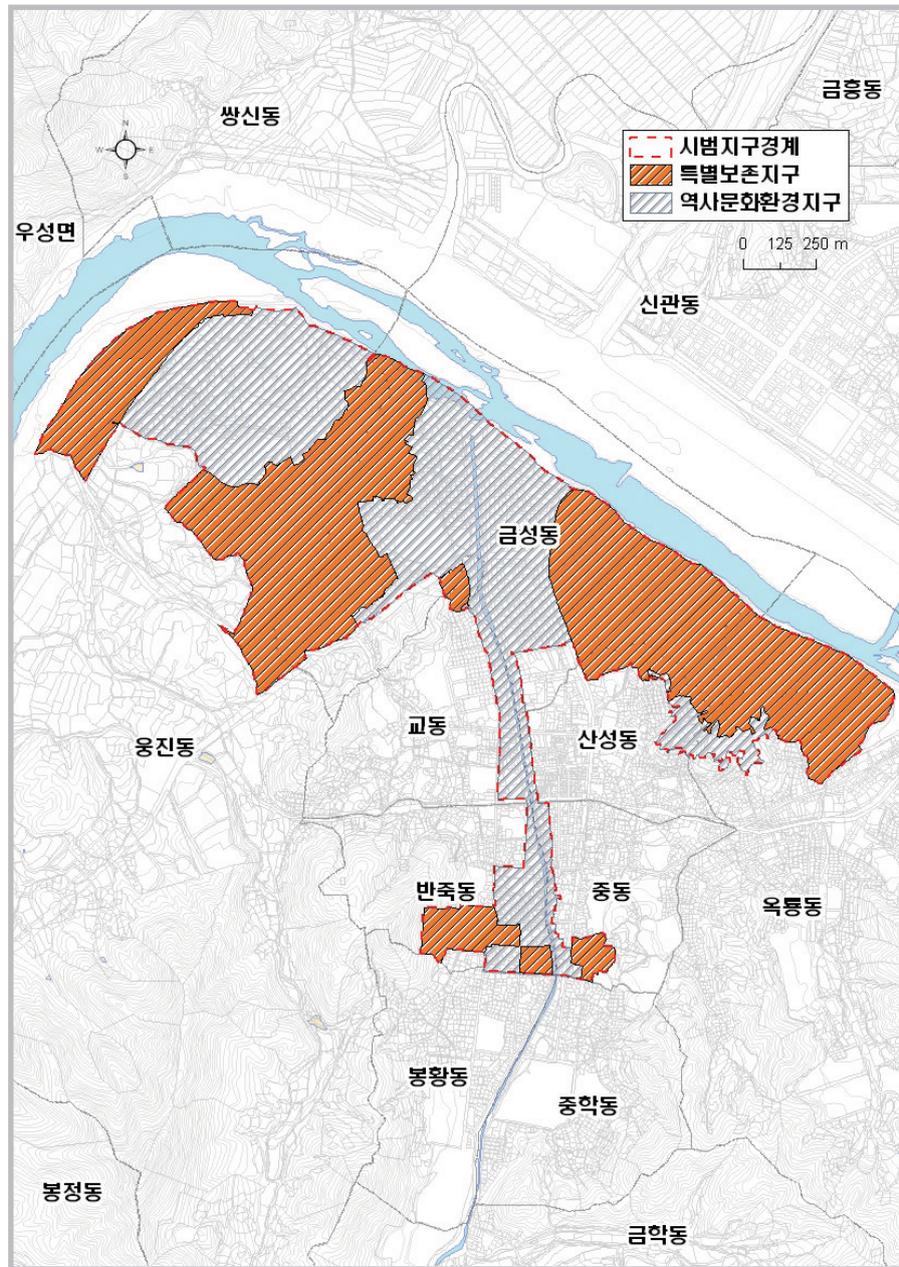
##### (2) 행정구역별 현황

- 시범지구의 면적은 총 203.3만㎡로, 웅진동, 금성동, 교동, 산성동, 옥룡동, 반죽동, 중동 등 7개 동이 포함됨
- 특별보존지구는 금성동 45.1만㎡, 웅진동 38.6만㎡, 옥룡동 20.2만㎡, 반죽동 5.4만㎡, 산성동 3.6만㎡, 중동 1.7만㎡의 규모로 지정하였음
- 역사문화환경지구는 금성동 37.0만㎡, 웅진동 32.2만㎡, 교동 5.5만㎡, 산성동 3.3만㎡ 규모로 지정하였음

(표 2-1) 시범지구 행정동별 현황

(단위 : 만㎡, %)

행정 구역(동)	전체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면적	동별 비율	지구별 비율	면적	동별 비율	지구별 비율	면적	동별 비율	지구별 비율
반죽동	11.7	5.7	100.0	5.4	4.7	46.4	6.3	7.1	53.6
중동	4.1	2.0	100.0	1.7	1.4	41.0	2.4	2.7	59.0
산성동	6.5	3.2	100.0	3.6	3.1	55.5	2.9	3.3	44.5
교동	5.5	2.7	100.0	0.6	0.6	11.8	4.8	5.5	88.2
웅진동	70.8	34.8	100.0	38.6	33.5	54.5	32.2	36.5	45.5
금성동	82.1	40.4	100.0	45.1	39.2	54.9	37.0	42.0	45.1
옥룡동	22.7	11.2	100.0	20.2	17.5	88.7	2.6	2.9	11.3
합계	203.3	100.0	100.0	115.2	100.0	56.7	88.1	100.0	43.3



(그림 2-1) 공주시 시범지구 행정구역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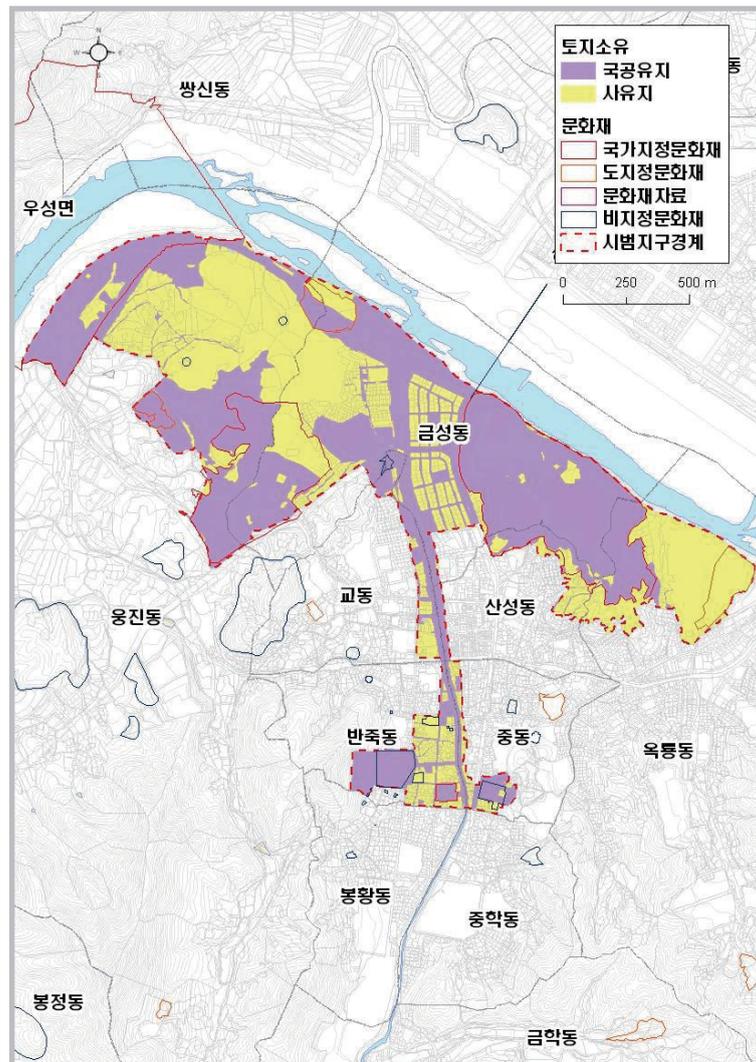
### (3) 토지소유 현황

- 시범지구 내에서 국공유지는 115.9만㎡(57.0%)이고, 사유지는 87.4만㎡(43.0%)임
- 특별보존지구 내에는 국공유지가 79.9만㎡이고 사유지는 35.3만㎡임
  - 특별보존지구는 공산성 및 정지산 일대를 포함하며 국공유지가 69.4%에 달함
-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사유지가 52.1만㎡로 59.1%를 차지하고 하고 있음

(표 2-2) 시범지구 토지소유 현황

(단위 : 만㎡, %)

구분		국공유지	사유지	전체
전체	면적	115.9	87.4	203.3
	토지소유별 비율	57.0	43.0	100.0
	지구별 비율	100.0	100.0	100.0
특별보존지구	면적	79.9	35.3	115.2
	토지소유별 비율	69.4	30.6	100.0
	지구별 비율	68.9	40.4	56.7
역사문화 환경지구	면적	36.0	52.1	88.1
	토지소유별 비율	40.9	59.1	100.0
	지구별 비율	31.1	59.6	43.3



(그림 2-2) 시범지구 토지소유 현황도

## 2) 건축물 현황분석<sup>1)</sup>

### (1) 건축물 층수 현황

- 시범지구내에는 총 862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1층 건물이 526동으로 전체의 61%를 차지  
- 특별보존지구내에서 1층 건축물은 108동으로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는 1층 건물 418동으로 59.3%의 분포를 보임
- 3층 이상 건물은 17.1%를 차지하며 특별보존지구 내에는 13동, 역사문화환경지구에는 136개동이 있음
- 5층 이상 건축물은 특별보존지구 내에는 없으며 역사문화환경지구에 9개 동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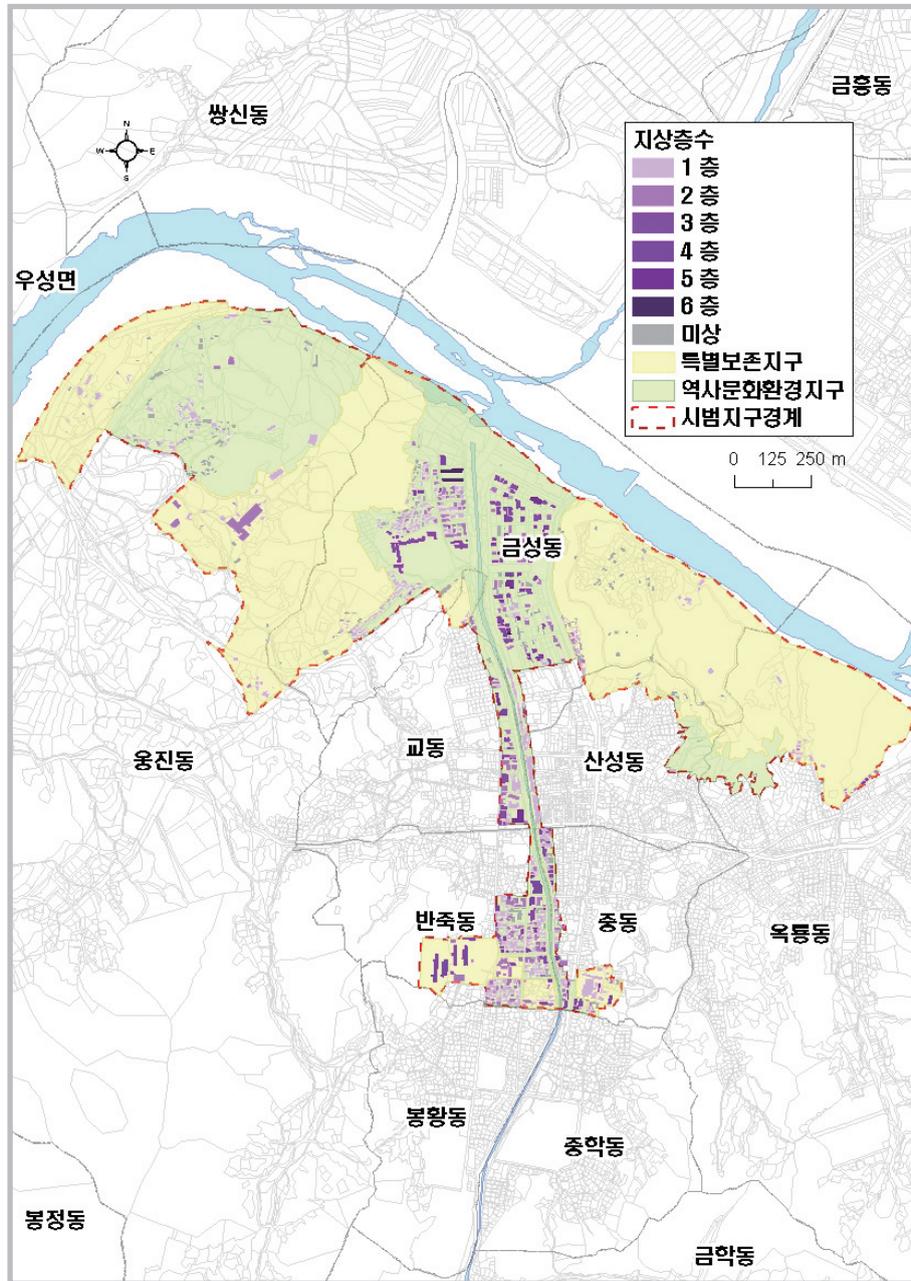
(표 2-3) 시범지구 건축물 층수 현황

(단위 : 동, %)

건물층수	전체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동수	비율	동수	비율	동수	비율
1층	526	61.0	108	68.8	418	59.3
2층	187	21.7	36	22.9	151	21.4
3층	94	10.9	8	5.1	86	12.2
4층	45	5.2	5	3.2	40	5.7
5층	6	0.7	-	-	6	0.9
6층	3	0.3	-	-	3	0.4
기타 <sup>1)</sup>	1	0.1	-	-	1	0.1
합계	862	100.0	157	100.0	705	100.0

주: 기타 건물은 응비탐으로 층수가 없음

1) 2009년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분석



(그림 2-3) 시범지구 건축물 층수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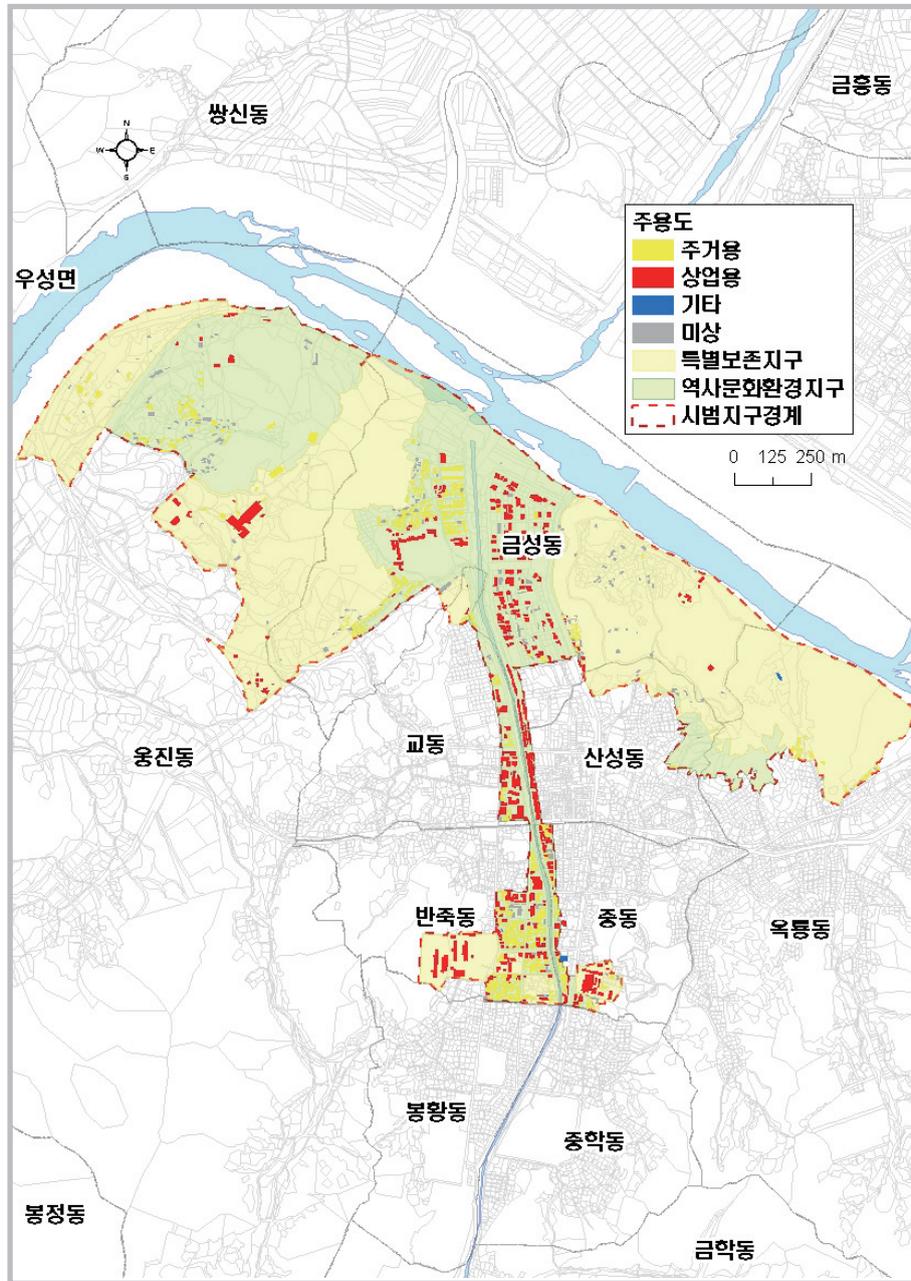
## (2) 건축물 용도현황

- 총 862개 건축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518동, 60.1%를 차지하고 있음
  - 단독주택은 특별보존지구에 86동, 역사문화환경지구에 432동이 분포하고 있음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 숙박, 의료시설 등은 267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1% 정도를 차지함
  - 상업·업무용 건축물 중의 82.8%(221동)가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분포함

(표 2-4) 시범지구 건축물 용도 현황

(단위 : 동, %)

건축물 용도	건물용도	전체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동수	비율	동수	비율	동수	비율
주거용	단독주택	518	60.1	86	54.8	432	61.3
	공동주택	8	0.9	-	-	8	1.1
	소계	526	61	86	54.8	440	62.4
상업 · 업무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78	9.0	13	8.3	65	9.2
	제2종근린생활시설	103	11.9	11	7.0	92	13.0
	근린생활시설	44	5.1	4	2.5	40	5.7
	업무시설	14	1.6	6	3.8	8	1.1
	숙박시설	16	1.9	1	0.6	15	2.1
	의료시설	12	1.4	11	7.0	1	0.1
	소계	267	30.9	46	29.2	221	31.2
문화 · 복지시설	문화및집회시설	17	2.0	9	5.7	8	1.1
	관광휴게운동시설	3	0.3	1	0.6	2	0.3
	교육연구및복지시설	22	2.6	10	6.4	12	1.7
	소계	42	4.9	20	12.7	22	3.1
기타	공장	1	0.1	-	-	1	0.1
	공공용시설	2	0.2	-	-	2	0.3
	자동차 관련시설	3	0.3	-	-	3	0.4
	창고시설	10	1.2	4	2.5	6	0.9
	기타	11	1.3	1	0.6	10	1.4
	소계	27	3.1	5	3.1	22	3.1
합계		862	100.0	157	100.0	705	100.0



(그림 2-4) 시범지구 건축물 용도 현황도

### (3) 건축물 경과연수 현황

- 시범지구내 건축물은 50년 이상 된 건축물이 143개동(16.6%)으로 특별보존지구에 32개동(20.4%)이 있으며, 역사문화환경지구에 111개동(15.7%)이 있음
- 20년에서 30년 미만의 경과연수를 지니는 건축물은 311개동(36.1%)이 있으며, 특별보존 지구는 42개동(26.8%), 역사문화환경 지구는 269개동(38.2%)을 차지하고 있음
  - 도심의 낙후한 정주환경을 이루는 건축물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건축되었음
- 2000년 이후 지어진 10년 미만의 건축물은 총 70개 동이 있으며, 이 중 84.3%인 59개동이 역사문화환경 지구에 분포하고, 특별보존 지구 내에도 약 10여 동의 신축건물이 있음
  -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로 금성동 일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시범지구 건축물 경과연수 현황

(단위 : 동, %)

건축년도	전체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동수	비율	동수	비율	동수	비율
10년 미만	70	8.1	11	7.0	59	8.4
10년~20년 미만	183	21.2	38	24.2	145	20.6
20년~30년 미만	311	36.1	42	26.8	269	38.2
30년~50년 미만	149	17.3	30	19.1	119	16.9
50년 ~100년 미만	143	16.6	32	20.4	111	15.7
누락	6	0.7	4	2.5	2	0.3
합계	862	100.0	157	100.0	7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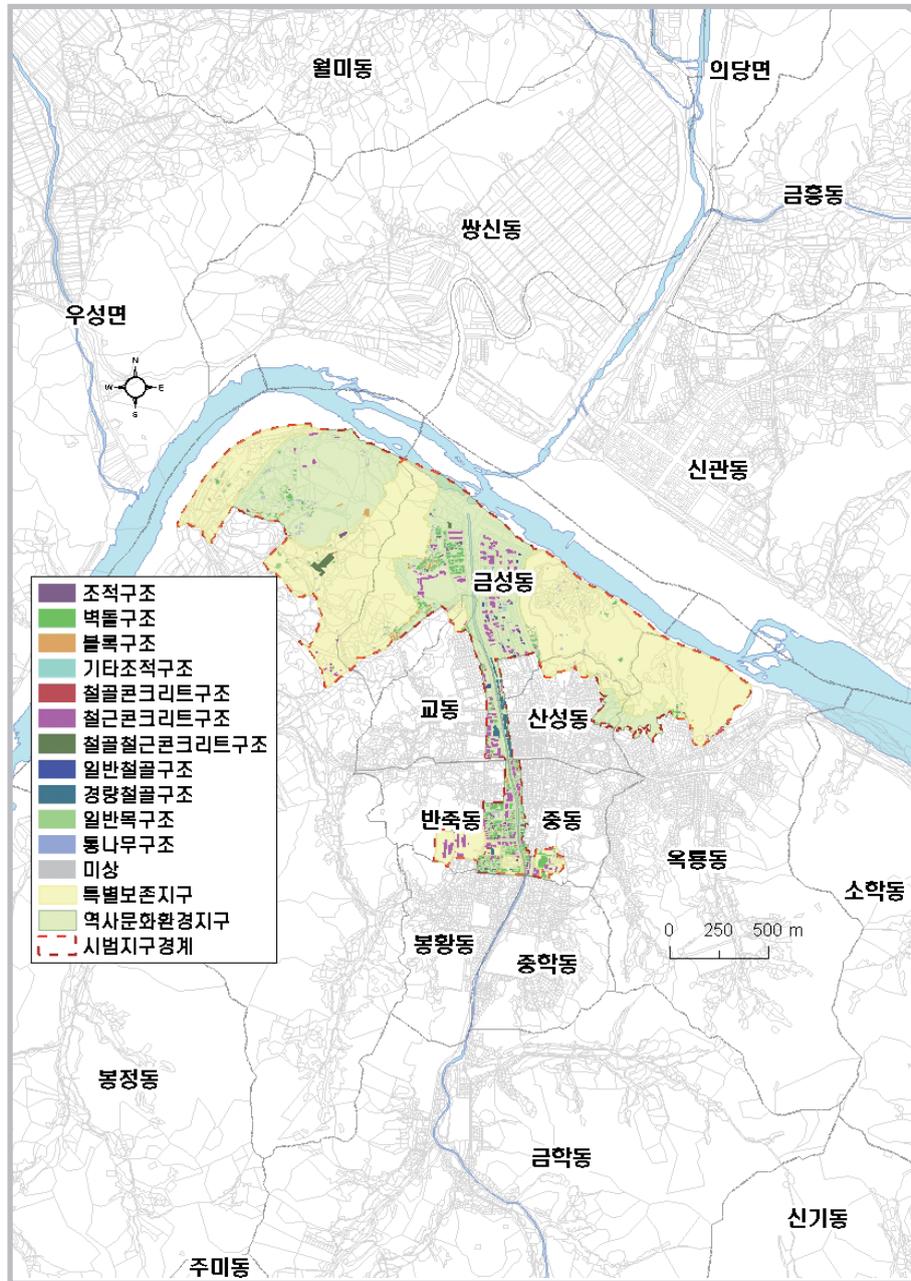
#### (4) 지붕 및 건축물 구조 현황

- 시범지구내 건축물의 지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가 전체 건물 중 386동(44.8%)로 가장 많고, 기와지붕은 259동(30%) 정도임
- 금성동, 반죽동, 중동 지역에 철근콘크리트 지붕구조가 많이 분포하며, 시범지구 중 정지산 동측 부분과 무령왕릉 방향의 정지산 남측 부분에 기와지붕구조로 된 건물이 많이 분포함
-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에서의 지붕구조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건물구조는 벽돌구조의 건물이 33.1%를 차지하였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이 26.0%를 차지함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은 신축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성동의 제민천 동측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민천 서측 부분과 대통사지 주변에는 벽돌구조의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특별보존지구에 가장 많은 건물 구조는 벽돌구조 33.1%, 철근콘크리트구조 26.8%, 일반목구조 22.9% 순이고,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도 벽돌구조 33.0%, 철근콘크리트구조 25.8%, 일반목구조 16.2% 순으로 유사하게 분포함

(표 2-6) 시범지구 건축물 구조 현황

(단위 : 동, %)

건물구조		전체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동수	비율	동수	비율	동수	비율
조적조	조적구조	57	6.6	8	5.1	49	7.0
	벽돌구조	285	33.1	52	33.1	233	33.0
	블록구조	95	11.0	10	6.4	85	12.1
	기타조적구조	6	0.7	-	-	6	0.9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구조	2	0.2	2	1.3	-	-
	철근콘크리트구조	224	26.0	42	26.8	182	25.8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3	0.3	1	0.6	2	0.3
철골조	일반철골구조	14	1.6	-	-	14	2.0
	경량철골구조	22	2.6	5	3.2	17	2.4
목조	일반목구조	150	17.4	36	22.9	114	16.2
	통나무구조	1	0.1	-	-	1	0.1
기타		3	0.3	1	0.6	2	0.3
합계		862	100.0	157	100.0	705	100.0



(그림 2-6) 시범지구 건축물 구조 현황도

## 2.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1) 경관현황

- 중요문화자원 주변의 혼잡한 토지이용과 공산성, 제민천 주변 주거시설의 노후화로 기능 쇠퇴
- 고도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경관요소 부재
- 문화재 주변 건축물 난립으로 경관저하 및 통행 축 차단과 도로에 의해 각고도 구성요소간 연결의 단절 발생
- 도심 내외부의 문화유적을 연계하는 순환교통망의 부재
-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이 산성재래시장과 중동상가로 유도되지 못함
- 도심부의 공원, 녹지 공간 부족으로 쾌적성 저하
- 구도심과 금강을 연계하는 제민천을 도심의 활력요소로 활용하지 못함
- 공산성 아래에 위치한 도로변에 공구 업소 난립으로 이질적인 이미지형성과 경관 훼손
- 도심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체계 미비

### 2) 경관현황 분석

#### (1) 시가지경관

##### ① 준주거지역

- 지역설정기준 : 위치 - 공주시 금성동 182-1  
도시구역내 용도지구 - 준주거지역, 고도지구, 제3종 미관지구
- 현황
  - 준주거지역은 예식장, 음식점, 숙박업소 등 3~4층 건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음
  - 준주거지역내 건물의 색상은 주변 유적지환경과 조화되지 않아 색채정비가 필요
  - 공산성방향으로 건물에 의해 유적지에 대한 조망이 차단되며, 건물이 위압감을 나타냄
  - 빈공간의 나대지는 주차공간이나 폐자재 보관장소로 활용되어 미관상 저해요소로 작용함



(그림 2-7) 시가지경관 현황

- 제민천과 인접한 금성배수장은 홍수대비시설로서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가 낮아 고유 기능은 유지한채 휴식공간으로의 활용방안모색 필요
- 역사문화유산과 주변시가지건물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무질 서한 공간이 형성됨
- 공산성앞 시가지경관인 준주거지역은 주거지 및 상업지가 혼재되어 복잡한 경관을 보이며, 건물에 의해 조망이 차단됨
- 준주거지역인 미나리3길은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2차선도로에 불법주차차량으로 통행에 지장을 줌

## (2) 가로경관

### ① 가로구분

- 가로경관지구는 공산성, 옥녀봉성, 금강, 제민천과 인접한 가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구분은 가로명에 따라 크게 금강공원길, 왕릉로, 웅진로, 봉황로, 백제큰길, 제민천변길 등 6개 도로로 구분
- 가로대상지에서 왕릉로, 웅진로는 보조간선도로, 금강공원길은 소도로 구성

## ② 대상지 건축물 현황

## ● 건물층수

- 시범지구 내에는 단층 건물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5층이상 건축물은 특별보존지구 내에는 없으며 역사문화환경지구에 9개동이 분포됨
- 3층 이상 건물은 특별보존지구 내 13동, 역사문화환경지구에 136개동이 있음

## ● 건물용도

- 건축물 중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단독주택은 특별보존지구에 86동, 역사문화환경지구에 432동이 분포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 숙박, 의료시설 등은 전체 건축물의 30% 정도를 차지함
- 상업·업무용 건축물 중 대부분이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분포함

## ● 건물구조 및 지붕형태

- 시범지구내 건축물의 지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가 전체 건물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와지붕으로 나타남
- 지붕형태는 평슬래브지붕이 많으며, 맞배지붕, 외쪽지붕, 눈썹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성동, 반죽동, 중동 지역에 철근콘크리트 지붕구조가 많이 분포하며, 시범지구 중 정지산 동측 부분과 송산리고분군에 인접한 역사문화보존지구내 일반주택에 기와지붕 구조로 된 건물이 많이 분포함
-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에서의 지붕구조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건물구조는 벽돌구조의 건물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이 그 다음으로 많음

## ● 지붕색채

- 가로경관의 건물 색채는 회색이 가장 많으며, 흰색, 자주색, 갈색, 청색, 노랑색, 녹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붕의 색채는 회색과 청색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주황색, 녹색, 갈색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색과 주황색, 녹색이 많은 것은 소재색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임

## ● 천변상가 건축물 현황

- 독방상가는 시범지구내 제민천변을 따라 수공간축을 이루는 주요 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천변을 따라 노후화된 상가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고도의 경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천변에 길게 늘어선 무허가 상가건물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패널이 조망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미관상 거부감을 갖게하는 요소로 작용함
- 독방상가는 3,072.04㎡의 면적에 총 155개의 점포가 입지해 있으며, 업종별로는 요식업이 가장 많고, 채소가게, 옷가게, 과일가게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건물 및 지붕색채

- 건물색채는 회색과 갈색이 많으며, 지붕색채는 청색, 회색, 갈색순으로 나타남
- 지붕형태
- 맞배지붕과 슬래브 형태의 평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우진각, 팔작지붕도 나타남

간판

- 상가간판은 판넬형태의 낡고 노후된 간판이 많고, 고채도 색상으로 시각적 자극과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나타냄

③ 웅진로

- 준주거지역의 가로 경관은 완충녹지와 같이 보행자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병행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의 연속성이 없고, 강한색상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함
- 공산성 아래 보행로는 폭이 좁고, 업소의 판매물품을 보행로에 적재하여 통행에 지장을 줌



(그림 2-8) 웅진로 가로현황

- 완충녹지의 경계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보행로 블록의 개선 및 자전거통행로의 투수성재질과 색상의 교체가 필요
- 공산성 방향 진입로에는 공주고도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주변 상가건물이 인접한 공산성과 어울리지 않음
- 다른 도로에 비하여 도로 폭이 약 18m로서 비교적 넓고, 도로옆의 녹지공간도 여유가 있음
- 금강철교와 인접한 지점에 조성된 소공원은 접근성이 낮으며, 강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조망에 장애요소로 작용함

## ④ 왕릉로

- 왕릉로는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고도이미지와 상징성을 나타내지 못함
- 송산리고분군 가로에 성석을 쌓고 그 앞에 가드웬스를 설치하여 부자연스럽고, 주변 환경과도 부조화
- 현재 연문앞 교통광장 주변 건물들은 고도이미지를 훼손함



(그림 2-9) 왕릉로 가로현황

- 왕릉교에서 공산성 방향으로 도로변에 많은 정보시설물이 설치되어 혼란스럽고, 공산성에 대한 조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보행로 바닥패턴 및 색상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며, 4~5층 건물이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유적이 왜소해 보임
- 가로시설물간의 조형적 통일감과 색상의 고유성이 없어 통합적 고도의 가로이미지가 필요
- 연문이 공주고도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지 못하여 조형성 및 구조상의 검토가 필요
- 가로변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디자인 형태가 통일성 및 정체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함

⑤ 금강공원길

- 도로변을 따라 설치된 휨스가 이질적이며, 건물에 대형간판을 설치하여 유적지 주변과 부조화를 나타냄
- 상가건물에 의해 공산성 방향으로 조망이 차단되고, 위압감을 줌



(그림 2-10) 금강공원길 가로현황

- 정지산 방향으로 비둘기아파트 및 요양원 건물에 의해 조망이 차단됨
- 보행로 공간에 전기시설물과 화분이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
- 보행로를 따라 설치된 우드데크는 정지산 방향으로 연속성이 떨어짐
- 금강철교의 보행로와 금강공원길의 보행로와 연결성이 낮음
- 공산성과 금강공원 녹지축이 제민천에 의해 정지산과 연결되지 못하고 차단되어 보행로와 병행연결이 필요함

⑥ 봉황로, 제민천변길

- 봉황로는 예전에 공주의 중심 도로였으나, 현재는 왕복 2차선으로 차량위주 통행로임
-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도로변에 공주형무소터가 남아있으나, 현재는 주차공간으로 이용됨
- 낡고, 오래된 건물이 곳곳에 남아있어 경관에 저해요소로 작용함
- 봉황로와 연결된 우체국길은 근대건축물과 화랑, 문화원이 있으나 현재 도로의 개성이 현저히 낮음
- 항색차선 밖에 장애인 셔틀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에 불편함
- 제민천변길에 무허가 포장마차촌이 위치해 있고 노후된 건물로 인해 경관이 불량함
- 제민천변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친환경성이 떨어지며, 차량통행으로 보행에 지장을 줌
- 제민천변 시장 무허가 건물에 의한 공산성의 접근성 및 통경축 차단
- 제민천변 및 교각의 주차장화로 경관 저해



(그림 2-11) 봉황로, 제민천길 가로현황

⑦ 백제큰길

- 부여와 연결되는 외곽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음
- 금강변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잡목이 강변 경관을 가리는 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함
- 도로변에 휴식공간 및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그림 2-12) 백제큰길 가로현황

(3) 유적지 경관

- 유적지경관은 고도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상징적 경관이나 주변 인공건조물에 의해 통경축이 차단되고 있음
- 유적지 내부에서 외부를 조망하는 경관이 나무에 가려 가지치기를 통한 조망 확보 필요
- 점적으로 흩어져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공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경관자원으로 재활용이 요구되며, 문화공간으로의 체계적인 활용방안 모색
- 유적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는 인공건축 및 구조물의 형태로 인해 조망이 차단됨



(그림 2-13) 유적지 경관

(4) 산림 녹지경관

- 문화재가 분포한 공산성은 금강과 직접 연계되어 금강에서 접근성 개선과 조망권 관리가 필요함
-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도심 고층건물에 의해 차단되고 있어 건축물 높이 관리 실시

- 아파트 단지가 산림 스카이라인 차단 요인이 되므로 아파트 등 고층 건축물 입지 지양
-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접근로 개선 및 급격한 경사로에는 산책로를 설치되어 안내판, 이정표 정비 필요
- 역사문화보존지역에 녹지공간 부족



(그림 2-14) 산림녹지 경관

#### (5) 수변경관

- 제민천의 수량이 부족하며, 무분별한 하상도로 설치로 인하여 하천생태계에 부정적 요소로 나타남
- 제민천변의 석축에 의한 경관이미지 훼손과 노후된 교각에 대한 정비를 통한 고도이미지 개선
- 천변 복잡한 전신주의 지중화와 무질서한 교각의 주차문제 개선이 필요하며, 상류방향으로 갈수록 천변 건물에 의해 통경축이 차단됨
- 제민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하천폭이 넓어지는 개방형 공간을 이루고 있음
- 제민천은 접근성이 낮은 수변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수변공간과 단절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2-15) 수변 경관

---

## Ⅲ. 고도육성 제도 검토

### 1. 관련법제 및 계획검토

#### 1) 고도관련 법제검토

##### (1) 고도보존법

###### ① 개요

- 고도보존법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옛 도읍지의 역사문화환경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정체성을 띠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개별 문화재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문화유산이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총체적으로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됨
- 따라서 고도보존법의 가장 큰 특색은 공간계획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키고 지역 중심의 면적 보존을 위한 관리수단으로서 광역적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통해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고도보존법은 법 제정시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사전연구가 부족하다는 등 여러 이유에서 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지구지정 등은 아직 담보상태에 있음
- 2010년 현재 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 4개 도시가 법에서 고도로서 언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구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② 고도보존법과 공주

- 고도보존법에 기초한 공주 고도보존계획(2009.12)에 의하면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하여 고도보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별보존지구 내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택지조성·형질변경·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및 수목의 벌채·옥외광고물 설치 및 부착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의 내용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8~20조의 내용에 대한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다만, 건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60㎡ 이하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음

(표 3-1) 고도보존 시범사업지구 현황



참고 : 공주고도보존계획

(표 3-2) 고도보존법에 의한 행위제한

구분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법 제11조	<p>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li> <li>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li> <li>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li> <li>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li> <li>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ol>	<p>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li> <li>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li> <li>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li> <li>4. 도로의 신설·확장</li> <li>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ol>
시행령 제18~20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li> <li>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li> <li>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li> <li>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li> <li>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li> </ol>	

## (2) 문화재보호법

### ① 개요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됨(1996)
  -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문화재 범주를 확대하고 보호수단과 방식에 있어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음(정석, 2009).
- 문화재보호법은 법에 근거한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재보호구역’제도를 마련함
  -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됨
- 1973년 개정 시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을 면단위로 보호하기 위한 ‘집단민속자료구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1980년 하회마을과 성읍마을, 양동마을 세 곳이 지정됨
  - 또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승인제도(1978 개정)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89년 개정 시에는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1년에는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보호장치가 마련됨
- 특히, 등록문화재 가운데에는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 또는 물품과는 달리 옛 마을의 돌담처럼 선단위 등록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어 등록문화재도가 역사문화환경의 선단위 보전제도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정석 2009)
- 이 밖에도 2010년 2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을 역사문화환경이라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 그 범위는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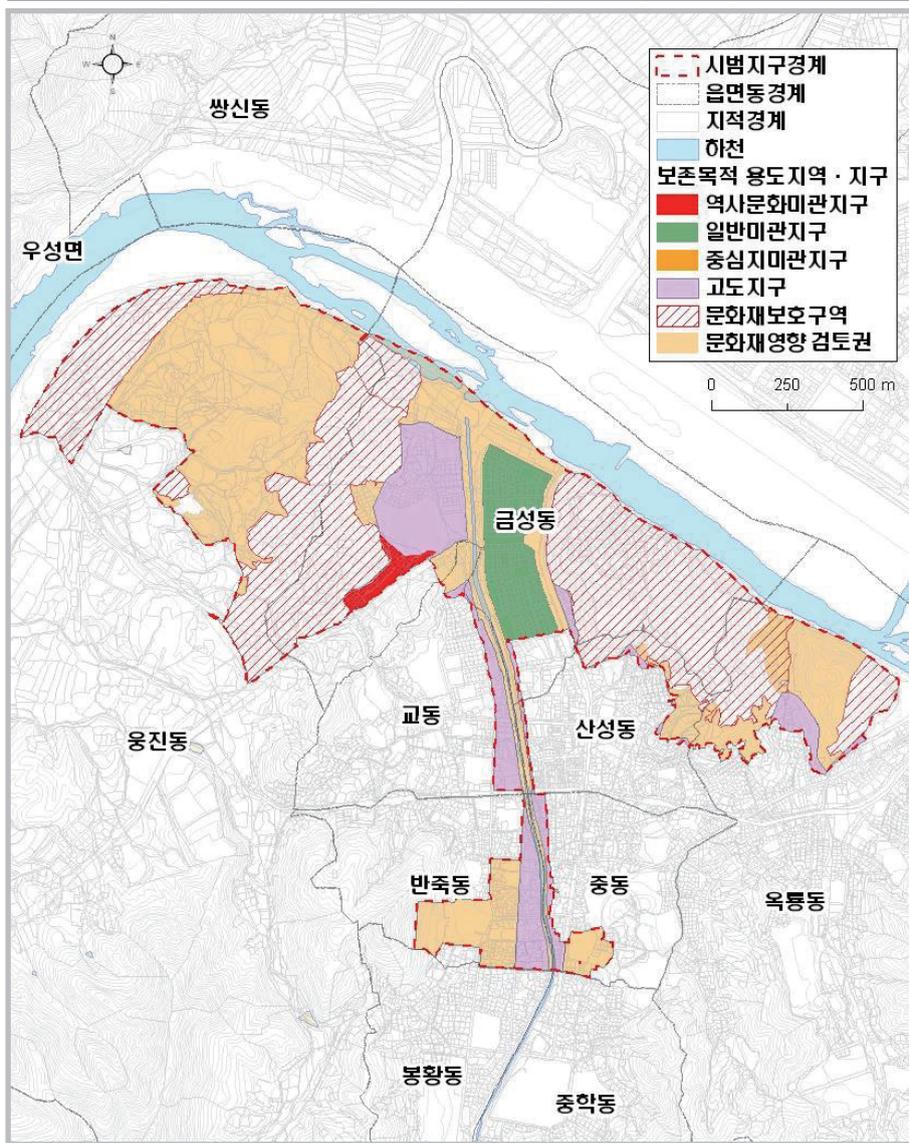
### ② 문화재보호법과 공주

- 시범지구는 기존의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 영향검토권에 모두 해당되며, 문화재영향검토권은 총 115.1만㎡로 시범지구 전체 면적의 57.7%를 차지함

(표 3-3) 시범지구 문화재 관련 규제 현황

(단위: 만㎡, %)

기준법	구분	합계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88.2	43.4	88.2	76.6	-	-
	문화재영향검토권	115.1	57.7	29.6	25.7	87.6	99.4
	합계	203.3	100.0	117.9	100.0	87.6	99.4



참고 : 공주고도보존계획

※ 도시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작성 용역 진행중(2011.5 현재)  
 - 용역결과 반영 보완 예정  
 - 공주시 문화재관리사무소

### (3) 경관법

- 고도성장에 따라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부작용과 함께 지역성과 전통성 상실 등의 경관손실이 발생함
- 획일적이고 비개성적인 국토경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창출을 위한 경관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었고, 경제발전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
- 또한 기존 법률들의 대부분은 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지구지정 등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경관의 형성이나 훼손 및 불량한 경관을 양호한 경관으로 복원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미흡한 상황임
- 이러한 사회적인 패러다임과 함께 새로운 법률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경관관리의 지원 및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고자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
- 이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전제도로서는 ‘특정경관계획’과 ‘경관협정’ 제도를 들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보전수단으로서의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법률의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의 실천의지가 약할 경우 법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극적인 적용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충남도와 공주시 모두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① 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등의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있음
- 미관지구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당시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양식 보존 및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음
- 1973년에는 1종에서 5종까지 세분화되었고 이 가운데 ‘제4종 미관지구’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보전 및 전통미관의 유지 목적으로 활용되었음
-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시 ‘제4종 미관지구’는 명칭이 변경되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이에 해당하며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경주, 전주, 서울의 북촌 일대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1965년 건축물 높이제한 목적으로 도입된 ‘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토지고도이용 및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1971년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보존지구’ 역시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해당함
- 지구단위계획제도는 1980년 ‘건축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던 ‘도시설계제도’와 1991년

-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던 ‘상세계획제도’가 2000년 두 제도의 통합에 의해 생겨났으며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 미관,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980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던 도시설계제도에 근거하여 1985년에는 북촌 한옥지구 도시설계안이 작성되고 1987년에는 인사동 도시설계안이 작성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1991년에는 도시설계제도와 별도로 ‘상세계획’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으나 역사문화 보전을 목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음
  - 그러나 2000년 두 제도가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통합 된 이후에는 인사동과 북촌, 전주한옥마을 등에서 지역전체의 종합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는 본래 취지가 토지이용 합리화와 도시기능, 미관,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위한 것은 아님(정석,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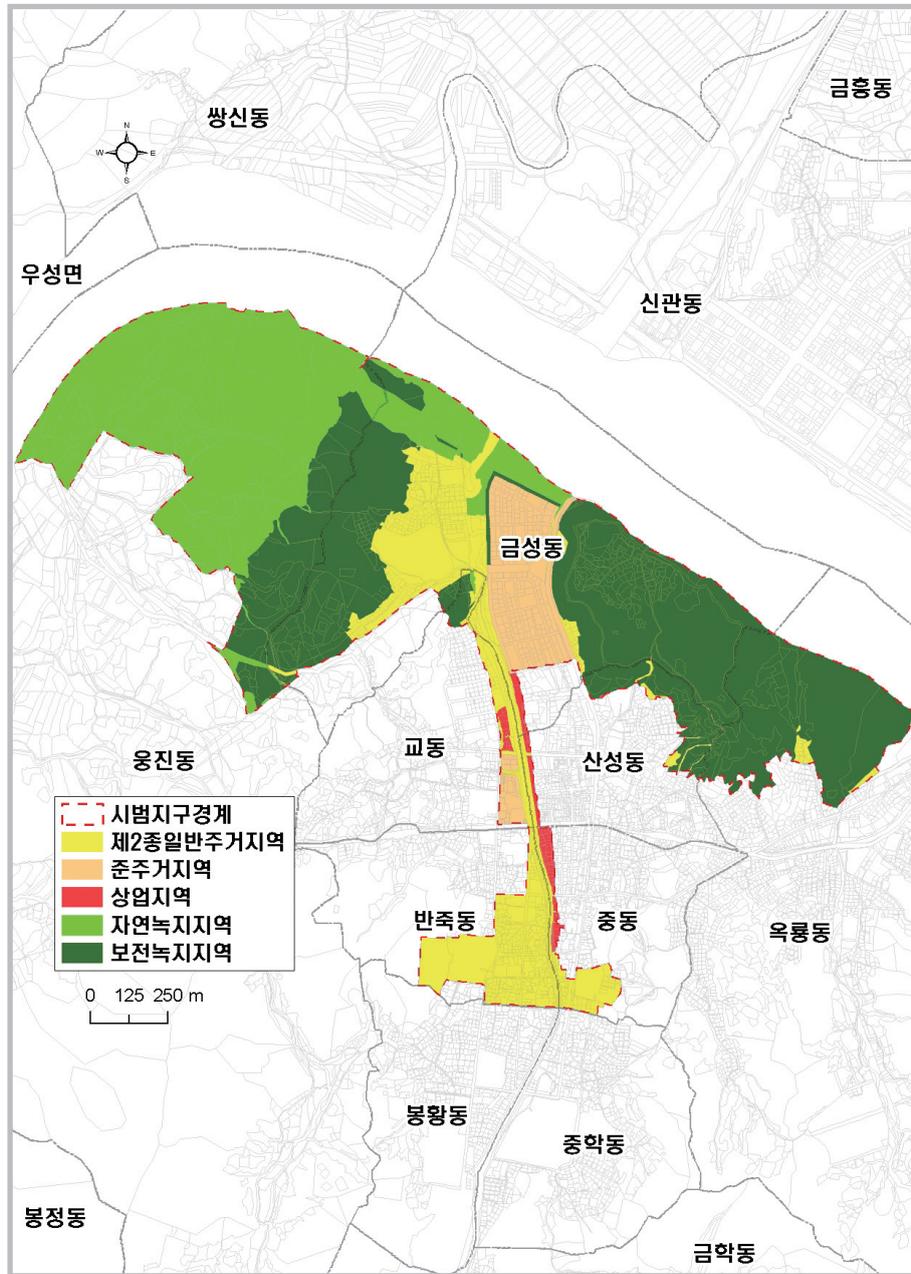
### ② 용도지역 및 지구현황

- 전체의 73.4%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보전녹지지역이 약 85.9만㎡(42.3%)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전체의 31.1%로 대부분 용진동과 금성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음
- 주거지역(제2종 일반: 16.6%, 준주거: 6.9%)과 상업지역은 각각 23.5%, 1.0% 정도 지정되어 있음
- 지구별로 살펴보면 특별보존지구 내에는 보존녹지지역이 68.9%, 자연녹지지역이 21.5%를 차지하여 녹지지역이 전체의 90.4%를 차지하고, 주거지역은 7.6%, 상업지역은 2.1%임
-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 43.7%, 주거지역이 43.2%이며, 시범지구내 상업지역은 대부분 역사문화환경지구에 속해 있으며, 주거지역 역시 81.5%가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분포하고 있음
- 전체 자연녹지 중 60.9%는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분포하며 보전녹지의 92.4%는 특별보존지구에 속하고 있음

(표 3-4) 시범지구 용도지역 현황

행정구역 (동)	전체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면적	용도 지역별 비율	지구별 비율	면적	용도 지역별 비율	지구별 비율	면적	용도 지역별 비율	지구별 비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35.4	17.4	100.0	8.8	7.7	25.1	26.5	30.1	74.9
준주거지역	14.1	6.9	100.0	-	-	-	14.1	16.0	100.0
상업지역	2.2	1.1	100.0	-	-	0.7	2.1	2.4	99.3
자연녹지지역	64.9	31.9	100.0	26.1	22.6	40.1	38.9	44.1	59.9
보전녹지지역	86.8	42.7	100.0	80.2	69.7	92.5	6.5	7.4	7.5
합계	203.3	100.0	100.0	115.2	100.0	56.7	88.1	100.0	43.3

참고 : 공주고도보존계획



참고 : 공주고도보존계획

(그림 3-1) 시범지구 용도지역 현황

- 시범지구 전체 면적의 23.5%에 해당하는 47.8만㎡가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용도, 층수(3층 이하), 형태, 색채 등을 규제
- 일반미관지구에서는 2층 이상으로 짓도록 규제
-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주거지역 16m 이하, 상업지역 25m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제

(표 3-5) 시범지구 용도지구 현황

기준법	구분	합계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국토계획법	역사문화미관지구	1.8	0.9	-	-	1.8	2.1
	일반미관지구	10.9	5.4	-	-	10.9	12.4
도시계획조례	최고고도지구	35.0	17.2	4.5	3.9	30.4	34.5
	합계	47.8	23.5	4.5	3.9	43.2	49.0

## 2) 관련계획과 관계검토

### (1) 공주공산성 유적정비 및 경관관리 기본계획

#### ① 개요

- 대상 : 공산성, 옥녀봉성, 금강교 일원
- 위치 : 공주시 산성동, 금성동, 옥룡동 2 외 207필지
- 기간 : 2007년~2021년(15년)

#### ② 목표

- 백제 고도로서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가로의 특성을 부각,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설정
- 상징가로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관적으로 특성화된 가로를 형성하되, 가로의 포장 및 가로 장치물을 통일성있게 정비하여 가로에 대한 통합된 이미지를 제공

#### ③ 기본구상

- 금강교 남측 진입광장 조성
  - 금강교와 연계한 진입 및 휴식광장을 조성하고, 보행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함
- 웅진로 완충녹지연장정비
  - 단절된 완충녹지의 연장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자전거 도로를 별도 설치하고, 보도를 재정비함
- 왕릉로 교통광장 조성
  - 교통섬의 녹지대를 확보하고, 가로경관의 경관성을 향상시킴
- 금강공원길 가로정비
  - 정지산과 공산성과 산악녹지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주시목인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관을 정비

#### ④ 경관관리 기본요소

- 가로구간별 테마설정
  - 가로변 완충녹지 공간의 가로공원 조성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금강교 진입부 결절점에

- 상징광장, 교통광장, 가로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가로수, 가로장치물, 바닥포장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정비하고, 기존 가로등을 정비 보완 및 안내사인, 완충녹지대의 연장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

⑤ 경관가이드라인 지침

- 가로변 정비
  - 경관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입로 정비, 보차구분 및 주차장 등을 확보하고, 통행목적에 저해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보도폭원을 확보
- 시설물디자인
  - 시민 휴게실이나 기념비가 설치된 공공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 편의시설을 확충
  - 보행로 포장재 및 특성화된 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하고, 야간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
  - 경관자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사인체계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
- 시설물별 가이드라인

(2) 공주고도보존계획

① 개요

- 위치 : 공주고도 지구지정에 의한 시범지구
- 내용 : 시범지구로 선정된 공산성 및 옥녀봉, 송산리고분군, 정지산유적, 고마나루 일대에 대한 구체적 고도보존계획 수립
- 기간 : 2009년~2018년 (19년)

② 고도공주의 미래상

- 자랑스러운 역사문화환경과 현대 도시기능이 어우러진 도시형 고도
  - 첫째, 금강벚길로 부여·익산과 연계한 광역적 백제고도축의 거점
  - 둘째, 역사적 실체와 고도의 공간적 역사 골격회복으로 역사문화환경이 제고된 고품격공주
  - 셋째, 과거와 현재의 삶터가 조화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공주
  - 넷째, 지역주민 스스로가 관리주체가 되는 주식회사 고도 공주

③ 계획의 목표

- 공주 고도의 미래상 “자랑스러운 역사문화환경과 현대적 도시공간이 어우러진 도시형 고도”를 구현하기 위해 ‘역사적 진정성 확보’,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함

- 첫째, 고도 골격 구성요소의 유기적 연계
- 둘째, 구도심의 통합적 역사문화경관 조성
- 셋째, 구도심 활력거점 조성으로 도심기능 유지·강화

#### ④ 역사문화경관계획의 목적

- 고도의 우수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주변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시각적, 심미적 경관 특성을 극대화
- 역사적 흐름과 장소성 차별화를 통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공간 특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도심경관 조성
- 역사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의 시각적 인지력을 향상시켜 경관대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와 조화되는 쾌적한 거주·생활환경을 조성

#### ⑤ 주요사업

- 비움의 공간 확보
- 소통의 공간 및 관광거점 조성
- 한옥형 저밀 주거단지 조성
- 전동보행로 조성으로 접근성 제고
- 전통체험가로 조성
- 다양한 공산성 접근로 개설
- 공산성 주변 노후지역 정비
- 금강철교의 기능전환
- 공산성~정지산유적의 역사문화 연계거점 조성
- 상징교각 및 상징가로 조성
-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도심재생
- 한옥형 중밀주거단지 조성
- 대통사지 발굴 정비
- 공주감영터의 외형과 기능 회복
- 역사문화 중심의 생활환경 조성
- 환승거점 조성



(그림 3-2) 시범사업지구

### (3) 부여군 가로경관 개선사업 기본계획

#### ①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일원
- 규모 : 사비로- 0.95km, 4차선/구드레길- 0.73km, 2차선
- 기간 : 2008년~2010년 (2년)

#### ② 목적

- 2010 대백제전을 대비, 백제 부여의 상징 거리 조성
- 도시미관 및 문화컨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증대에 부합
- 거리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 『충남』의 이미지를 제고

③ 기본전제

-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Identity)
  - 부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역사문화적 자산 및 주변공간 자산 자체는 물론, 주위의 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연출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
-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Image)
  -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연출함으로써 관광도시 이미지 부여
- 도시환경의 쾌적성(Amenity)
  - 아름답고 개성 있으며 인간 중심적인 가로경관을 연출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함

④ 세부계획

- 행정시설의 집결지인 사비로는 행정중심축으로 설정하고, 부여 주 진입도로인 성왕 로와 계백로는 특화가로축과 상징진입축으로 지정하여 노선별 특성부여
- 2차선로인 구드래길과 백강로(현재 4차선도로)는 보행자 중심축으로 쾌적한 보행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이벤트 프로그램 도입
- 보행량이 적고 차량통과 위주인 계백로2와 금성로는 이동시의 보여지는 경관미를 우선 한 정비차원의 계획

⑤ 가로별 연출주제

(표 3-7) 시범사업지구

	사비로	성왕로	계백로	백강로	금성로	구드래길
가로별 키워드	행정중심, 비상, 번영, 대륙백제	왕도, 왕궁터, 첫인상, 문, 성왕	박물관, 공예대국, 석탑, 예술, 솜씨	5일장, 결혼, 축제, 문화제약기, 흥	금성산, 녹지, 연꽃 도시공원, 생태통로, 습	교류, 아스카구드래, 백마강, 왓소축제
가로인접 경관자원	부여군청, 부여군민회관, 등기소, 버스터미널	부소산성, 옛 왕궁터, 진입로	국립부여박물관 불교전래사은비 부여초등학교	5일장터, 예식장	계백공원, 생태통로, 청소년수련원, 금성산	백마강 나루터, 구드래공원

가로 개념	신행정중심	고도, 진입	문화,역사	경제	자연	관광,교류
가로별주제	응비	고흥, 미소	문화	축제	신록	교류
가로별 구상	부여내 중심가로로서 상징성, 역사성 부여 특화계획으로 차별화	왕궁터의 위대함표현 절제된 디자인 도입 상징성, 진입감 부여	충, 효, 역사 요소들이 반영된 시설물 및 가로공원 연출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의 가로연출 다목적 공간 제공	주변 녹지와 연계된 네트워크 구축 습터, 산책로	백마강과 연계된 가로 분위기 연출 문화교류의 거리 연출

고도 부여의 중흥

⑥ 경관체계구상의 기본방향

- 전체적으로 백제의 단아하고 고귀한 이미지구현을 위해 선, 형태, 색채, 질감의 최소화와 통합화로 정갈하고 심플한 디자인 추구
- 가로의 선은 백제의 기상과 생동감있는 표현을 위한 백제 특유의 문양을 형상화한 유려한 곡선과 간결미를 표현한 직선을 사용
- 형태는 백제 건축을 모티브로 치미나 석탑등에서 보인 세밀한 비례감의 심플한 형태 추구
- 색채는 황색, 연보라색 계열로 고귀하고 섬세한 백제문화 표현
- 질감은 백제의 발달된 문화였던 돌문화와 백마강나룻터의 상징을 위한 석재와 목재 위주의 질감 표현

(4) 부여 사비왕궁지역 경관기준작성연구

① 개요

- 위치 : 부여 사비왕궁지구
- 규모 : 특별보존지구 - 981,092m<sup>2</sup> / 역사문화환경지구 - 1,434,770m<sup>2</sup>

② 배경 및 목적

- 고도 부여의 사비왕궁지구 경관을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보존·정비, 형성하기 위해서는지구별 경관가이드라인과 함께 부여고도의 문화재 경관, 생활경관, 조망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경관계획이 필요
- 고도부여가 추구해야할 경관의 미래상 설정
- 다차원적이며, 체계적인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 고도보존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윤곽 제시
- 고도부여의 이상적인 경관형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과 방안 제시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협력방식 제안

③ 수행방향

- 고도보존계획의 수용과 발전
-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일관성있는 계획
- 정주공간으로서 고도를 고려한 경관 계획
- 역사적 자원의 고증을 통하여 역사성 회복을 위한 경관 계획
- 실행력있는 지침 제공
- 공간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지침 제공

④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

- 건축물- 지붕, 벽체, 담장, 울타리
- 옥외광고물- 가로형, 세로형, 옥상광고물, 돌출간판, 지주간판, 창문부착형, 현수막

- 가로시설물- 통행시설물, 조명시설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녹지시설물, 버스정류장, 자전거거치대, 보도블럭, 가로등, 벤치, 휴지통, 불라드
- 녹지- 자연산림, 가로수, 농경지
- 색채- Antique Brown

## 2. 사례지역 검토

### 1) 드레스덴

#### (1) 도시 개요

- 독일 남동쪽에 엘베강을 끼고 형성된 작센주(州)의 주도(州都) 드레스덴(Dresden)은 “백탑의 도시”로 불렸으며, 중세에는 엘베강의 수로를 이용한 상업도시로서 발전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작센의 수도로서 번영하였음. 작센주는 새로이 연방공화국에 편입된 주들 중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가장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독일 통일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곳임

- 옛 동독지역에 속한 드레스덴은 츠빙거궁전 등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고 있음. 한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으나 2009년 6월 엘베계곡에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 ‘문화유산’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재가 취소됨.

드레스덴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를 흐르고 있는 엘베강은 체코와 독일 접경지역의 보헤미아 산악지방에서 발원한 블타바강(독일어 몰다우강)과 체코 프라하 북쪽 30km 지점에서 합류됨.

#### (2)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

- 드레스덴은 독일의 교통, 공업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음.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유적지들을 비롯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됨. 이후 동독의 산업중심지로 재편되어 화학, 기계 등 연구기능과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사회주의 경기침체가 이어져 불품없는 도시로 인식됨. 그러나 통일이후에 드레스덴은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유적들을 본격적으로 복원하고, 유수의 연구소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산학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그림 3-2) 도시전경



(그림 3-3) 기업연구소

- 독일 바로크 문화의 집산지, 17세기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Friedrich August)의 충애를 받은 예술과 문화의 도시. 독일과 폴란드, 체코의 사이에 위치한 작센의 수도 드레스덴(Dresden)의 주요 산업은 IT와 문화산업. 그 중에서도 세기를 거듭해 온 문화유산들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문화 재건이 균형을 이루어 빛어 낸 문화산업은 드레스덴을 독일의 중요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촉매제가 됨.
- 드레스덴은 제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 그 후 문화 유산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임. 전쟁의 상처를 딛고 예전 작센 왕국 주도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한 지역주민들과 주-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까지도 복원작업이 진행중임. 특히 주요 문화 중심부분인 구 시가지는 복원작업과 함께 시작된 문화도시계획 건설을 거의 마무리 짓고 거대한 문화공동체로 다시 발돋움 해가는 과정에 있음.



(그림 3-4) 전후 드레스덴



(그림 3-5) 문화예술

- 드레스덴은 예술 및 음악의 도시로도 유명하며,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0대 미술관에 꼽힐 정도이며, 많은 예술가들이 도시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드레스덴은 역사적인 건물보전과 다양한 관광요소 창출에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도시 드레스덴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과 문화가 골고루 발달한 뮌헨, 베를린, 국제 박람회 등으로 주목 받는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에 가려져 있었음. 더욱이 드레스덴은 서독 지배하의 다른 대도시들과는 달리 동독 시절의 폐쇄되고, 획일화된 문화산업의 영향으로 문화적인 발전이 미비.
- 대부분 독일의 고성들은 현대에 이르러 호텔로 개조되는 등 관광화 시키는데, 알브레차트베르그(Albrechtsberg)의 경우 이 단체가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관람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궁전에는 모던한 콘서트나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나 유네스코(UNESCO)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엘베 계곡(Elbtal)에 속한 알브레차트베르그성은 중세의 분위기에 맞춘 클래식 공연과 콘서트를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받은 공습으로 드레스덴은 2만 5천명의 사망자를 내며 초토화되었으나 통일 이후 재건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동독정부는 드레스덴의 문화유산이나 산업을 발전시키지는 못함.



(그림 3-6) 필니츠 궁



(그림 3-7) 알브레히트부르크 성

-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독일의 기본적인 문화 마인드라고 할 수 있음. 엘베탈의 경우 주변에 쾰퍼오페라(Semper Oper 음악공연 중심의 오페라 하우스), 원래 궁정의 연회장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츠빙어 궁전(Zwinger Schloss 미술관) 등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건물을 개조하여 의미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문화시설들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림.

### (3) 도시 경관정책

- 드레스덴은 두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한 쪽은 구시가지(Altstadt)이며 다른 영역은 신시가지(Neustadt)라고 부른다. 보통의 유서 깊은 도시들은 대부분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의 중심지는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을 거리. 도시의 특징은 건물의 배열 등이 무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역을 시작으로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분위기를 체험하도록 도시 전체를 설계.
- 드레스덴은 문화유적과 문화 시설 등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는 형상. 독일의 시가지들은 이전의 문화유산을 무시하고 다른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유산을 중심으로 두고 뻗어나가기 때문. 엘베 계곡의 주변 역시 엘베 강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 중심부가 어우러져 있으며, 자연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경계없이 잘 조화.
- 드레스덴의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는 엘베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으며, 문화궁전(Kulturpalast), 쾰퍼오페라, 츠빙어 궁전, 프라우엔교회 등의 주요 시설은 구 시가지에 몰려있음. 전쟁 후 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방정부는 30년 전에 받던 구시가의 주변부 땅까지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문화도시 건설에 들어감. 복원작업에는 시민들과 주정부, 지방정부 및 사설문화단체들이 손을 뻗었고, 2006년 하반기 부터 차차 드레스덴은 옛 모습과 잘 조화된 지금의 경관을 갖추게 됨.
- 도시 내부에는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인 츠빙어 궁전, 프라우엔교회 등의 유서깊은 건축물들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 가운데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현대식 건물들도 제자리를 잡고 있음. 드레스덴의

엘베강 지역은 경관이 아름다워 “엘베강의 베네치아”라고 불린다. 우수한 자연경관도 있지만,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중세 문화유산이 상당부분 남아있음.



(그림 3-8) 엘베강 조망산책로



(그림 3-9) 엘베강 교량

-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19세기의 경관적 요소들을 보존하고 있는 유산으로 엘베강변을 따라 약 18km에 이른다. 유산 지역 내에는 필니츠 궁을 비롯해 16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드레스덴 시의 다양한 유산들이 위치. 하지만 2006년 엘베강의 현대적 다리 건설 등을 이유로 4년간 보존에 관한 논의가 지속됐으나, 다리 건설이 강행돼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



(그림 3-10) 엘베강 교량

- 드레스덴시의 주거공간 개선에 있어서는 공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객과 주민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도시중심부에 거주공간을 배려하여 숙박과 주거공간을 제공.
- 드레스덴시에서는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포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후 시 정책에 반영. 날짜마다 테마를 달리하여 지정된 분야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이 제안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신뢰감을 줌. 시에서는 이러한 인포박스 제도를 통하여 시민에게 만남의 공간과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부여.



(그림 3-11) 드레스덴 도시



(그림 3-12) 주민의견수렴 공간 '인포박스'

## 2) 그라츠

### (1) 도시 개요

- 그라츠시는 오스트리아 남동쪽 슈타이어마르크주의 주도이며,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구 25만명의 중세 도시로 반경 50km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인접한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이다. 그라츠의 도시성격은 엄격함이라는 독일 문화권의 특징과, 개방성이라는 발칸 문화권의 특징을 모두 지닌 도시임.
- 이같은 양면성은 그라츠를 이해하는 코드가 될 수 있음. 도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무르강을 경계로 강양안의 공간구조가 상이하고 사회·경제적인 불균형 현상이 빚어진 것은 그라츠가 지닌 양면성의 부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전통과 모더니티, 혹은 개발과 보존처럼 함께하기 힘든 양면적 가치들이 공존하는 것은 이 도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음. 그라츠는 '2003년 유럽연합이 선정한 유럽 문화의 수도(Cultural Capital of Europe 03)'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도시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매력은 잠재적 가치가 되기에 충분.
- 그라츠는 합스부르크 제국 시절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은퇴한 중앙 정부 관료들과 부유층들이 쾌적하고 평화로운 생의 말년을 보내는데 가장 선호했던 일명, '연금자 도시'로 더 사랑받았던 도시였음. 수도 빈 보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알프스 산맥 끝자락 남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원적인 풍경과 질 좋고 풍부한 농산물과 포도주가 즐비한 목가적 도시였기 때문임.
- 그라츠가 유럽 문화 수도라는 새 이름을 내걸고 그라츠2003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도 바로 보수적이고 조용한 고도를 활기차고 박동하는 문화 도시로 재탄생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 도심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는 무어강(Mur River)을 끼고 오른쪽으로 발달해 있는 구도심 구역 곳곳에는 슐로스베르크, 글로켄투름 시계탑, 카톨릭 고성당들, 요하네움 도립도서관, 시청건물, 그라츠 오페라하우스, 극장, 근현대 미술관 및 전시장 등이 위치.

- 수도 빈의 도시 계획을 본 딴 원형 대로(ring boulevard)가 옛 고도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시립 공원과 그라츠 대학 캠퍼스가 그 주변에 펼쳐짐.



(그림 3-13) 그라츠 시청앞 광장



(그림 3-14) 그라츠 가로경관

## (2) 도시의 역사 · 문화적 특성

- 그라츠는 수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통치하에 있었던 중부유럽의 한 주요 도시의 살아있는 전통을 나타내는 도시이다. 이 오래된 도시는 중세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건축 양식과 예술 사조 및 주변 지역의 문화적 영향이 혼합되어 이룬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 그라츠 역사 지구는 독일, 발칸 반도, 지중해가 교차하는 곳이라는 위치 때문에 다양한 예술과 건축 사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여러 지역 출신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을 강력하게 표현하였고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 역사적으로 동쪽으로부터는 서부 유럽으로 진입을 노리던 오토만 튀르크 제국으로 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했고, 20세기 냉전기에는 서유럽 자본주의 세계와 과거 공산주의 세계 사이에서 동서 유럽 간의 중간 통로 겸 양세계 간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 그라츠 도시답사는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기도 한 ‘시청사(Town Hall)’가 위치한 광장이 출발점이다. 시청 광장은 노점상들이 들어서 광장의 표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으며, 광장 주변으로는 그라츠 전역에서 출발한 전차들이 지나다니며, 전차들은 그라츠의 풍경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유겐트 양식까지 중세부터 지금까지 온갖 건축양식을 모아놓은 듯한 도시는 다양한 색채로 나타나며, 특히 16세기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구시가는 오래된 역사도시이미지를 나타냄.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각종 쇼핑 상점과 레스토랑, 바 등이 있으며, 광장은 관광뿐만 아니라 그라츠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 각종 볼거리는 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모여 있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 곳곳의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큰 시계들이다. ‘시계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시계는 그라츠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Landmark)역할.

랜드하우스(Landhaus)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업적으로서 16세기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이곳은 아치형 기둥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 그라츠에는 500~600년된 건물들이 혼한 도시로, 건립 연도는 건물 입구 옆에 써있는 숫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건립된지 800년된 역사의 호텔과 오페라하우스, 대학과 박물관 등이 남아있음.



(그림 3-15) 공공시설물



(그림 3-16) 그라츠 시청 건축물

### (3) 도시 경관현황

- 그라츠 역사 지구를 형성하는 도시 경관은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통합된 탁월한 사례. 각 시대의 특징이 그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물로 그리고 흔히 걸작으로 나타나며, 이 도시의 역사적 발전이 도시 걸모습에 고스란히 전해짐.
- 무르강 동쪽의 그라츠 구도심은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모습을 유지.
  - 술로스베르크 언덕을 중심으로 구릉을 따라 상점가가 줄지어 있고 평지로 내려오면 시청, 성당,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시가 전개. 솔로베르크산 시계탑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구도심의 부감경관은 양호한 상태이며, 도시건물의 지붕은 주황색의 박공형태로서 통일성을 유지하며 고풍스러운 중세도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
- 구도심은 르네상스 양식의 엄격한 형식미가 인상적인 예수회수도원, 바로크 양식의 지붕과 외벽의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잘 어울리는 상가 건물, 탈르네상스 건축양식인 매너리즘양식의 페르디난드 2세 유해안치소 등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룸.
  - V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꺾인 붉은 지붕들이 잇대어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작용.
- 그라츠가 가지고 있는 도시매력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부터 고딕양식까지, 아르누보풍에서 초현대적인 것까지 골고루 느낄 수 있는 것이 도시의 건축적 특징.
  - 중부 유럽의 취향을 대표하는 르네상스풍에서 부터 지중해풍까지 골고루 느낄 수 있는 낭만적인

도시의 이미지는 숨겨진 정원, 전통과 현대, 고전 음악에서부터 현대적인 재즈, 문학과 다채로운 축제 등과 어루러지면서 그 진가를 발휘.

- 솔로르베르그산 정상에서 조망되는 도시의 부감경관은 상당히 양호하며,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구조물 및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의 풍경을 연출.



(그림 3-18) 그라츠 시내 부감경관(俯瞰景觀)

- 그라츠에서 구도심 보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70년대초, 시에서 '친(親)자동차 정책'을 내세워 구도심의 중심 도로이자 보행자도로였던 하렌거리를 왕복 4차선의 자동차도로로 만들고, 시 외곽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정책을 세웠으나 언론과 시민들의 '그라츠 구도심 보존운동'으로 헤렌거리에는 자동차 진출입이 전면 금지.



(그림 3-19) 하렌가세 거리의 상가 개조

-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인공 섬 '무어인셀(Murinsel)'은 무어강에 놓인 길이 46.6m의 보행교 그라츠 출신 미술전문 기획자인 로버트 폰켄호퍼(Punkenhofer)와 뉴욕 출신 건축가 비토아콘치(Vito Acconci)의 예술적 상상력은 이 다리를 통해 강 양편의 층돌을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 강물의 소용돌이를 형상화한 듯한 무어인셀은 무어강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다리도 잇고 있으며, 강수량에 따라 배처럼 뜨고 가라앉도록 설계.



(그림 3-20) 무어인셀(Murins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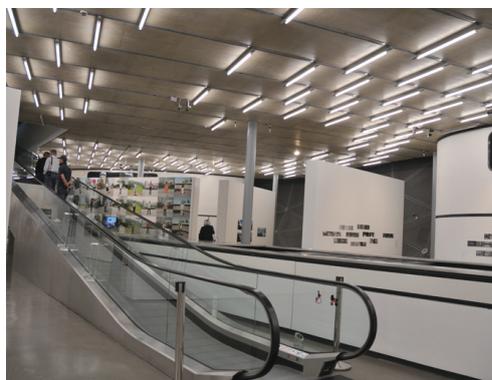


(그림 3-21) 무어인셀(Murinsel) 내부

- 그라츠는 문화를 통한 도시 개조와 계층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무어 강을 적극이용하고, 강양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우선 빈곤층 밀집 지역인 무어 강서쪽지역이 예술로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한 '아트존'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에는 2004년에 건설된 쿤스트하우스가 있음.
- 쿤스트하우스는 영국의 건축가인 피터 쿡(Peter Cook)과 콜린 포니어(Colin Fournier)이 설계하였으며 그라츠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쿤스트하우스 프로젝트를 추진.  
2003년 쿤스트하우스가 완공된 후 색다른 재질과 디자인, 겉으로는 현대의 첨단기술만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바로 앞에 놓인 유리벽에 그대로 투영된 구시가지의 모습으로 그라츠의 역사와 유산을 함께 담아내고 있으며, 천장에 쏘은 23개의 안테나를 통해 그라츠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
- 방치돼 있던 무르강 서쪽 공터에 지어진 전시·공연장 쿤스트하우스는 그라츠시가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잘 보여줌. 그 포스트모던한 건물양식 때문에 초기에는 전통을 파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라츠 시민들은 쿤스트하우스를 '친근한 외계인'이라 부를 정도로 이 건물은 도시의 명소가 됨.



(그림 3-22) 쿤스트하우스



(그림 3-23) 쿤스트하우스 내부

- 그라츠 시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전통과 모더니티라는 각자의 정체성을 가꿔가도록” 계획을 추진 중이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갈등과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3) 교토

#### (1) 도시개요

- 교토는 일본 혼슈(本州) 중서부에 있는 교토부 부청소재지(府廳所在地)로서 긴키[近畿]지방의 중심도시로 794~1868년까지 1,000년 이상 황궁(皇宮)이 있던 일본의 수도였으며, 불교문화와 직물업·요업 등의 전통산업을 선도, 현재에는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 면적은 610.6km<sup>2</sup>, 인구는 1,387,264명
-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폭격을 받지 않아 전통적인 유적·유물이 피해를 입지 않아 교토에는 일본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간직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노[能:일본의 전통연극]·한문학·서화·다도·꽃꽂이·통속소설 등이 성행하여 독특 한 일본적인 문화 형성

#### (2) 경관적 측면

- 고도보존법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과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는 고도의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는 풍토특별보전지구를 1930년에 지정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시가지경관조례에 의거 특별수경보전지구를 참고하여,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제도화
- 경관 중요 건조물의 지정 (단체정비-역사적 경관재생사업)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토다운 정취가 있는 경관을 보전재생하기 위해 경관 중요건조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경관상 중요건조물의 외관수리시 지원

##### ① 건물의 높이

- 건물의 높이는 도시경관과 시가지의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높이제한을 이전 보다 낮추고, 동시에 높이제한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
- 역사적인 시가지, 산기슭 주택지, 공업지역 등으로 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의 최고 제한을 낮춤
- 도시전체의 높이 구성은 상업 업무의 중심지구인 도심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의 높이를 인정하고, 이 도심부에서 세 방향의 산기슭으로 감에 따라 점차로 높이의 최고한도를 낮추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도심간선도로변지구 : 45m - 31m

· 업무, 주거공존지구 : 31m - 15m



(그림 3-24) 건축물 높이 제한

## ② 건물 등의 디자인

- 건물 등의 디자인(형태, 재료, 색채 등)은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규제지구를 이전보다 넓게 지정하고, 동시에 디자인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정함
- 경관지구의 확대 : 미관지구의 확대, 미관 형성지구의 신규지정
- 건조물 수경지구의 확대
- 풍치지구의 확대 : 세계문화유산주변 등으로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 기준의 상세화, 명확화 : 종별 기준에서 지구별 기준으로, 색채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
- 공작물 규제의 강화 : 휴대폰 안테나, 태양광 발전장치  
미관지구, 미관형성지구의 디자인 기준

- 지붕의 색채 : 기와는 원칙적으로 그을린 은색/동판은 소재색 또는 녹청색/동판이외의 금속판 및 기타 지붕재료는 원칙적으로 광택이 없는 짙은 회색, 광택이 없는 검정
- 외벽의 소재 : 주요한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광택이 없는 것으로 할 것(유리 및 자연 소재는 제외)
- 발코니 :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벽에서 튀어나오지 않을 것, 단 낮은 건축물 또는 공공의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음
- 외벽의 색채 : 주요한 외벽에는 다음의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착색을 하지 않은 자연소재는 제외로 한다. 적색계열의 색상으로 채도가 6을 넘는 것, 황적색 계열의 색상으로 채도가 6을 넘는 것
- 문, 담, 울타리 : 자주식 주차장이나 주문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 담, 혹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거리의 연속성을 배려

## (3) 도시 재생적 측면

역사지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통해 도시를 창조

-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Walking around town” 활용. 이 슬로건은 문유 회랑(文遊回廊)을 만들어 도시민이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코토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문유회랑(文遊回廊)이란

“쿄토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 등을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는 “문화 복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노력은 확대되어 교토시를 둘러싼 산과 호수를 연계한 친환경 관광으로 연결

쿄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 개수조성모델사업

- 교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는 교토시와 국가의 지원, 시민으로 부터의 기부에 의해 창설된 교마찌야를 보전, 재생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교마찌야의 개수(改修)를 목적으로 조성



(그림 3-25) 교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 개수조성모델

#### (4) 시사점

-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만들기, 거리의 배리어프리화, 자연과 역사환경을 살린 특색있는 공원의 정비, 조화로운 거리의 재생 등을 추진
- 역사적 장소와 유물 등을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는 문유회랑(文遊回廊)을 만들어 도시 내외부에 중요한 문화적자산과 건축물, 사원 및 역사를 삶의 일부로 느끼도록 공간을 연출

#### 4) 나라마찌

##### (1) 나라 (일본 최초 고대국가 형성지역)

- 나라시는 인구 36만 명의 도시로 서기 710년 평성경이라는 도읍이 조성되어 74년간 국도(國都)로 번영을 누렸던 고도(古都)

##### (2) 경관적 측면

- 나라마치는 원흥사의 옛 경내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남북방향으로 550미터, 동서로 약 330미터에 이르며 많은 건물들이 거듭되는 화재로 소실되고 그 빈터에 민가가 세워져 지금의 나라마치가 됨

- 나라마치는 원흥사의 옛 경내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남북방향으로 550미터, 동서로 약 330미터에 이른다. 많은 건물들이 거듭되는 화재로 소실되고, 그 빈터에 민가가 세워져 지금의 나라마치가 됨
- 에도시대에 들어서 원흥사 절경 내에 여러 산업(붓, 떡, 모기장, 침구, 칼, 술 간장 등)이 발달하여 상업도시로서 거리가 형성. 현재 나라마치에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의 상가 모습이 남아 있으며 1990년 4월 나라마치도시경관형성지구로 지정
- 전통역사거리인 나라마치의 경관정책은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제와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모습으로 보존·개발한 사례로 알려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닌 지역주민들 자체에서 조성한 ‘나라지역사회연구회’에서 발의하여 추진된 정책에 의한 결과
-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경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마치 보존을 위한 조례 및 관련 정책 지원을 추진했으며 지역민들의 발의에 의해 추진되었으므로 정책의 실행 또한 어렵지 않게 진행

### (3) 도시재생적 측면

#### 나라지역사회연구회

- 나라지역사회연구회는 1979년, 뜻 있는 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민간 단체로서 자체적인 마을 관련 활동과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다가 나라마치 가꾸기, 도로포장 및 정비, 지역 정체성 만들기, 도시 가꾸기 관련 사업들을 시 행정당국에 제안  
이러한 제안을 1982년 행정당국에서 수용하여 현재의 나라마치를 가꾸기 시작함
- 1982년 미관정비사업을 시작으로 1988년 나라마치 보존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 제정 및 거리보존사업에 착수 하였으며 1990년에는 나라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였고, 1992년 나라마치 변화구상을 발표. 이후 1993년에는 ‘경관형성지구(약48ha)’를 지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나라마치 진흥재단 설립 등의 사업을 전개

#### 나라마치진흥재단

- 나라마치에서는 단순히 건축물 규제나 보존 등의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아닌 소프트웨어로서 문화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보존, 복원 및 규제는 행정당국에서 시행.

### (4) 시사점

- 나라 시에서 고도보존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인 것은 지역 주민에 의해 창조되는 ‘문화’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기관의 관계로 이는 향후 공주시 고도육성 사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IV. 고도경관 형성계획

### 1. 계획의 기본방향

#### 1) 기본방향

-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고도경관이미지 구축
  - 사람과 자연환경과 역사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이미지 지향
  -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
- 역사문화자원 보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발견, 교류, 창조의 도시아이덴티티 지향
  - 발견은 백제 문화의 재조명, 교류는 백제문화의 국제성, 창조는 백제문화의 고유 독창성을 의미
  - 고도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신선하고, 접근하기 쉽고, 함께 나누는 문화컨텐츠 키워드로 함께 공유
-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결합된 도시이미지 지향
  -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고도의 매력을 살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도시

#### 2) 키워드 도출

- 역사문화적 요소, 정신적 요소, 자연적 요소, 미래지향적 요소를 분석하여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핵심 키워드에 의한 공주고도의 아이덴티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용사 언어 확정

(표 4-1) 공주고도 아이덴티티 형용사

구분	디자인 요소			Key word	종합
역사 문화적 요소	백제문화	다양한 역사문화	금강문화	다양성 역사적 정체성	
정신적요소	선비정신	청명정신	조화정신	청명 중용 너그러움	
자연적요소	공주의 산,들,강	하천	공주의 상징 화,목,조	자연의 곡선 수평선	
미래적요소	백제문화 발견, 교류, 창조	창조 도시	역사와 유니버설 친환경 기술	창조적 역사문화	

### 3) 경관 미래상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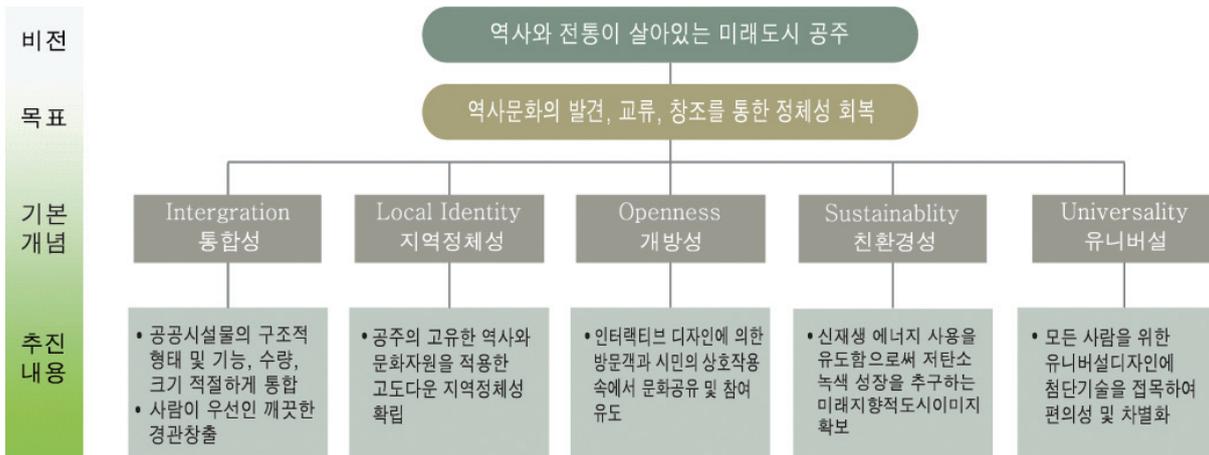
#### (1) 선행연구 검토

- 공주고도보존계획에서는 공주 고도의 미래상을 “자랑스러운 역사문화환경과 현대적 도시고도공간이 어우러진 도시형 고도”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3가지 목표를 설정함
  - 첫째, 고도 골격 구성요소의 유기적 연계
  - 둘째, 구도심의 통합적 역사문화경관 조성,
  - 셋째, 구도심 활력거점 조성으로 도심기능 유지·강화 등
- 추진전략으로는
  - 첫째, 역사적 진정성에 기반한 고도골격 회복
  - 둘째, 역사문화경관 관리와 조망경관 관리
  - 셋째, 네트워크 회복측면의 역사문화축 회복과 생태축 회복
  - 넷째, 현대적 도시기능을 기초로 한 창조적 역사문화환경 조성 및 도심재생

#### (2) 미래상

- 공주고도를 “역사문화적인 미래지향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백제역사문화의 발견, 교류, 창조에 의한 정체성 회복을 통해서 가능함.
  -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자 함
- 첫째, 통합성, 둘째, 지역정체성, 셋째, 개방성, 넷째, 친환경성, 다섯째, 유니버설

(표 4-2) 공주 고도 미래상



---

## 2. 경관축 및 조망경관 기본구상

### 1) 경관축 기본구상

- 『고도보존계획』지역내 경관축 개선을 통해 고도 내부에 새로운 녹색도시인프라를 형성하며, 조망확보를 위한 경관축 구축
- 문화자원간 연계, 도심녹화,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선적 경관 개선을 도모하여 고도골격의 경관미 회복

#### (1) 경관축 설정

##### ① 설정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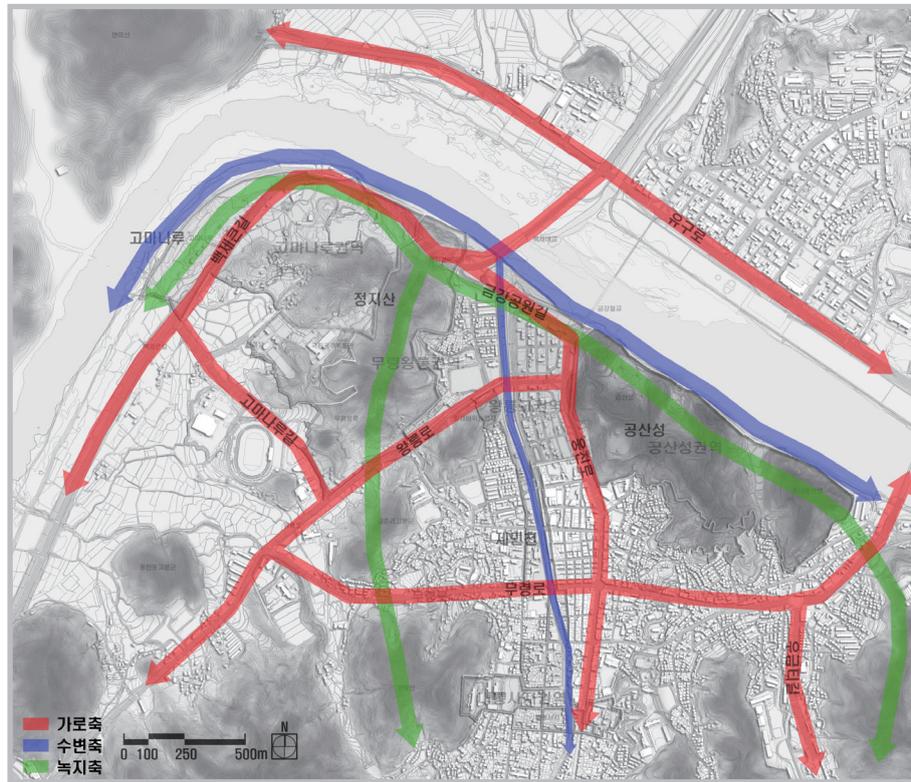
- 경관축의 설정은 일차적으로 “시각적인 풍경”과 이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을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 관련된 동질한 경관이 선적인 형태로 연속되어 있는 경관인 가로, 하천, 녹지대 등을 대상으로 함
- 경관축은 고도의 주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선적인 주요 경관자원을 특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가로축, 수변축, 녹지축을 대상으로 함

##### ② 고려사항

- 가로축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보차혼용공간도 포함하여 설정
- 수변축은 금강으로 연결되어지는 경관축과 제민천상류에서 금강으로 합류되는 지역까지의 경관축 등의 주변공간을 포함하여 설정
- 녹지축은 자연녹지와 인공녹지 등을 포함하여 시각적 연장을 위칙으로 설정

##### ③ 경관축 설정

- 가로축은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환경 등 역사문화자연자원간의 연계선상에 있는 차도 및 인도 등의 통행공간으로 응진로(금강철교~대통사지), 왕릉로(공산성~무령왕릉), 무령로(송장배미~옥녀봉성), 봉황로(황새바위순교지~대통사지), 백제큰길(정지산백제유적~고마나루), 금강공원길(공산성~정지산백제유적), 느티나무길(금강공원길~금성배수장), 제민천길(금성배수장~대통사지)
- 수변축은 공산성에서 고마나루 사이의 금강본류지역(옥녀봉성~공산성~정지산백제유적~고마나루), 제민천교에서 금강본류 사이의 제민천지역(제민천교~중동교~대통교~반죽교~봉산교~교촌교~산성2교~산성1교~금성교~응진교~왕릉교~금성교~금강)
- 녹지축은 크게 옥녀봉성~공산성~정지산백제유적~고마나루간 금강을 접하는 자연녹지축과 정지산백제유적~무령왕릉간 정지산능선의 자연녹지축



(그림 4-1) 경관축

## 2) 조망거점경관

### (1) 조망거점 설정

#### ① 설정 기본방향

- 조망경관은 주요 경관자원이 조망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변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경관요소를 상징화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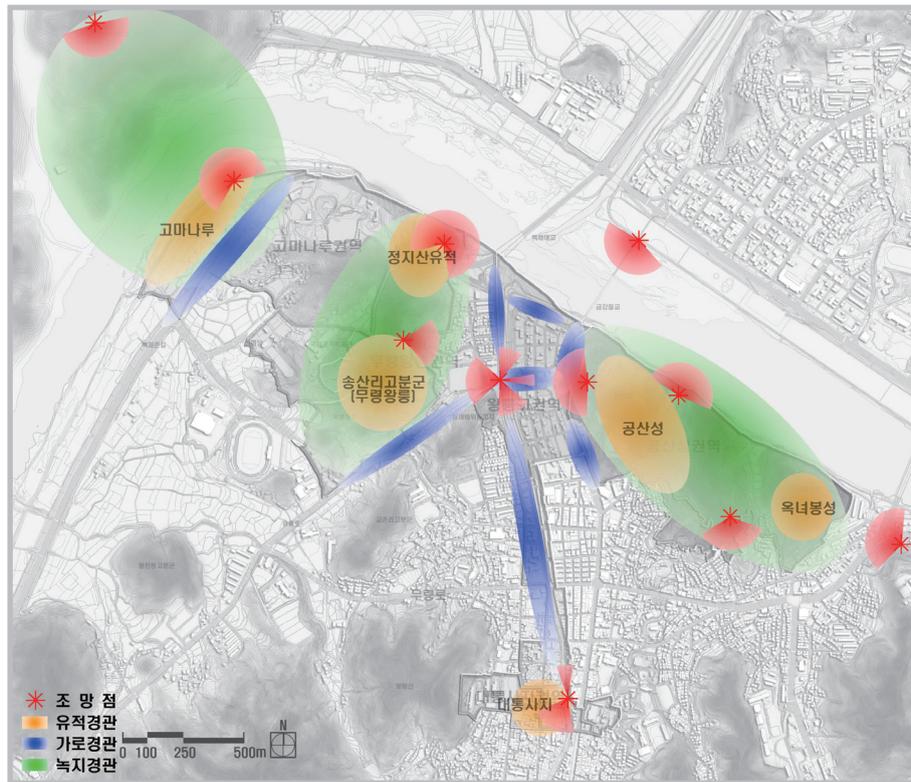
#### ② 고려사항

- 조망대상은 시가지경관, 가로경관, 유적경관, 산림 및 녹지경관, 수변경관 등을 포함하되 도시 이미지 부각 측면의 건축환경, 조형물, 교각 등도 조망대상에 포함하여 설정
- 현재 실체가 없지만 고도회복에 따라 향후 경관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조망대상을 선정

#### ③ 조망거점경관 설정

- 가로경관에서의 조망대상은 용진로(금강철교~대통사지), 왕릉로(공산성~무령왕릉), 무령로(송장배미~옥녀봉성), 봉황로(황새바위순교지~대통사지), 백제큰길(정지산백제유적~고마나루), 금강공원길(공산성~정지산백제유적), 느티나무길(금강공원길~금성배수장), 제민천길(금성배수장~대통사지)

- 유적경관에서의 조망대상은 공산성(왕궁추정지), 옥녀봉성,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정지산백제유적, 고마나루, 대통사지, 감영터(선화당 및 포정사 문루 위치복원시), 황새바위 순교지
- 산림 및 녹지경관에서의 조망대상은 정지산일원, 공산성 및 옥녀봉성일원



(그림 4-2) 조망거점

(표 4-3) 경관관리방향 및 경관가이드라인

관리 기준	구분 (경관요소)	경관유형	경관요소	관리방향	경관가이드 라인요소
경관 권역	공산성, 문화재 옥녀봉성, 공산성 산자락	산림경관	·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접근로 개선, 등산로, 안내판 정비 · 고도지구해제지역의 건축물 높이 관리	· 왕도로서 상징적 대표성 제고 · 왕궁추정지 및 왕성이미지 부각 · 주요조망점-공산성, 옥녀봉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 · 역사적 경관의 연속성 높임 · 설치공간에 맞는 형태와 재질로 장소의 특성 부각
		유적지경관	· 고도핵심 정체성 부각 · 인공구조물 이전 및 정비 · 실체없는 유적경관자원 활용		
	정지산유적, 무령왕릉, 고마나루 연미산	유적지경관	· 유적지 주변 야간경관계획	· 신성성 부각을 위한 역사경관 자원 회복 · 차별한 보행 환경 조성 · 주요조망점-정지산, 고마나루, 연미산	· 보행로의 선형은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배려
		산림경관	· 연미산 공굴 신성성부각 · 정지산 유적, 무령왕릉, 연미산 · 금강에서 접근성 개선, 조망권 확보		

관리 기준	구분 (경관요소)	경관유형	경관요소	관리방향	경관가이드 라인요소
경관 권역	감영터,대통사지 공주의료원, 행정기관, 학교 공공시설물	시가지경관	· 문화재와 시가지 건축물 경관 조화 및 건축물 외관 개선 · 건축물 높이, 외관관리	· 구도심의 구심적 기능회복 · 통치중심지의 경관품격 제고	· 건물의 높이는 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최고 제한 낮춤 · 건물의 디자인 기준은 지역특성에 맞춰 정함
		가로경관	· 보행로 및 테마가로변옥외 광고물 특화 · 가로변 조경수 및 가로시설물 관리	· 주요조망점-대통사지, 감영터, 봉황로	
	쌍신들, 정방들	농경지경관	· 고도에 전원형 오픈스페이스 제공 · 우량농경지 경관 확보 · 잠정적 농경지 경관유지	· 시각적 공간 녹화 · 오픈스페이스 확보	
경관 축	금강 역사문화 생태축 금강 및 금강변 시민공원	수변경관	· 뱃길 고도분위기 유지를 위한 자연형 하천경관 유지 · 금강의 인공시설물은 전통 이미지와 조화	· 금강변의 문화적 경관형성요소관리 · 주요조망점-금강, 금강철교	· 금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
		시가지경관	· 유적지와 유적지 사이 녹지 및 공원조성		
	제민천 고도 골격축 제민천, 천변가로 천변시설물	수변경관	· 제민천 구간별 경관 차별화 · 천변시설물 정비	· 주요 경관권역의 매개축으로서 경관적 매력도 향상 · 조망가로 형성	· 제민천과 조화 되는 자연재료 사용 · 통합적 시설물 ·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가로길 조성
		가로경관	· 제민천, 금강에 대한 시 각회랑 확보		
	상징가로축 연문광장~왕릉교	가로경관	· 가로시설물, 가로수, 옥외광고물, 건축물 · 백제, 조선, 근대 등 서 사적 고도체험 가로체계망 조성 · 가로변 건축물 관리-건물외관 개선, 높이관리	· 특화가로 조성 및 가로변 경관 관리 · 진정성에 기반한 가로조성 · 주요조망점-왕릉교, 왕릉로	· 횡단보도 진입 부와 차도경계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고도 산세축 월성산~주미산~망월산, 봉화산~일락산	산림경관	· 주변산 활용도 제고를위한 산행코스, 시설물 정비 · 역사문화 유산 접근로 개선 · 도심 역사유적 보행로의 차별화, 산세길 특화	· 고도골격축지축 보전 · 고도 외곽건기를 위한 산책로 조성 · 주요조망점-월성산, 주미산	·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벤치설치 · 주변시설물과 연계성있는 디자인	
경관 거점	제민천 연계거점 왕릉교	수변경관	· 교각정비를 통한 경관 계획	· 상징교각 건설 · 주요조망점-제민천	· 역사문화가 접목된 교량 디자인
	제민천 활력거점 전통상점	수변경관	· 제민천 주변 상업시설 정비	· 기능입지를 통한 활력거점	· 지역역사문화적 요소를 적용한 건물 디자인형태 (지붕, 외벽소재)
	제민천 중심거점 대통교	수변경관	· 천변 시설물 정비, 교각 개선	· 역사적 중심성 회복을 위한 교각 복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형태
	금강 수변 거점 금강철교	수변경관	· 주변 역사문화유산과 연계 수변 접근성 향상 · 주요교각 및 하천내부 공간에 조망점 조성	· 조망점, 휴게공간 조성	· 금강과 어울리는 공간조성
	근대 건축물 거점 구 읍사무소, 공제의원, 중동성당 등	시가지경관	· 근대건축물의 유지보존 계획, 테마가로조성	· 기능회복 및 보행네트워크 결절점	

I. 계획의 개요

II. 고도사업지구 현황조사

III. 고도육성 제도 검토

IV. 고도경관 형성계획

V. 경관형성설계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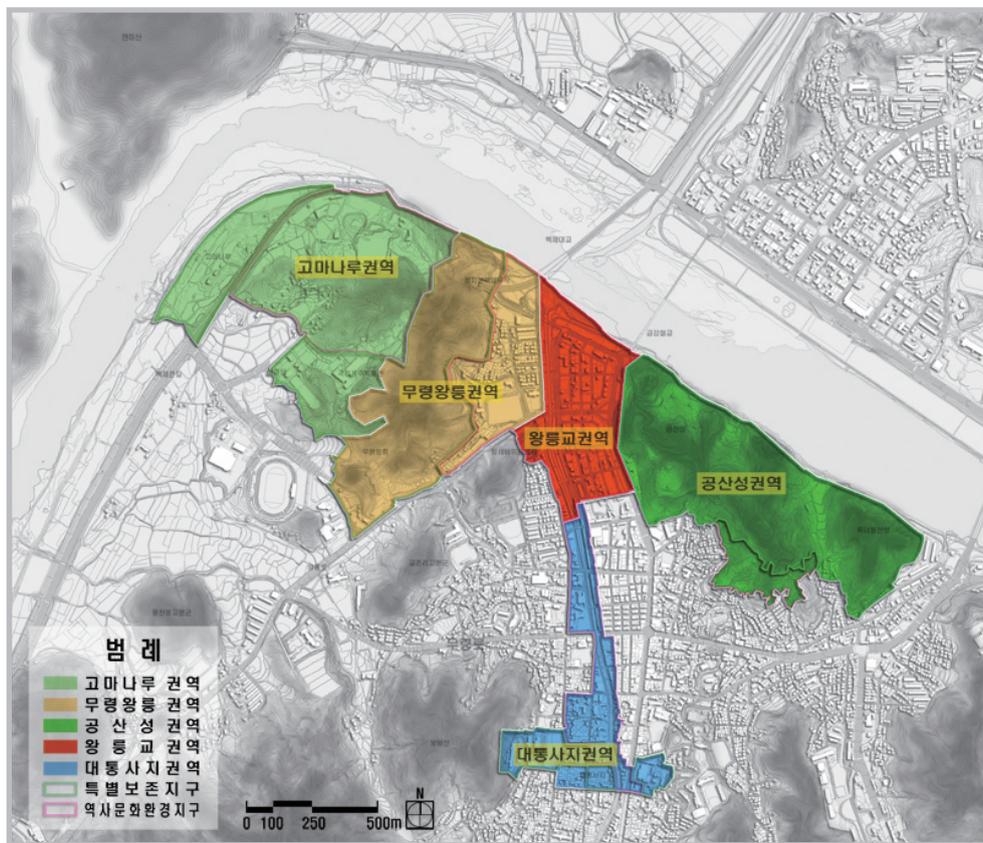
VI. 실행방안

### 3. 경관권역 설정 및 경관개선 기본구상

#### 1) 권역설정

##### (1) 경관권역 형성방향

- 경관권역은 『공주 고도보존계획』을 참고하여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등 권역별 구분체계를 기반으로 고마나루권역, 무령왕릉권역, 공산성-옥녀봉성권역, 왕릉교권역, 대통사지권역 등 5개의 경관권역으로 설정



(그림 4-3) 경관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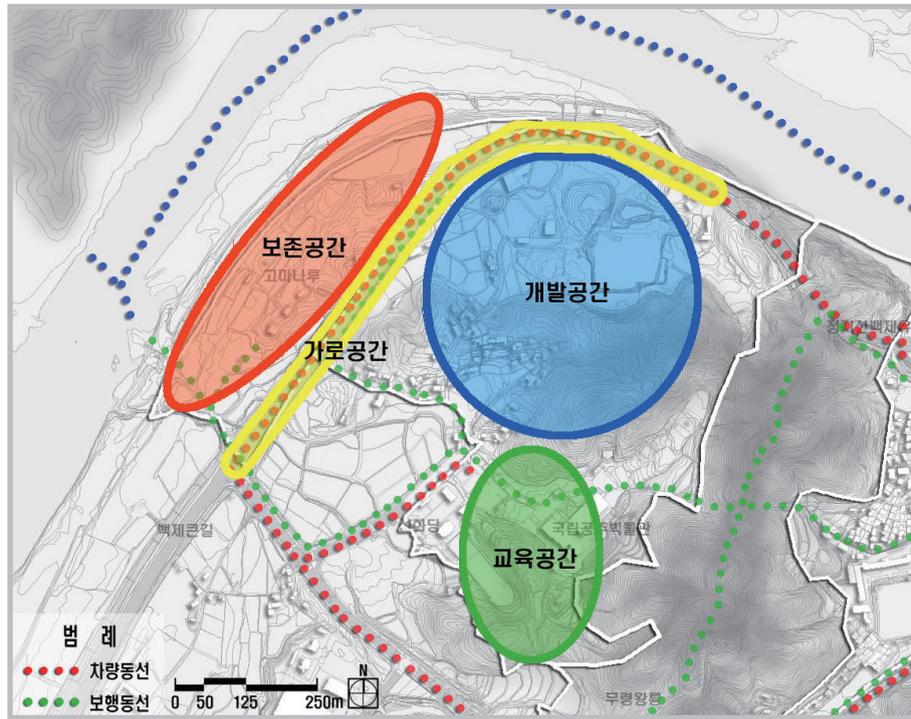
(표 4-4) 주요경관권역

권역구분	개 념	주요경관요소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고마나루 권역	· 고마나루와 금강을 매개로 한 역사적활동과 곶토템 신앙을 잇는 정신적 근거지이며, 교통의 관문인 공간	· 고마나루, 곰나루국 민관광단지, 국립공주박물관, 한옥숙박촌, 고마아트센터, 선화당	·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관리지역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무령왕릉 권역	· 웅진백제시대 왕릉군인 송산리고분군 및 무령왕릉과 정지산백제유적 등 제의가 행하여진 공간	· 송산리고분군 및 무령왕릉, 정지산백제유적 등	· 문화재보호구역, 보존녹지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공산성· 옥녀봉성 권역	· 공산성과 왕궁추정지 등 왕도의 중심 공간	· 공산성, 옥녀봉성 등	·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왕릉교 권역	· 공산성권역, 무령왕릉권역, 고마나루 권역을 이어주는 매개공간	· 제민천, 교량(금성교, 왕릉교, 웅진교) 등	·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사문화환경지구
대통사지 권역	· 대통사지와 감영터 등 통치와 문화,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	· 대통사지, 공주감영터, 제민천, 교량(금성교, 산성1교, 산성2교, 교촌교, 봉산교, 반죽교, 대통교, 중동교, 제민천교) 등	· 문화재보호구역,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보호지구, 상업지역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 2) 경관개선 기본구상

### (1) 고마나루 권역

- 공주 옛이름(웅진)의 기원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이며, 그 중심 개념인 곰이 한국의 민족적정서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임
- 백제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는 1천 수백년간 국가적 제사터이며, 수로와 육로 교통으로 이어지는 공주의 교통 관문으로써의 기능을 되찾아야 할 공간임
- 고마나루의 상징적 역사성과 상충되는 백제큰길의 개설되었고, 고마아트센터, 공방촌 등 각종 문화시설물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지역과의 상충성 최소화 방안 모색



(그림 4-4) 고마나루 권역

(표 4-5) 고마나루 권역

공간구분	대상지역	주요개선내용
보존공간	고마나루솔숲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웅진단정비, 웅진사정비, 용왕사당복원, 생태원조성, 신림확대조성 등</li> <li>- 나루터복원, 데크설치, 탐방로설치</li> <li>- 솔숲 및 갈대숲조성 등</li> <li>- 종합안내판, 안내판, 방향표지판</li> <li>- 기타 편의시설 도입</li> </ul>
가로공간	백제큰길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변 전통수종 식재 및 정리</li> <li>-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패턴디자인</li> <li>- 가로등 및 가드레일 개선</li> </ul>
개발공간	곰나루국민관광단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li> <li>- 충남연정국악원</li> <li>- 곰나루아외수영장</li> <li>- 주차장 및 야외공원</li> <li>-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li> <li>-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패턴디자인</li> <li>- 가로등 및 가드레일 개선</li> </ul>
교육공간	국립공주박물관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주박물관 및 야외공원</li> <li>- 선화당 및 포정사, 국궁장</li> <li>- 종합안내판 및 방향표지판</li> <li>-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패턴디자인</li> <li>- 가로등 및 가드레일 개선</li> </ul>

## ① 고마나루의 역사문화 자연녹지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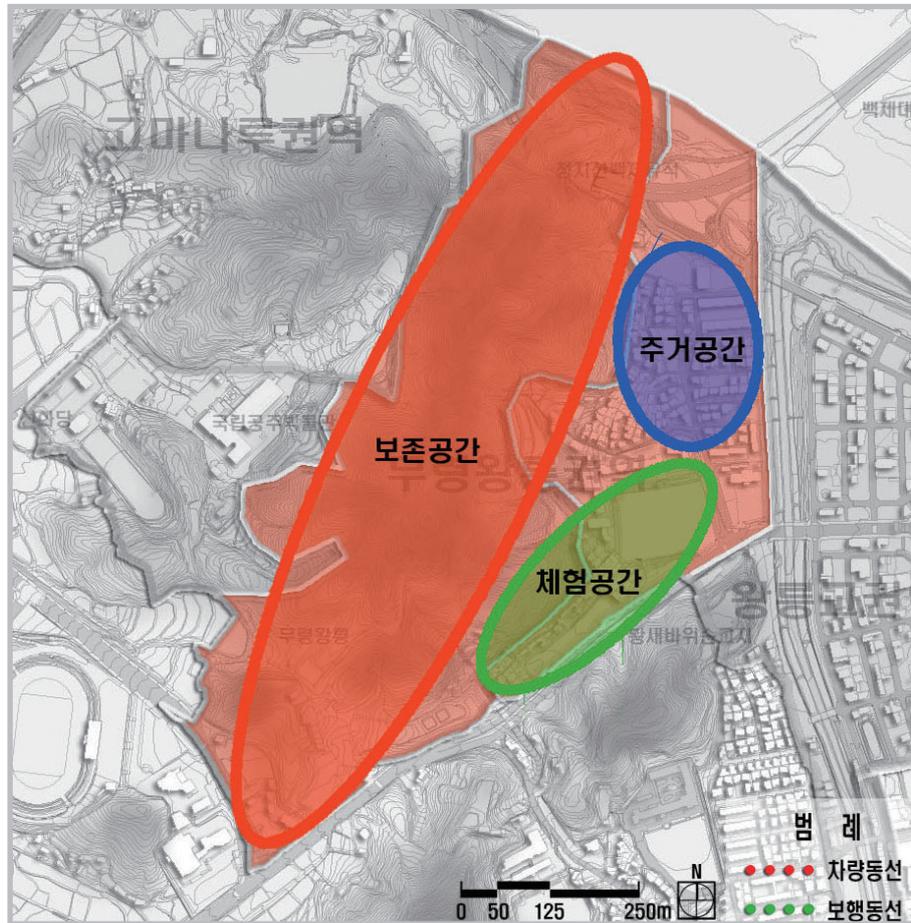
- 고마나루의 천혜자연경관인 소나무숲과 모래사장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임을 감안 최소한의 시설인 전망데크,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천연 자연녹지공간으로 보존
- 고마나루의 전설이 깃든 고마나루터 발굴 및 복원, 웅진단 및 웅진사정비, 용왕사당복원과 신림의 확대조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방객들의 역사문화교육공간이자 휴게공간으로 활용
- 고마나루는 백제큰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 역사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고마나루 주변 및 백제큰길 지역에는 전통수종의 수목을 식재 자연녹지축을 형성하여 차폐
- 고마나루 주변의 왕릉로 및 백제큰길 등 간선도로 주변의 가로수 및 가로등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이질적인 상충성을 최소화
- 또한 복원된 나루터를 이용하여 연미산지역의 곰굴지역, 연미산 정상의 천제단으로 접근하고 전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물 및 공간을 조성하고 하고, 금강 상류의 제민천, 공산성 등 금강변 유적으로 접근을 위한 수상교통을 개발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 ② 역사문화교육 및 축제공간 개선

- 자연자원(연미산, 금강, 고마나루)과 역사문화자원(정지산백제유적, 무령왕릉, 공산성)을 연계하는 교통의 결절점으로 활용
- 조선시대 충청도 관찰사가 공무집행하던 선화당과 주변의 포정사, 국궁장 등과 더불어 공주의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인 국립공주박물관을 교육 및 홍보의 집결장소로 활용
- 고티아국민관광단지, 한옥숙박촌, 고마아트센터(조성중) 등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마련하고 주변을 조성하여 백제큰길을 통해 공주로 진입하는 관광객과 무령왕릉, 공산성, 대통사지지역 등에서 접근하는 관광객들의 집결과 분산이 이루어지는 관광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2) 무령왕릉 권역

- 웅진 백제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송산리고분군과 백제 제25대 무령왕릉,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제의공간이 있는 정지산 백제유적
- 정지산백제유적과 무령왕릉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이고, 고도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시화하여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림 4-5) 무령왕릉 권역

(표 4-6) 무령왕릉 권역

공간구분	대상지역	주요개선내용
보존공간	송산리고분군 및 무령왕릉 일원 정지산백제유적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지산백제유적지 노출정비</li> <li>- 안무정 건립</li> <li>- 정지산터널 입구 개선</li> <li>- 종합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개선</li> <li>- 휴식공간 및 조망테크 설치</li> <li>- 정지산 주변지역 탐방로 및 수목 정리</li> </ul>
주거공간	정지산 동측 정지방길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주택의 벽체, 지붕 등 외부 디자인 개선</li> <li>- 단계별 한옥형 저밀 주거단지 조성</li> <li>- 자전거도로 및 탐방로개선</li> <li>- 탐방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li> </ul>
체험공간	정지산 남동측 왕릉로, 송산리길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주거 전통가옥형태 리모델링 및재건축</li> <li>- 보행로 포장 및 패턴디자인</li> <li>- 전신주 지중화작업</li> <li>- 기타 편의시설 도입</li> <li>- 녹지공간 조성</li> <li>- 가로등 및 시설물 개선</li> <li>- 가로변 화양목 등 전통수종 식재</li> </ul>

## ① 정지산 백제유적 정비를 통한 인지성 및 연계성 확보

- 정지산능선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정지산백제유적을 금강 건너편 북측의 신시가지 및 남측의 구시가지에서 대상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적을 정비하고 안내판 설치
- 유적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외래수종 및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백제시대 전통수종으로 갱신하여 주변유적 조망확보는 물론 유적지의 역사경관을 개선
- 조망시설물의 설치는 「공산지」 등의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안무정을 복원하고 주변로 전망 및 교육공간 마련
- 특히, 백제대교~백제큰길이 관통하는 정지산터널로 인한 유적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차폐식재 및 담쟁이덩굴 등의 자연식물로 터널 상부 구조물을 시각적으로 차폐하여 이질감 개선
- 정지산백제유적, 송산리고분과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도보로 연계가 가능하므로, 정지산 능선의 탐방로를 정비하여 연계활용토록 하며, 휴게공간 및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탐방객의 편의 제공
- 또한 탐방로를 중심으로 정지산, 무령왕릉, 고마나루에 대한 방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친화적 소재로 고도 이미지에 적합한 탐방안내도 및 방향표지판 설치

## ② 전통가옥형 저밀 주거단지 조성

- 정지산과 제민천 사이에 있는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은 시간적지역제를 적용하여 향후 재건축 시점에 저층의 전통가옥형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정지산~제민천~공산성 사이의 주거지 조망경관을 개선한다.
- 정지산 능선 동쪽 자락에 형성되어 있는 노후된 단독주택지역은 전통가옥형 저밀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정지산의 자연경관 및 이미지와 어울리는 조망경관과 제민천의 배경경관으로 활용토록 한다.
-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탐방을 위한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식재 및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탐방객의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옛 정취를 살릴 수 있는 기와집과 초가집의 특징을 살린 배치와 형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주민지원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주택개선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③ 친환경 탐방로 조성을 통한 역사문화자원과의 접근성 제고

- 공산성, 제민천, 황새바위순교지 등 구시가지 인근지역에서 정지산백제유적, 송산리 고분군 및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고마나루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하고 안내 및 방향표지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접근의 편의를 제공
- 대상지로의 접근로는 공주중학교 서측 뒷부분에서 시작되는 완만한 경사로와 농경작지를 개선하여 한옥형 저밀 주거단지와 어울리는 경관 형성
- 교차지역의 적지에 잡목을 제거하고 전망데크와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공산성 및 제민천 등의 시가지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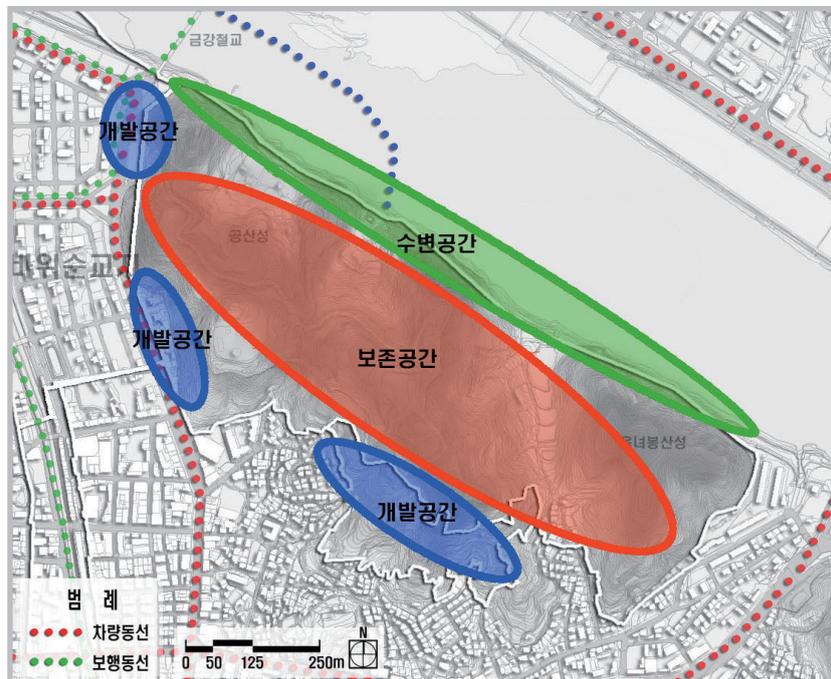
## ④ 전통체험가로 조성을 통한 노후 주거공간 활성화

- 현재 추진 중인 무령왕릉 앞 광장 환경개선 사업지 주변의 노후된 주거를 전통가옥형태로 리모델링하고

- 테마설정을 통한 특화가로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공주지역 특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
- 또한 본 대상지는 왕릉로와 정지산 능선 사이의 저지대에 위치하므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차량의 분진 및 소음을 방지하여 탐방객의 탐방 및 체험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 제거

### (3) 공산성-옥녀봉성 권역

- 백제 475년(문주왕 1)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여 538년(성왕 16) 64년간 백제의 왕도로서 상징성이 가장 큰 공간임
- 공주 고도의 대표적인 진입경관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금강의 수변공간과 지형지세가 잘 어우러지는 경관상 매우 뛰어난 공간임



(그림 4-6) 공산성-옥녀봉성 권역

(표 4-7) 공산성-옥녀봉성 권역

공간구분	대상지역	주요개선내용
보존공간	공산성 및 옥녀봉성 일원	- 공산성, 옥녀봉성내 문화유적 정비 - 전통수종 식재 및 주변정리
수변공간	금강인접 공산성 및 옥녀봉성 일원	- 금강변 수목정리 및 탐방데크 설치 - 조망데크 설치 - 나루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
개발공간	공산성 및 옥녀봉성 남서측 일원	- 공산성 남벽지역 기존주거 한옥형태 리모델링 및 재건축 - 잔남루지역 진입로 개선 및 공간확보 - 공산성 서벽하단지역 전통수종 식재를 통한 휴게 및 녹지공간 조성 - 보행로 포장 및 패턴디자인 - 전신주 지중화작업 - 가로등 및 보행로 패턴디자인

## ① 공산성 및 옥녀봉성의 고도 중심역할 강화

- 공산성 및 옥녀봉성 등의 인접한 자연 및 수변경관을 개선하여 대상권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확보
- 공산성지역은 성곽에 자생하고 있는 잡목을 제거하여 성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며, 장래수요를 고려하여 장기계획으로 구 터미널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
- 공산성과 옥녀봉성을 연계하기 위해 중간지역에 자연체험시설과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주차장 및 휴게편의시설을 설치

## ② 다양한 공산성 접근로 개설

- 교통동선은 보행동선, 차량동선, 보차혼용동선 등으로 구분하고, 보행동선은 장기적으로 주 진입동선을 진남루로 하며, 배다리를 설치하여 금강둔치공원에서 접근이 편리하도록 함
- 차량동선은 기존의 서쪽 금서루의 주차장지역을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남쪽 진남루 진입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대상지로의 접근성 개선
- 보차혼용동선은 차량운행의 경우 화재, 공무, 사고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운행하며, 보행동선은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동선으로 계획
- 공북루지역의 산성나루터를 복원하고 고마나루, 제민천, 연미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수상관광 루트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나루터에서 공북루로 진입하는 접근로를 개선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흥미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금서루, 진남루, 동문루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탐방로 및 편의공간을 마련

## ③ 공산성 주변 노후지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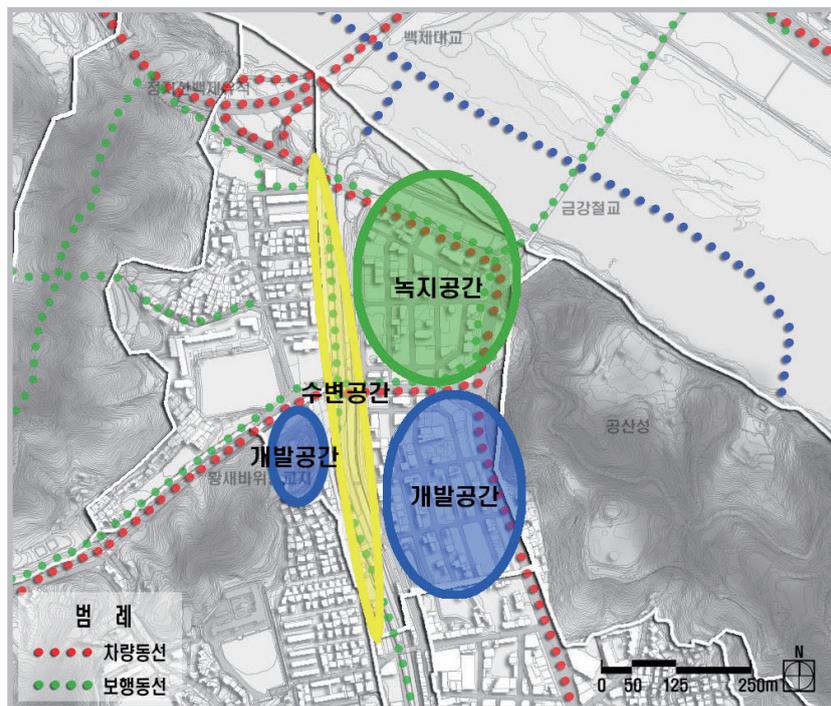
- 공산성 서측성벽 하단부, 웅진로변의 사유지 및 1~2층 규모의 상가건축물을 매입, 철거하고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공산성의 경관 개선
- 공산성 남측 진남루 전면의 주거지역은 단계적으로 건물외관인 지붕의 형태, 색상, 높이 등을 개선
- 웅진로에서 진남루로 진입하는 공간은 공산성과의 조화로운 경관유도 및 조망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및 안내 디자인을 개선하여 공산성의 주된 옛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공산성과 옥녀봉성 사이의 중간적지에 안내 및 휴게편의공간을 마련하고, 두 유적간의 탐방이 원활하도록 완만한 지형을 이용한 탐방로를 개설하고 방향표지판 설치

## ④ 금강철교의 기능전환을 통한 주변환경 개선

- 근대이후 공주 금강이남지역으로의 주된 접근로인 금강철교는 교통뿐만 아니라 진입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시설이나, 차량 및 보행의 기능을 하고 있어 고도의 옛 풍취를 느끼는 탐방객에게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 따라서, 단계적으로 주말 또는 공휴일 등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보행자전용도로로 활용하다가 향후 이용 결과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로 기능을 전환
- 공산성과 정지산백제유적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한 공산성 동북측성벽과 금강철교간에 조성된 휴게공원 및 금강공원길과 금강변사이의 수변공간을 개선하여 녹지축을 형성
- 또한 금강공원길에 설치된 인도겸 전망데크, 교통차단기 등의 탐방저해 시설물 개선을 통한 주변탐방환경을 개선

#### (4) 왕릉교 권역

- 과거 금강과 공주 도심의 중간지역으로 미나리짚이 있었던 습지공간이며, 현재 금강공원길(공산성~정지산백제유적), 왕릉로(공산성~송산리고분군 및 무령왕릉), 웅진로(공산성~대통사지) 등 역사문화자원으로 접근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공간임
- 땅속의 옛모습 위로 재탄생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주요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교류의 매개 공간으로 활용함



(그림 4-7) 왕릉교 권역

(표 4-9) 왕릉교 권역

공간구분	대상지역	주요개선내용
녹지공간	금강변금강공원길 및 일반상업지역 일원	- 금강변 전통수종 식재 및 주변환경 개선 -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패턴디자인 - 가로등 및 교통시설 개선 - 기존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디자인 개선 - 녹지공원 조성
수변공간	제민천(금강~웅진교) 일원	- 나루터 및 조망데크 설치 - 자연친화적 재방환경 개선 - 가로수 정리 및 가로등 디자인 개선 - 왕릉교각 디자인 및 주변환경 개선 - 보행 바닥패턴 및 맨홀커버 디자인 개선
개발공간	느티나무길, 미나리길 인근 일반상업 및 준주거지역 일원	- 배수장의 공연공간으로 활용 - 주변건축물 외부디자인 개선 - 도로변 환경개선 - 황새바위순교지 전면광장 및 진입로 개선

## ① 공산성~정지산유적의 자연녹지축 형성

- 공산성과 제민천간 공간인 금성교와 왕릉교사이의 상가지역을 기존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외관개선을 통한 자연경관 회복과 더불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간 연계코스로 활용
- 금강 건너편인 유구로에서 조망시 공주의 진입경관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금강철교지역에서 제민천사이에 위치한 금강공원길과 접해있는 금강변지역을 적절한 조경식재와 전망시설물 도입을 통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고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자연환경 및 수변경관 창출
- 매립되어 상가지역으로 활용중인 미나리밭의 일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시각적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로, 건물 등으로 단절된 공산성과 정지산백제유적, 금강 등을 녹지축으로 엮어 시각적 연계를 통한 고도골격 회복
- 생태습지공원은 구도심과 금강을 자연생태 및 경관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연녹지공간으로 형성
- 전통조경수를 식재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금강철교와 함께 역사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

## ②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고도 탐방출발점

- 고마나루권역, 공산성~옥녀봉성권역 등에서 배를 타고 접근하는 탐방객을 무령왕릉권역, 왕릉교권역, 대통사지권역 등 내륙 고도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수변축의 시작점으로 제민천 여울목지역을 개선하고 나루터를 설치하여 거점교류지역으로 활용
- 금성교~왕릉교 구간의 제방은 기존의 완만한 경사를 두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양호하지만, 왕릉교~웅진교 구간은 견치석축으로 조성되어 고도에 어울리는 형태로 재조성하여 탐방환경 개선

## ③ 상징교각 및 상징가로 조성

- 공산성에서 송산리고분군 및 무령왕릉을 잇는 왕릉로지역을 특성있는 도로축의 형성을 위하여 웅진로와 왕릉로의 교차로터리공간, 연문광장, 연문, 왕릉교 등의 가로축을 형성
- 공주의 상징교각으로 왕릉교를 재정비하고, 왕릉로(공산성 로터리~연문광장~연문~왕릉교)의 바닥패턴, 가로수, 주변시설물, 건축물 등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여 단절된 제민천 동·서 역사문화자원 연계
- 왕릉교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산성, 야외 복합문화공간, 황새바위순교지, 송산리고분군 및 무령왕릉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결절점 역할 수행
- 황새바위순교지 전면부의 공간을 진입로와 광장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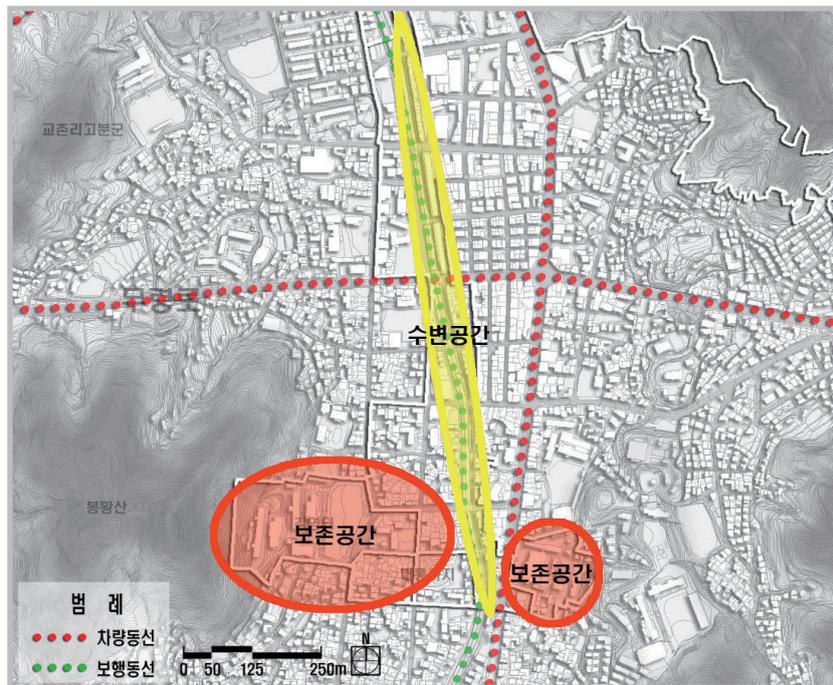
## ④ 야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 웅진로와 제민천간 왕릉교~웅진교~금서교 사이에 위치한 일반상업 및 준주거지역을 북측의 녹지공원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 조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활성화
- 과거 홍수시 도심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배수장은 기능의 필요성에 저해된 주변경관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배수장내부를 공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주변의 여유공간을 정리하여 문화공연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탐방객들을 유도
- 제민천변에 2~4층 규모의 상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등의 외부마감처리 및 지붕형태,

-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위치, 재질, 조명방식 등을 고도 이미지에 적합한 형태로 유도
-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느티나무2길 및 상가도로변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여 공영주차장(금강주차장)을 재정비하여 활용

(5) 대통사지 권역

- 대통사지는 한국에서 그 위치가 확실히 알려진 가장 오랜된 사찰지이며 백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공간임
- 대통사지 주변은 감영터, 공주목터, 객사터 등 조선시대 관아건물이 위치하였던 행정의 중심공간
-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옛모습 되살리기 전개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그림 4-8) 대통사지 권역

(표 4-10) 대통사지 권역

공간구분	대상지역	주요개선내용
보존공간	대통사지터 (반죽동당간지주), 충청감영터(공주사대부고), 공주목터(공주의료원) 일원	- 대통사지 일대 가로변 건축물 외관 디자인 개선 - 보존지구내 가로패턴 및 주변환경 개선 - 보존지구내 탐방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 봉황로 인접 건축물 외관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개선 - 부대편의시설 디자인 개선
수변공간	제민천(웅진교~제민천교) 일원	- 제방도로변 바닥패턴 및 부대시설의 디자인 개선 - 천변상가의 외관 및 옥외광고시설 디자인 개선 - 영세점포지역의 녹지공간으로 전환

## ① 대통사지 주변 가로경관 개선

- 반죽동당간지주가 위치한 녹지공원일대 대통사지 주변은 유적지안내시설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역사적가치를 확보, 유적에 대한 진정성을 찾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탐방객의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

## ② 감영터, 공주목터 등 복원을 통한 구심공간으로 활용

- 충청감영터, 공주목터, 객사터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복원을 통한 대상지역의 경관개선을 체계적으로 진행
- 공주사대부숙중·고등학교, 공주북중학교, 공주경찰서, 공주우체국, 공주문화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검찰청 공주지청, 공주시청 별관, 중학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주변의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 일대의 교육, 행정 등의 도심 공공기능과 연계하여 고도의 구심공간으로 활용

## ③ 상업지역의 외관 및 가로개선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조성

- 제민천변 제방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시설의 외관인 벽체, 지붕, 출입구 등은 제민천변과 어울리는 색채와 디자인을 도입하고 옥외간판 등의 광고물의 소재 및 형태, 색채 등을 차별화하여 자연친화적이며 고풍스러운 건축물군을 형성
- 또한 제방도로는 제민천의 개방감과 역사적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가로경관을 확보하도록 도로의 바닥패턴, 추락방지턱, 가로등, 편의시설 등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토록 하고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을 하되, 상가지역민의 활용 및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진입 가능하도록 함
- 봉황로, 대통길, 감영길 등의 가로에 인접한 상가지역은 상가가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가건축물의 외관과 담장, 지붕 등과 옥외광고시설물 등을 재개선하도록 하며, 차량과 보행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구간의 경우는 바닥패턴과 감속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보행의 편의 마련

## ④ 제민천변 산성시장 재정비를 통한 상권강화

- 웅진교~금성교~산성1교~산성2교~교촌교 구간에 밀집하여 자리잡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영세점포 등을 재정비하여 상업기능의 재생 및 역사경관을 조성
- 배수장 인근지역에서 금성교간 느티나무1길 우측에 밀집한 영세점포 등은 이전하고 자연친화적 조정 및 휴식시설을 마련하여 걷고 싶은 공간으로 활용
- 산성1교~교촌교 구간에 형성된 산성시장의 영세점포 주변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보행 및 상품구매가 가능하게 하고, 각 구간별 판매상품의 종류에 따라 점포의 특징있는 디자인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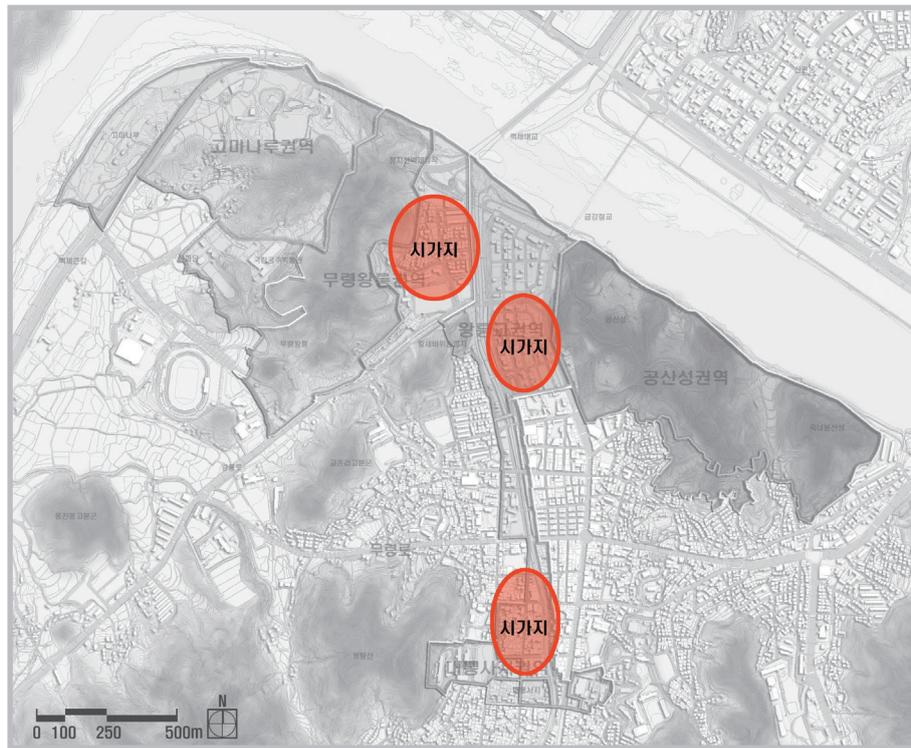
## ⑤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조성을 휴게교류의 장으로 활용

- 웅진교~금성교~산성1교~산성2교~교촌교 구간의 제방위로 영세점포의 배면마감 및 배수시설 등이 불량하게 경관을 해치고 있는바, 전반적인 재정비과 더불어 제민천의 수변축과 어울리는 역사적이며 자연친화적 디자인도입을 통한 수변경관 확보

#### 4. 유형별 경관형성계획

- 경관유형은 시가지경관, 가로경관, 유적지경관, 산림경관, 수변경관 등으로 설정하여 경관개선기본구상에 적용하도록 함

##### 1) 시가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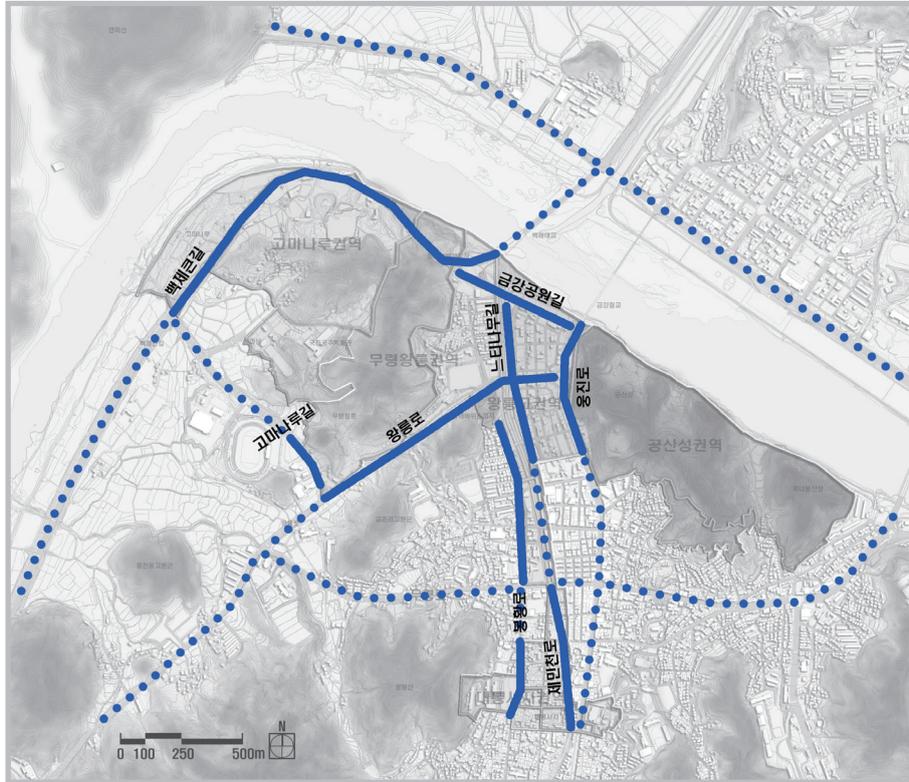


(그림 4-9) 시가지 경관

(표 4-11) 시가지 경관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령왕릉권역(정지산 동측하단 주택지)</li> <li>· 왕릉교권역</li> <li>· 대통사지권역</li> </ul>
개선기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지산 능선 동측하단부에 형성된 중저층형 건축물 및 옥외시설은 정지산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한옥형 외관으로 개선</li> <li>· 공산성 주변의 상업시설 및 노후·불량건축물은 토지매입 후 철거한 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산성 동측 성벽 하부지역은 자연녹지경관과 어울리는 저층의 한옥형 외관으로 개선</li> <li>· 왕릉교 및 대통사지권역의 건축물은 구도심 중심임을 감안하여 건축물 높이, 건축선및 벽면한계선 등 개선을 통해 역사문화자원과의 통경축 확보</li> <li>·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건축물 높이관리</li> <li>· 부감경관 관리를 위한 공공건물 및 학교를 중심으로 옥상 및 테라스 녹화공법 도입, 통일된 지붕 형태 및 색채 통일 등 가이드라인에 의한 건물외관 개선시행</li> </ul>

## 2) 가로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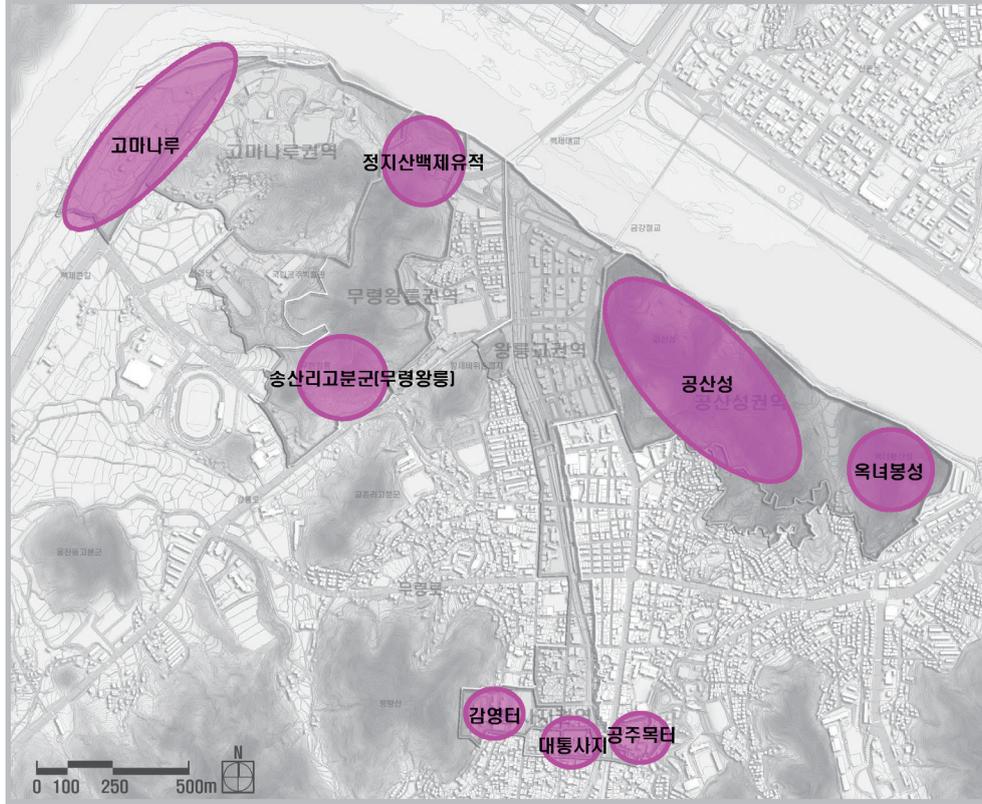


(그림 4-10) 가로경관

(표 4-12) 가로 경관

<p>대상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마나루권역(백제큰길)</li> <li>· 무령왕릉권역(비둘기길, 정지방길, 왕릉로, 고마나루길)</li> <li>· 공산성~옥녀봉성권역(웅진로)</li> <li>· 왕릉교권역(금강공원길, 느티나무길, 미나리길, 금성배수장길, 왕릉로, 봉황로)</li> <li>· 대통사지권역(봉황로, 제민천길, 무령로, 대동길, 감영길, 웅진로)</li> </ul>
<p>개선기본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큰길은 정지산백제유적에서 고마나루까지의 주요한 접근로로서 자전거 및 보행축에서 금강이 조망될 수 있도록 불량수목을 제거하여 시야권을 확보</li> <li>· 왕릉로는 공산성에서 무령왕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도로이므로 주변건물 및 가로시설물 등 외관개선을 통한 탐방경관조성</li> <li>· 금강공원길, 느티나무길, 제민천길 등 제민천변의 동서방향 기존도로를 활용한 공산성으로의 통경축 확보 및 주요 조망가로에 야간 조명 설치, 제민천변에 면한 불량 건축물의 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개선</li> <li>· 봉황로는 황새바위순교지에서 대통사지를 연결하는 근대 시대의 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가로 등에 대해서는 가로수 개선 정비를 통한 가로변 녹화 유도</li> <li>· 보행가로, 문화재 접근로, 자전거도로 등 가로 성격별로 중점경관관리 요소를 달리하여 가로시설물에 대한 전략적 외관관리와 더불어 녹색보행로, 역사탐방로 등 테마별 보행로의 보도 재질을 차별화하여 흥미유발</li> <li>·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담장허물기, 공개공지 확보 및 건축물 외관 개선유도</li> <li>· 보행가로 주변의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전통소매업 중심의 골목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로 곳곳에 띠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각적 쾌적함을 고려한 보행공간 확보</li> </ul>

### 3) 유적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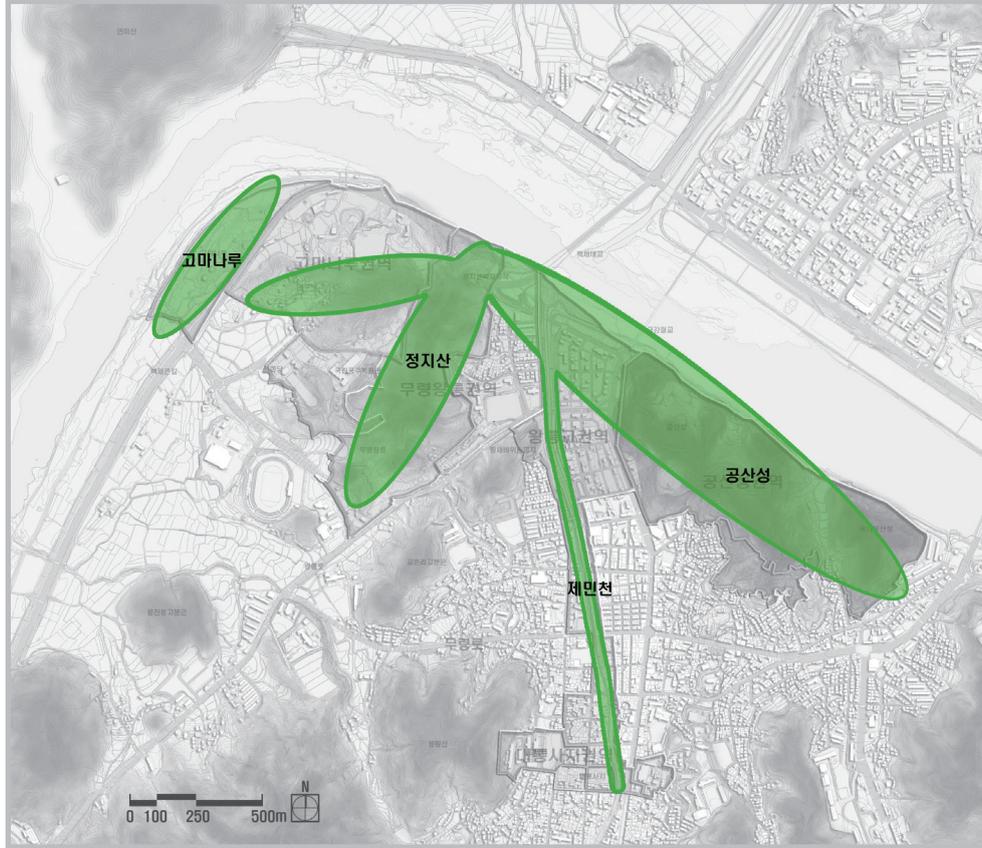


(그림 4-11) 유적지 경관

(표 4-13) 유적지 경관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마나루권역(고마나루, 선화당)</li> <li>· 무령왕릉권역(정지산백제유적, 송산리고분군 및 무령왕릉)</li> <li>· 공산성~옥녀봉성권역(공산성, 옥녀봉성)</li> <li>· 왕릉교권역(공주황새바위천주교순교유적)</li> <li>· 대통사지권역(반죽동당간지주, 감영터, 공주목터, 객사터)</li> </ul>
개선기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마나루, 무령왕릉, 정지산, 공산성 및 옥녀봉성 등 광범위한 역사문화자원 내에 위치한 각 점적유적을 개선하여 넓은 유적지내에 시각적 집중요소로 활용</li> <li>· 주요 역사문화자원간 경관적·공간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도로, 건물 등을 정비개선하고 단절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고도의 역사적 골격 회복</li> <li>· 역사문화자원의 통경축 확보 및 조망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 높이, 건축선 및 벽면한계선 등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주요 역사문화유산의 조망환경을 개선</li> </ul>

#### 4) 산림 및 녹지 경관



(그림 4-12) 산림 및 녹지 경관

(표 4-14) 산림 및 녹지경관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마나루권역(고마나루, 선화당)</li> <li>· 무령왕릉권역(정지산백제유적, 송산리고분군 및 무령왕릉)</li> <li>· 공산성~옥녀봉성권역(공산성, 옥녀봉성)</li> <li>· 왕릉교권역(공주황새바위천주교순교유적)</li> <li>· 대통사지권역(반죽동당간지주, 감영터, 공주목터, 객사터)</li> </ul>
개선기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 맞는 토종전통수종을 식재, 주변을 정리하여 고마나루, 정지산백제유적, 공산성, 옥녀봉성 등으로 연결되는 고도의 금강변 산림경관으로 활용</li> <li>· 산림경관이며 유적경관이기도 한 공산성, 정지산, 송산리고분군, 고마나루 등의 역사문화자원은 지형적 특징을 살려 수림사이로 유적을 볼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여 조망 포인트로 활용</li> <li>· 공산성 동측의 토성 하부의 농경지를 전통수종을 조성하여 주거지역과 공산성간의 완충녹지공간으로 활용</li> </ul>

5) 수변 경관



(그림 4-13) 수변경관

(표 4-15) 수변경관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마나루권역(고마나루일원)</li> <li>· 공산성~옥녀봉성권역(공산성 및 옥녀봉성 북측 금강변)</li> <li>· 왕릉교권역(금성교~웅진교간의 제민천일원)</li> <li>· 대통사지권역(금성교~제민천교간의 제민천일원)</li> </ul>
개선기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친화적 금강변 경관조성을 위해 고마나루~정지산~공산성~옥녀봉성에 이르는 수변지역의 인공시설물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형태로 개선 활용</li> <li>· 제민천 상류에서 금강 본류에 이르는 각 구간의 적지에 생태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마련함</li> <li>· 제민천 하류에는 금강에서 탐방객을 고도 내부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지류하천축으로 활용</li> </ul>

## 5. 경관유형별 경관형성기준

- 경관관리구역별로 주변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가기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시 고려 되어야 할 경관유형별(유적지경관, 가로경관, 수변경관, 자연녹지경관)로 원칙적인 경관유도기준을 담은 '경관기준'을 제시
- 경관기준은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수치의 규제가 아닌 실행기준에 대한유도 기준을 제시
- 고도공주의 유적지 권역(고마나루권역, 무령왕릉권역, 공산성·옥녀봉성권역, 왕릉교 권역, 대통사지권역)의 경관유형별 경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단위별 또는 세부 경관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적 특성과 함께 고도공주 차원의 정체성 및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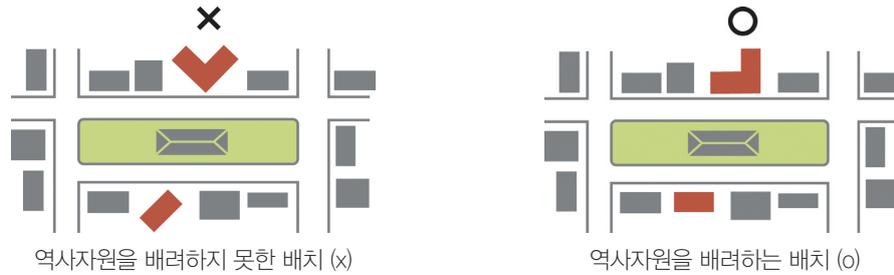
(표 4-16) 경관형성 대상

구분	대상지	비고	
경관유형	유적지경관	공산성(왕궁추정지)	
		옥녀봉성	
		정지산유적	
		송산리고분군	
		고마나루	
		감영터	
		대통사지	
		황새바위	
	가로경관	웅진로	
		왕릉로	
		봉황로	
		백제큰길	
		정지산 및 무령왕릉 접근로	
		곰땀광장~금강교~정지산 보행로	
	수변경관	제민천	
		금강주변	
	자연녹지경관	공산성	
		옥녀봉성	
		정지산	
		황새바위	

## 1) 가로경관기준

### (1) 배치

- 건축물 배치는 주변의 자연지형, 도시조직 및 역사문화재를 고려하고, 도심부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흔적 및 도시구조를 적극적으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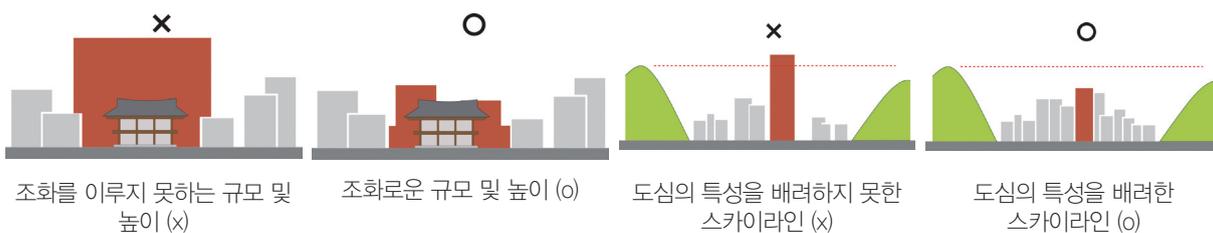
(그림 4-14) 배치기준

(표 4-17) 배치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조망 확보	· 대상지 주변의 역사자원 등으로의 조망을 충분히 고려한다.
도시구조	·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주변과 조화	· 자연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2) 규모높이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역사유적 등 도심가로부 고유의 경관자원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도모,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를 지양하고 유적지로 위요된 도심경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그림 4-15) 규모 및 높이기준

(표 4-18) 규모 및 높이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주변과 조화	·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한다.
스카이라인	· 도심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
압박감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은 지양한다.

(3) 형태외관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 경관자원 및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고유 가로특성을 보유한 지역은 이를 반영하여 특색 있는 공주고도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함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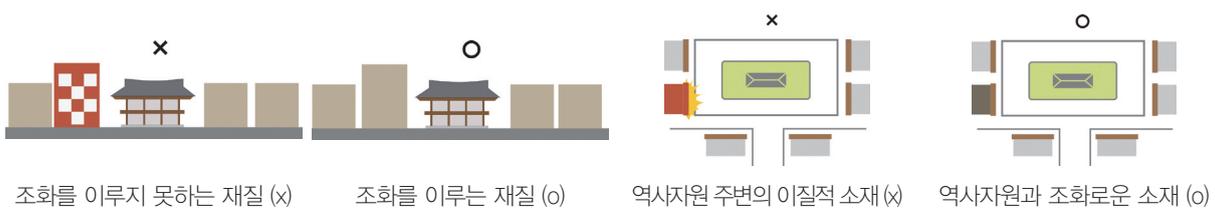
(그림 4-16) 형태 외관 기준

(표 4-19) 형태 외관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주변과 조화	·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도모한다.
일체적 디자인 (부속설비)	·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한다.

(4) 재질

- 건축물 재질은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도모하고,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지양 (예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



(그림 4-17) 재질기준

(표 4-20) 재질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재질 조화	· 주변 경관자원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한다.
이질적 소재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5) 외부공간

- 풍부한 공주고도 가로 경관자원과의 연계와 산재한 공간과 녹지들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외부공간은 가급적 이들과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
- 지형보호를 위하여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화되거나 시각적으로 차폐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질 사용



(그림 4-18) 외부공간 기준

(표 4-21) 외부공간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연속성	· 주변 경관자원 및 인접하는 공지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환경성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를 가급적 지양한다. (부득이 한 경우, 자연적 소재 사용 및 주변과 조화 도모)

(6) 야간경관

-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연출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을 연출

(7) 색채

- 도심의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
- 단, 건축물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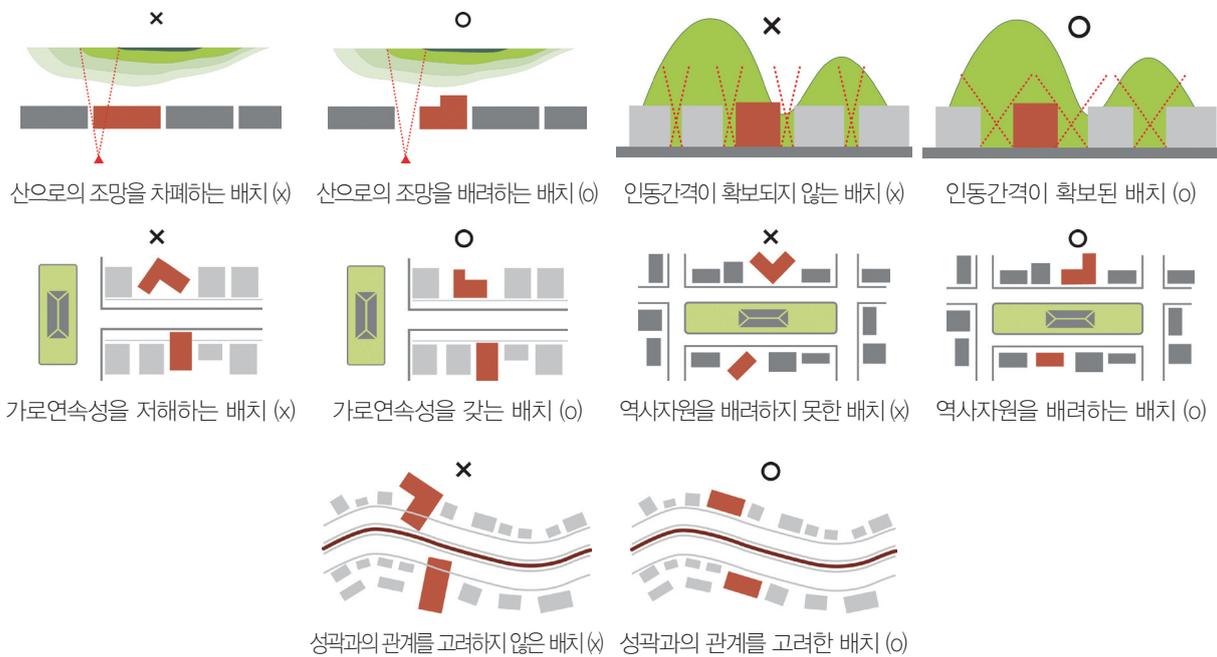
(8)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
-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물은 제한

## 2) 유적지 경관기준

### (1) 배치

- 유적지의 조망을 위하여 통경축을 확보
- 고도공주 유적지지형의 경관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가지에서 유적지로의 조망 및 유적지 내부에서 시가지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시각축 확보 · 일상환경에서도 배후의 산을 자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접건물과의 인동간격과 건물의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
- 역사자원이 건축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조망을 확보하고, 역사자원의 형태적 · 경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
- 유적지에 연접하는 건축물은 유적과 일정한 간격을 확보하여 개방적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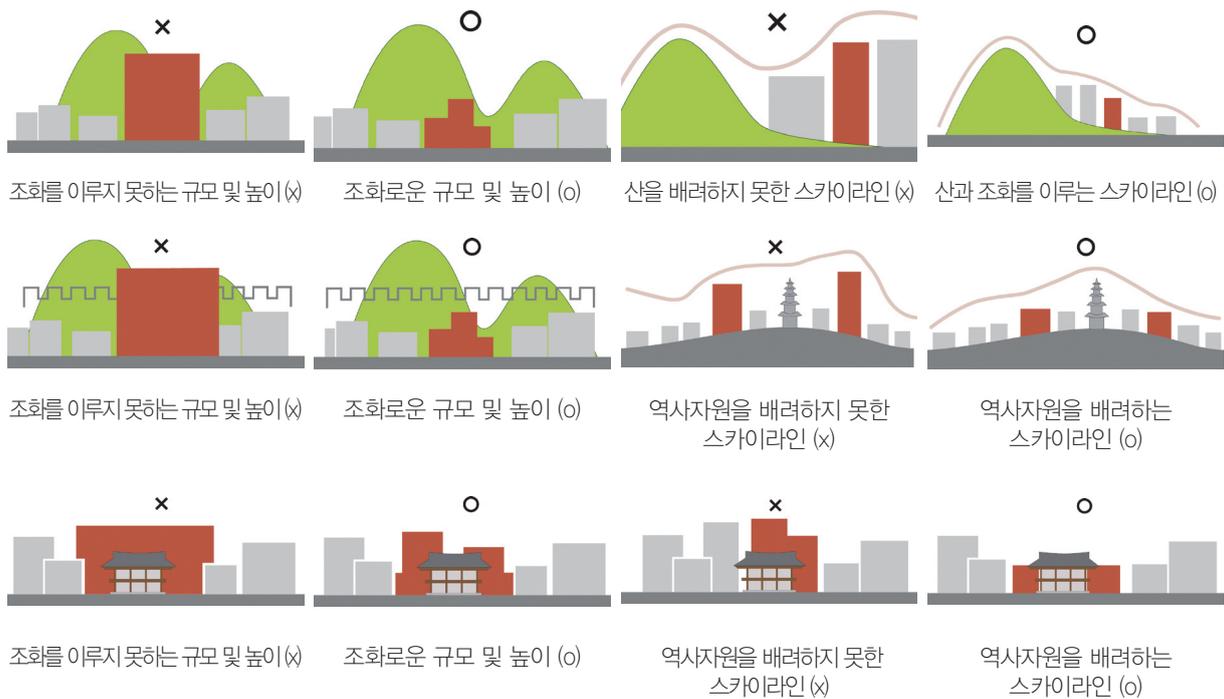
(그림 4-19) 경관배치 기준

(표 4-22) 경관배치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조망 확보	· 시가지에서 유적지로 또는 유적지에서 시가지로의 조망이 차폐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인동간격	· 유적지와 인접하는 경우 유적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방적 공간이 되도록 한다.
주변과 조화	·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관특성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2) 규모 높이

- 장대한 규모 및 돌출건축물을 지양하고, 유적지와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 건축물 규모 및 높이는 유적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도모하고, 유적지를 배려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역사자원에 비해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를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큰 규모의 건축물 조성시 분동이나 세장형 등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배려 압박감을 최소화



(그림 4-20) 규모 높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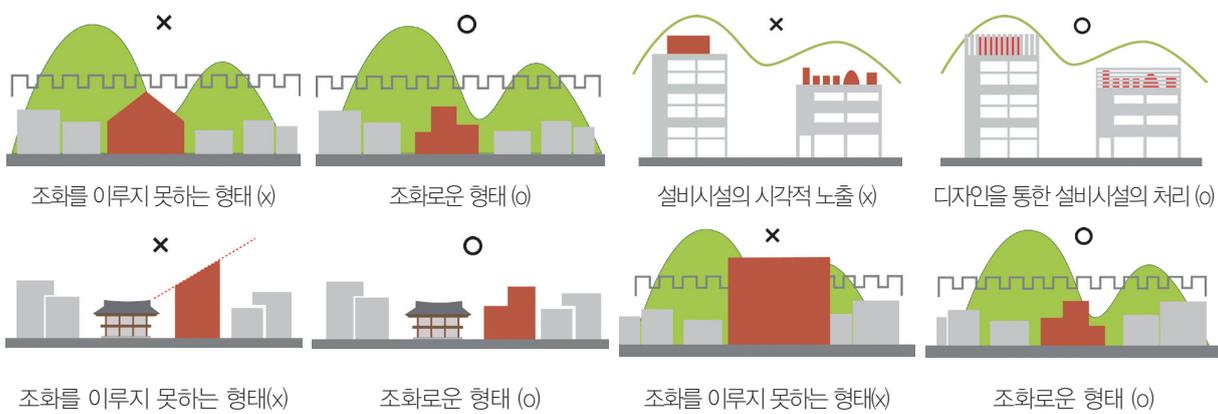
(표 4-23) 규모 높이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주변과 조화	· 유적지 및 경관특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한다.
스카이라인	· 역사자원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
압박감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을 지양한다.(가급적 분할하여 규모와 높이가 성곽과 조화되도록 한다)

## (3) 형태외관

- 유적지가 돋보이고, 유적지와 조화될 수 있는 형태 및 외관을 고려
- 유적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경관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고려
- 능·산성 등 면적 역사자원은 내부에서 조망되는 주변경관도 역사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조망점에서 보여지는 건축물은 고층부 외관 계획을 충분히 고려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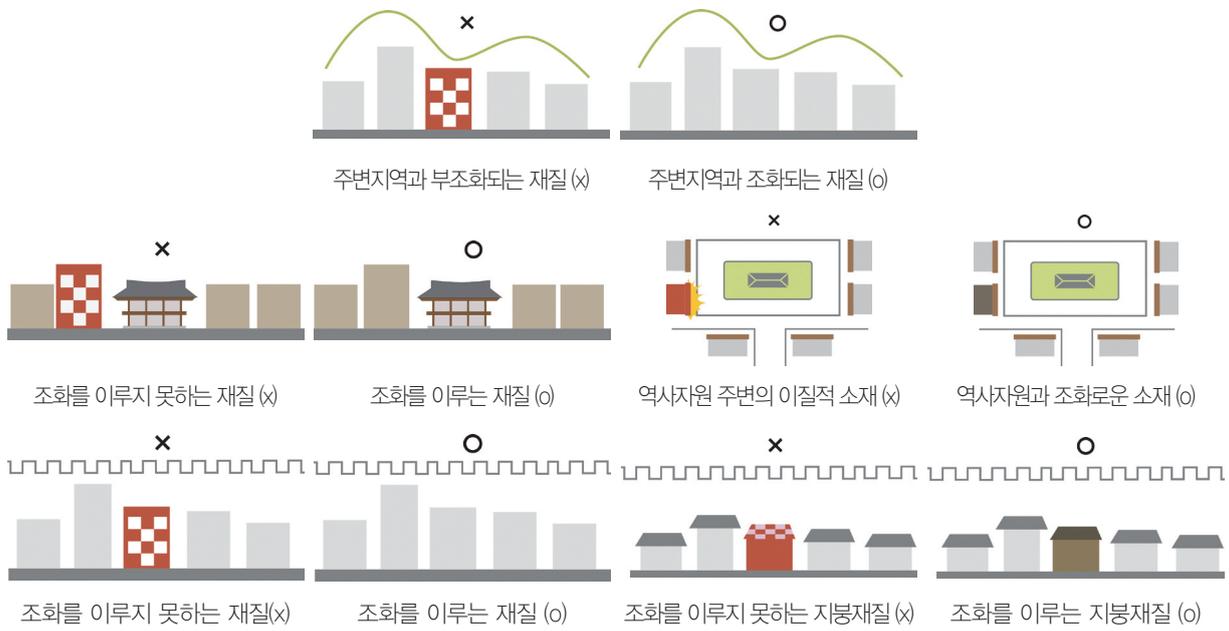
(그림 4-21) 형태 외관

(표 4-24) 형태외관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주변과 조화	· 유적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도모한다. · 주변지역 건축물의 리듬감이나 공통된 외관디자인 요소(지붕 형태, 개구부 형태 등)를 존중하여 형태적 조화를 도모한다.
역사자원 주변조망	· 역사자원 내부에서 조망을 고려하여 고층부 외관을 계획한다.
입면 디자인	· 건축물 입면 디자인은 유적지 및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하고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충분히 배려한다.
일체적 디자인 (부속설비)	·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한다. · 건축물 부속설비 및 발코니 등은 건축물 의장의 일부로 처리하거나 식재 등으로 차폐하는 등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도모한다.

#### (4) 재질

- 유적지와 조화될 수 있는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재질 사용
- 건축물의 재질은 역사자원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적지와 조화되는 돌, 벽돌, 나무 등의 천연재질의 소재를 사용.
- 역사자원의 시간적 흐름을 배려한 소재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소재 사용지양 (예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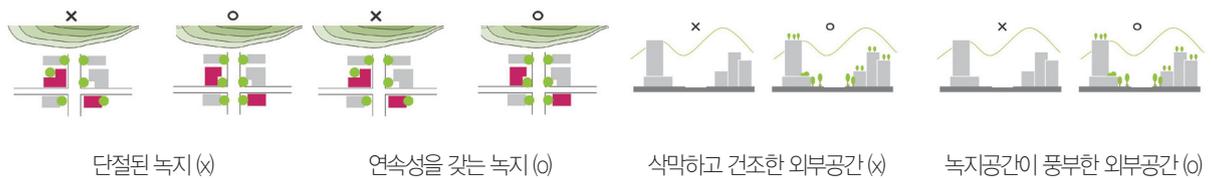
(그림 4-22) 재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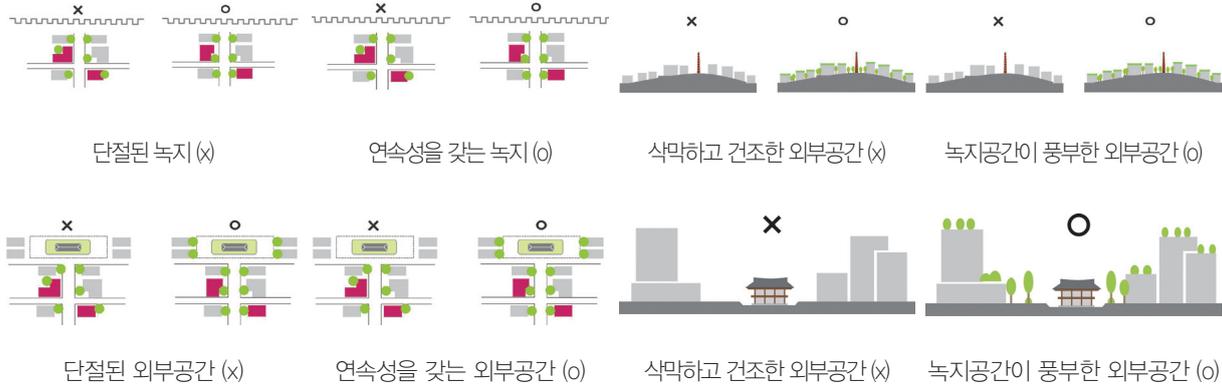
(표 4-25) 재질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재질 조화	· 역사자원과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한다.
이질적 소재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 (5) 외부공간

- 외부공간은 유적지로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
- 외부공간 조성 시, 유적지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대상지와 인접하여 공지 및 녹지 등이 있는 경우, 외부공간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가급적 연속하여 조성
-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옥상 또는 벽면녹화, 조경 등을 통하여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
- 유적지 특성 유지, 지형보호를 위하여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화되거나 시각적으로 차폐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질을 사용





(그림 4-23) 외부공간 기준

(표 4-26) 외부공간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연속성	· 주변 경관자원 및 인접한 공지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녹화	· 부지 내 기존 녹지는 최대한 보존한다. · 외부공간의 조경녹화 및 옥상녹화, 벽면녹화 방식을 도입하여 녹시율(綠視率, 눈에 보이는 녹지의 시각적 양)을 증대시킨다.
개방감	· 역사자원과 연접한 경우, 역사자원에 면하도록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수종	· 식재의 수종은 성곽과 조화될 수 있는 적합한 수종을 선택한다. (예 : 성곽보다 높지 않은 수종 선택)
공작물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를 지양한다. (부득이 한 경우, 자연적 소재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도모한다)

## (6) 야간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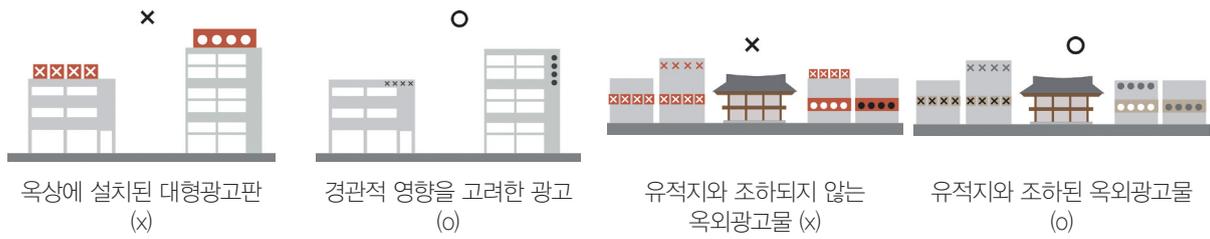
- 유적지를 살릴 수 있도록 차별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
- 유적지의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은 은은한 빛으로 연출
- 역사적 건축물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조화를 도모하여 도시의 역사자원을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함
- 인공적인 빛의 느낌을 지양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연출로 유적지의 존재감 및 품위를 높이고 아름다움을 부각
- 유적지의 야간경관이 시각적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연출

## (7) 색채

- 유적지가 갖는 경관특성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이미지 연출
- 유적지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
- 차별하고 자연적인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 단, 건축물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 (8) 옥외광고물

- 유적지와와의 조화를 도모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
-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물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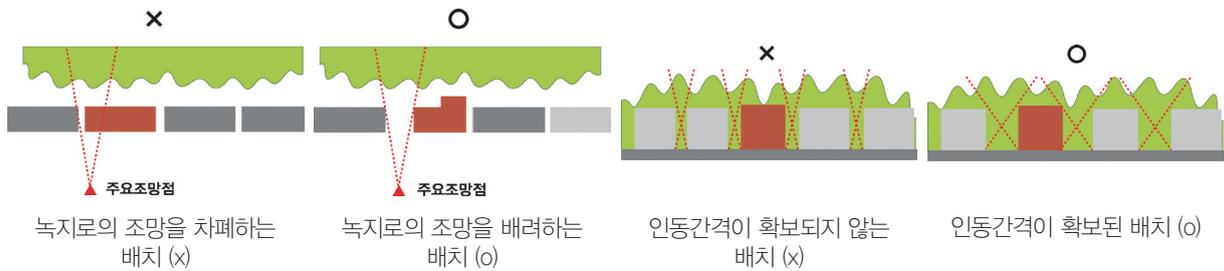


(그림 4-24) 옥외광고물 기준

### 3) 산림 및 녹지경관 기준

#### (1) 배치

- 녹지축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지형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
- 일상환경에서도 배후의 녹지를 자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접건물과의 인동간격과 건물의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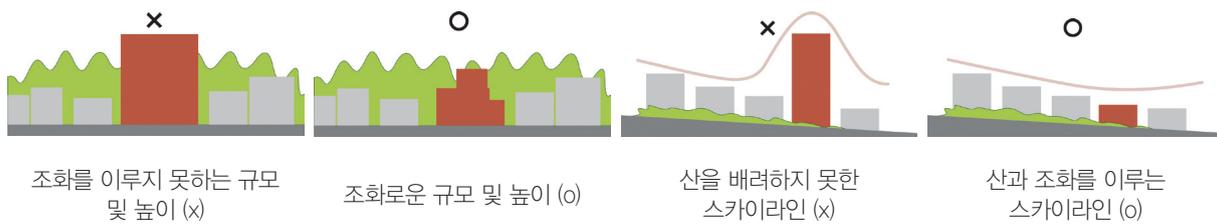
(그림 4-25) 배치 기준

(표 4-27) 배치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조망확보	· 녹지축 방향의 조망을 충분히 고려한다.
시각회랑	· 녹지축 방향으로 시각적 회랑이 확보되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인동간격	· 인접건물과의 인동간격을 확보한다.

(2) 규모높이

- 건축물 규모 및 높이는 녹지축과 조화를 도모하고, 자연지형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함
-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지나치게 크거나 장대한 규모를 지양한다. 부득이하게 큰 규모의 건축물 조성시 분동이나 세장형 등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배려



(그림 4-26) 규모 높이 기준

(표 4-28) 배치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주변과 조화	· 녹지축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한다.
스카이라인	· 자연지형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
압박감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을 지양한다.

(3) 형태외관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녹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녹지축의 시각적인 연결을 위하여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극적으로 도입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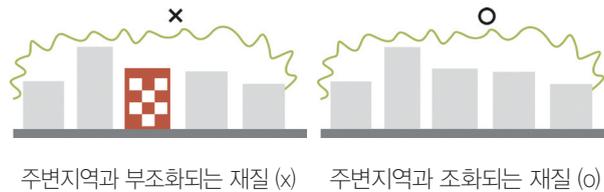
(그림 4-27) 형태외관 기준

(표 4-29) 배치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주변과 조화	· 녹지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도모한다. · 주변지역 건축물의 리듬감이나 공통된 외관디자인 요소 (지붕 형태, 개구부 형태 등)를 존중하여 형태적 조화를 도모한다.
입면 디자인	·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은 주변 녹지 및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하고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배려한다.
일체적 디자인 (부속설비)	·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도모한다.

#### (4) 재질

- 건축물의 재질은 녹지경관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도모하고,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지양한다. (예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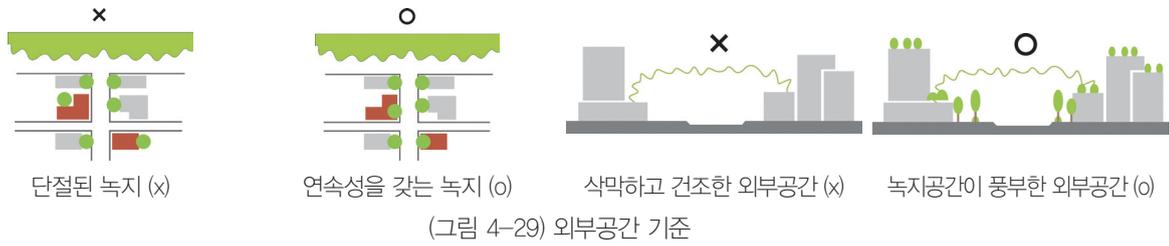
(그림 4-28) 재질 기준

(표 4-30) 배치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재질 조화	· 녹지와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한다.
이질적 소재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를 지양한다.

#### (5) 외부공간

- 외부공간 조성 시, 녹지축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대상지와 인접하여 공지 및 녹지 등이 있는 경우, 외부공간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가급적 연속하여 조성
-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생활타리 등 적극적인 요소 도입 및 옥상 또는 벽면녹화 등을 통하여 녹지축의 시각적인 연결을 도모
- 지형보호를 위하여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화되거나 시각적으로 차폐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질을 사용



(표 4-31) 배치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연속성	· 주변 경관자원 및 인접하는 공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녹화	· 기존 녹지의 보존 및 부지내 녹화를 도모한다.(옥상 및 벽면녹화 도입)
공작물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를 가급적 지양한다.(부득이 한 경우, 자연적 소재 사용 및 주변과 조화 도모)

#### (6) 야간경관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도록 정온한 빛으로 녹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  
주변으로 새어나가는 빛의 간섭과 하늘을 향한 조명을 지양하여 광공해를 최소화

#### (7) 색채

- 차분하고 자연적인 색채의 사용을 권장
-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
- 단, 건축물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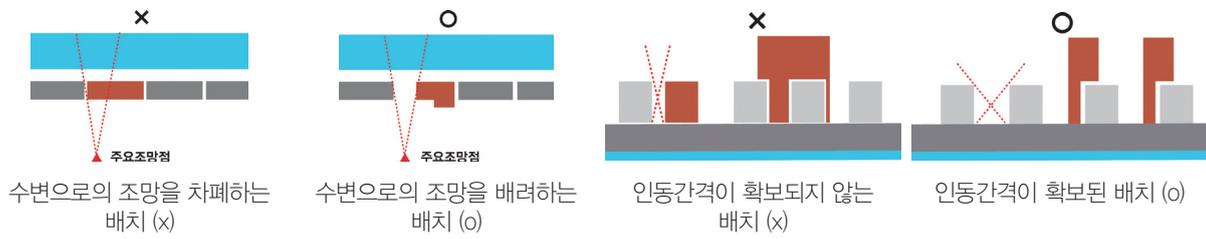
#### (8)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
  -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
  -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물은 제한
- ※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은 공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

### 4) 수변경관 기준

#### (1) 배치

- 한강·지천 및 배후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한다.
- 금강 및 제민천의 주요 조망점(예: 교량시작점, 금강변공원, 제민천변가로, 고마나무, 조망 명소 등)에서 배후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수변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
- 수변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정면이 수변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활력 있는 수변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배치 및 방향, 간격 등을 충분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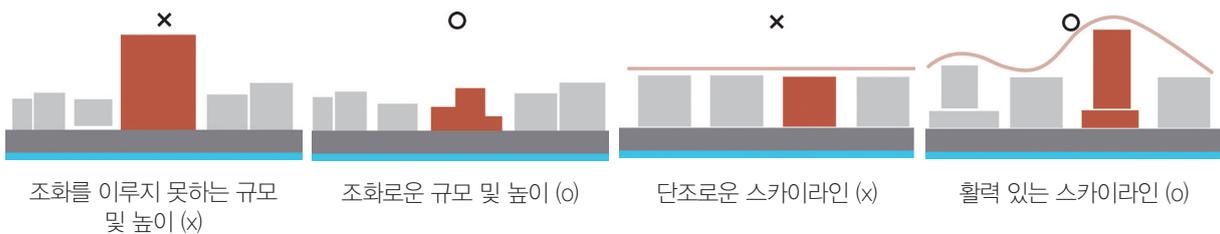
(그림 4-30) 배치 기준

(표 4-32) 배치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조망 확보	· 수변 및 주요 조망점에서 배후의 산 및 구릉지 등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양호한 조망을 보호한다.
건축물 방향	· 수변에 연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정면이 수변을 향하도록 방향을 계획한다.
인동간격	· 수변으로의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접건물과의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보한다.
개방감	· 2열 이상의 단지일 경우, 가급적 교차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2) 규모 및 높이

- 장대한 규모 및 돌출건축물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 도모
- 건축물 규모 및 높이는 수변과 조화롭고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배려
- 병풍형 건물 또는 건물군 등에 의한 경관차폐나 돌출건물 또는 장대한 규모의 건물로 심리적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함. 가급적 분동, 세장형 형태 등 충분한 디자인적 배려를 통해 압박감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함



(그림 4-31) 규모 및 높이 기준

(표 4-33) 규모 및 높이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주변과 조화	· 수변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한다.
스카이라인	·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에 의한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 · 지나치게 균등하거나 돌출되는 건축물을 지양한다.
압박감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의 건축물을 지양한다. (가급적 분동, 세장형 형태 등으로 디자인하여 주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 (3) 형태외관

- 단조로운 경관은 지양하고, 수변의 다양한 경관창출을 도모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다양한 건축물 고층부 디자인 등 건축형태 및 외관 디자인을 통하여 단조로운 경관을 지양하고, 활력 있는 경관창출을 도모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돌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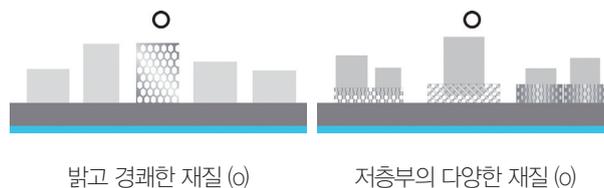
(그림 4-32) 형태외관 기준

(표 4-34) 형태외관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형태 조화	· 수변경관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추구하되, 수변의 다양한 경관창출을 도모한다.
고층부 디자인	· 건축물 고층부는 멀리서도 눈에 띄기 때문에 경관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압박감	· 수변으로의 조망 차폐 및 압박감을 주는 장대한 입면을 지양한다.
일상적디자인 (부속설비)	·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도모한다.

### (4) 재질

- 수변과 조화될 수 있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재질을 사용
- 건축물의 재질은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소재사용을 통해 변화있는 수변경관 형성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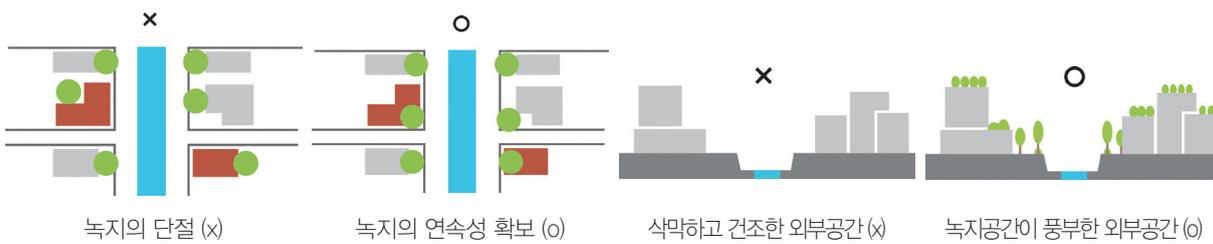
(그림 4-33) 재질 기준

(표 4-35) 배치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재질 조화	· 수변과 조화될 수 있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다양성 (주요가로변)	· 주요 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가로의 활력부여를 위하여 저층부는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되, 수변으로의 경관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 (5) 외부공간

- 수변에 접하는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개방감을 확보
- 외부공간은 가급적 수변에 확보하여 수변의 개방감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함
- 수변 방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녹지 및 공지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가급적 인접 녹지 및 공지와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
- 지형보호를 위하여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화되거나 시각적으로 차폐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질을 사용



(그림 4-34) 외부공간 기준

(표 4-36) 외부공간 기준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
연속성	· 주변 경관자원 및 인접한 공지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개방감	· 수변과 연접한 경우, 수변에 면하는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수변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공작물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를 가능한 지양한다. (부득이 한 경우, 자연적 소재 사용 및 주변지역과 조화 도모)

### (6) 야간경관

- 빛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야간경관의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수변 연출
- 수변축의 연속적인 경관과 선적 리듬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명 연출
  - ※ 건축물 휘도 및 발광광고물 설치기준은 '공주시 경관 가이드라인' 준용

### (7) 색채

- 수변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색채이미지를 연출
- 수변과 조화되는 활기차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지양 단, 건축물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 (8) 옥외광고물

- 수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
-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물은 제한
  - ※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은 공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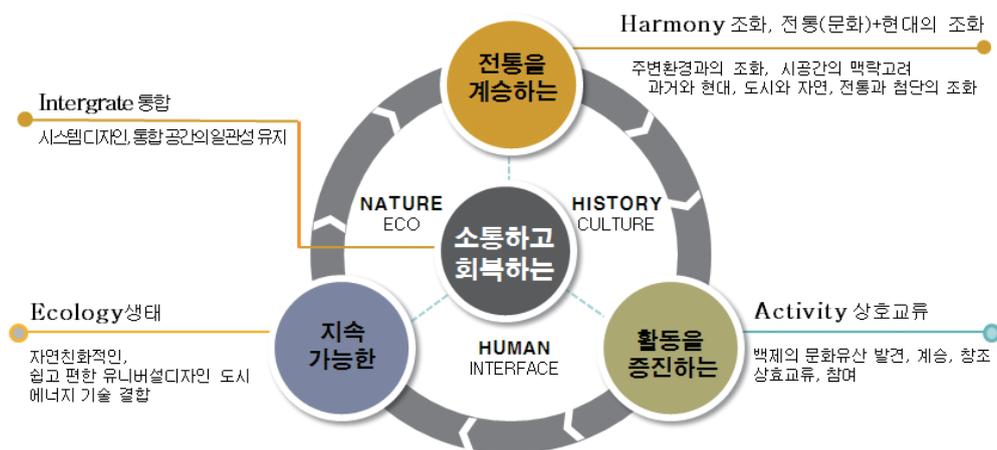
## V. 경관형성설계지침

### 1. 추진방향 및 가이드라인체계

#### 1) 추진방향

- Harmony 전통과 현대의 조화 - 전통 문화, 조화를 의미하는 전통 계승
- Activity 상호교류 - 행태와 상호교류를 의미하는 활동 증진
- Ecology 생태 - 생태성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 Intergrate 전략을 통합하는 - 소통과 회복으로 설정

(표 5-1) 추진방향



#### 2) 가이드라인 원칙

##### (1) 소통하고 회복하는

통합화의 원칙

상징성 : 고도공주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일관성 : 형태, 색상과 재질에 일관성을 가지고 시각적 이미지가 통합되도록 한다.

연계성 : 각 분야별 시설물 간에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총체성 : 단위 공간 및 시설이 동일한 주제를 가진 총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2) 활동을 증진하는

행태의 원칙

역동성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간에 활발한 상호 교류가 유도되도록 한다.

교류성 : 고도의 환경과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속에서 도시문화를 공유하도록 한다.

창조성 : 백제고도의 존재하는 문화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해 나간다.

공감각성 : 백제의 예술수준을 오감 요소로 반영한 공감각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3) 전통을 계승하는

조화의 원칙

조화성 : 도시와 생태,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전통성 : 고도공주의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조형과 공간을 지향한다.

맥락성 : 고도공주의 인문적,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개방성 : 고도공주의 경관과 조화되며 생태환경에 열려 있는 개방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4)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원칙

생태성 : 고도공주의 생태 자연 조건에 순응하고 소통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지속가능성 : 저밀도, 고효율 시설물,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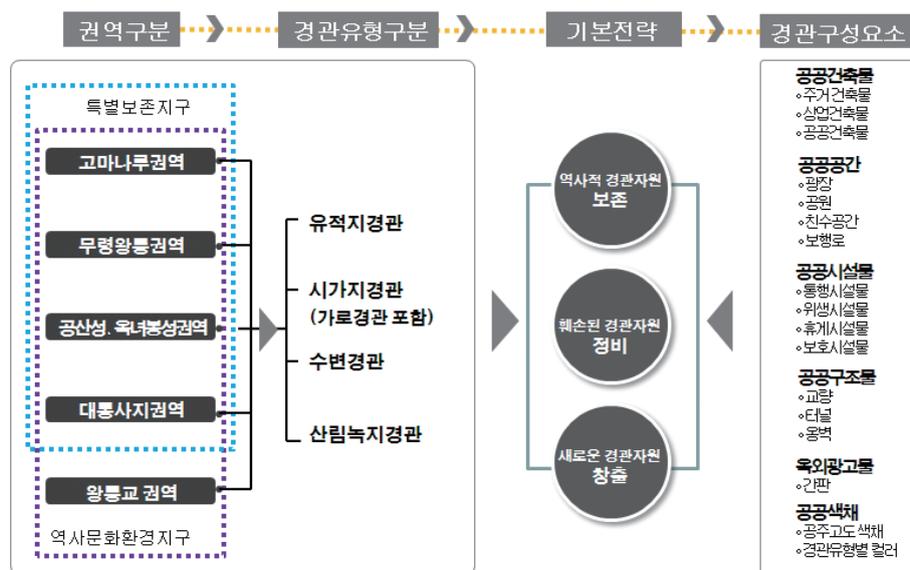
단순성 : 장식적 요소를 억제하고 시각적, 구조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편리성 : 쉽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추구하여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한다.

3) 경관 가이드라인 체계

- 고도공주의 경관이미지와 경관권역을 기초로 역사적 경관자원 보존, 훼손된 경관자원 정비, 새로운 경관자원 창출을 기본전략으로 경관 가이드라인 체계 도출

(표 5-2) 가이드라인 체계



#### 4) 기본개념

-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한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실천적·체계적인 실행계획 마련”

(표 5-3) 경관가이드라인 기본개념

<p>통합 디자인 Intergrate Design</p> <p>공공시설물의 구조적 형태 및 기능, 수량, 크기를 적절하게 통합사람이 우선인 깨끗한 경관 창출</p>	
<p>개방적 디자인 Open Design</p> <p>인터랙티브디자인에 의한 방문객과 주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공유 및 참여 유도</p>	
<p>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p> <p>균등한 접근기회를 조성하고, 시설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용하도록 함</p>	
<p>친환경 디자인 Sustainable Design</p> <p>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원순환형 에너지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도시이미지 확보</p>	
<p>지역정체성 디자인 Regional Identity Design</p> <p>공주고도의 특징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역사적 고유성을 담은 디자인 지향</p>	

#### 5) 적용원칙

(표 5-4) 가이드라인 적용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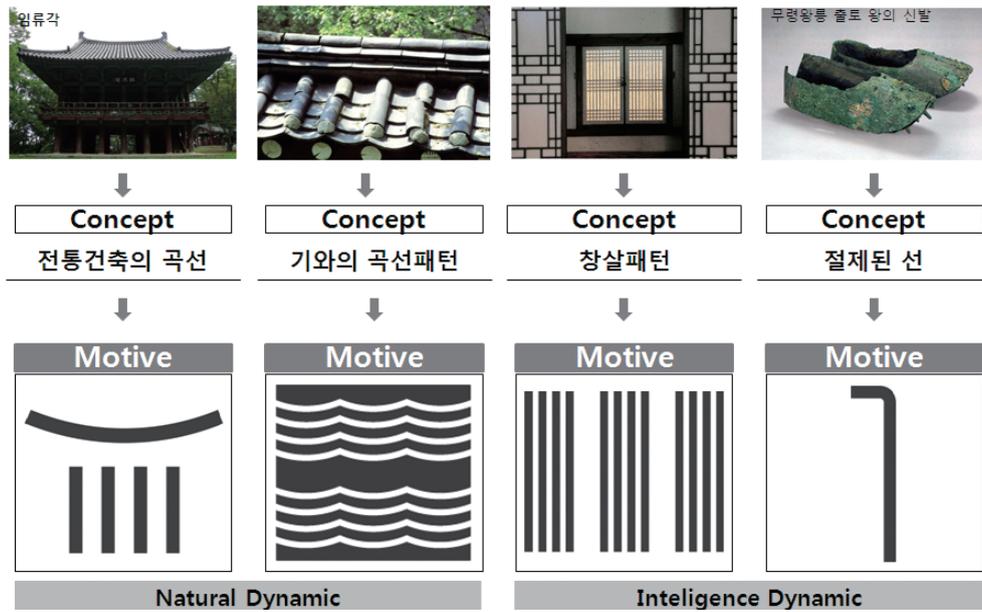
건축물 가이드라인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공공구조물	환경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 있는</li> <li>· 친환경적인</li> <li>· 조화로운</li> <li>· 지속가능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중심공간</li> <li>· 안전한 공간</li> <li>· 정돈된 공간</li> <li>· 지속가능한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적방향제시 (최소화, 축소화)</li> <li>· 정서적방향제시 (질서, 가독성,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을 우선하는</li> <li>· 통합하는</li> <li>· 안전한</li> <li>· 사용자를 배려하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고도의 품격 저해</li> <li>· 불필요한 장식 배제</li> <li>· 구조적으로 아름다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체성 확립</li> <li>· 독창성 확보</li> <li>· 통합성 유도</li> <li>· 국제성 지향</li> </ul>
절제의 원칙	비움의 원칙	소통의 원칙	질서의 원칙	간결의 원칙	순응의 원칙

(1) 스타일 컨셉

① 기본조형 형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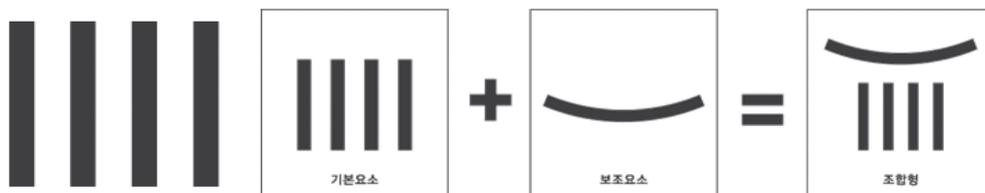
- 공주고도의 가치를 살리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형태적 디자인 발굴
- 간결성, 순응성, 절제성 등 공주고도 전통문화유산이 가지는 형태적 특성 반영
- 간결한 이미지를 통해 주변 문화유산을 강조하는 디자인 구현

(표 5-5) 스타일 컨셉 도출



② 기본형태 전개

- 기본 방향  
고도공주의 역사유적 경관에 순응하고 공주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레이어를 상징하는 조형적 형태를 설정함
- 기본형  
세로로 긴 수직의 칸을 기본형으로 함 (상승감, 개방감, 방향감, 확장성, 단순성)



(그림 5-1) 조형 기본형태

- 확장형

간의 간격이나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하거나 분절 가능



(그림 5-2) 조형 기본형 확장

## (2) 재질컨셉

### 기본 방향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주요 재질을 목재, 석재, 금속재, 포장재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생태성, 역사성, 전통성, 지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질과 질감을 고도공주의 아이덴티티로서의 일관성과 차별성을 확립하기 위한 재질은 다음과 같음

- 목재 : 생태성 소나무(육송) 본래의 자연질감을 부각
- 석재 : 역사성, 성곽, 전통건축 돌담 화강석 통석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본래의 질감
- 금속재 : 전통성- 시간의 축적, 부식된 금속질감을 권장하고 광택 마감 지양
- 포장재 : 지속성- 산, 토양 자연 질감 및 투수 포장 투수성 포장과 흙 질감의 포장을 권장

## 6) 컬러 개념 도출

### (1)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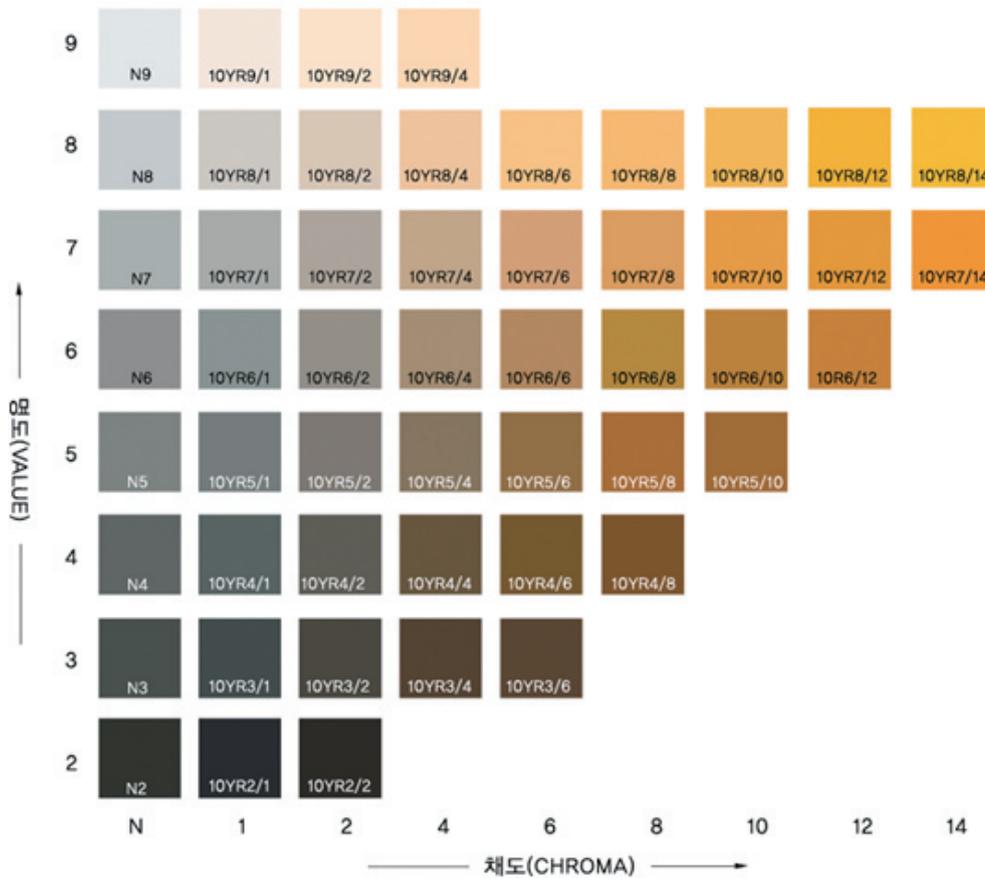
수려한 고도공주의 역사유적 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색채 계획을 수립하고 내츨(Natural)계열 색채를 적용하여 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색채 이미지를 지향한다.

### (2) 기본 원칙

- 공주고도의 색채는 자연재료 고유의 색 사용,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채를 중심으로 한다.
- 회색조의 색채 사용시 따뜻한 느낌의 색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이미지의 색채를 계획한다.
- 단청 등 화려한 색채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공주고도 경관의 강조색으로 적용한다.



(그림 5-3) 컬러개념 도출



(그림 5-4) 주조색 적용범위

I. 계획의 개요

II. 고도사업지구 현황조사

III. 고도육성 제도 검토

IV. 고도경관 형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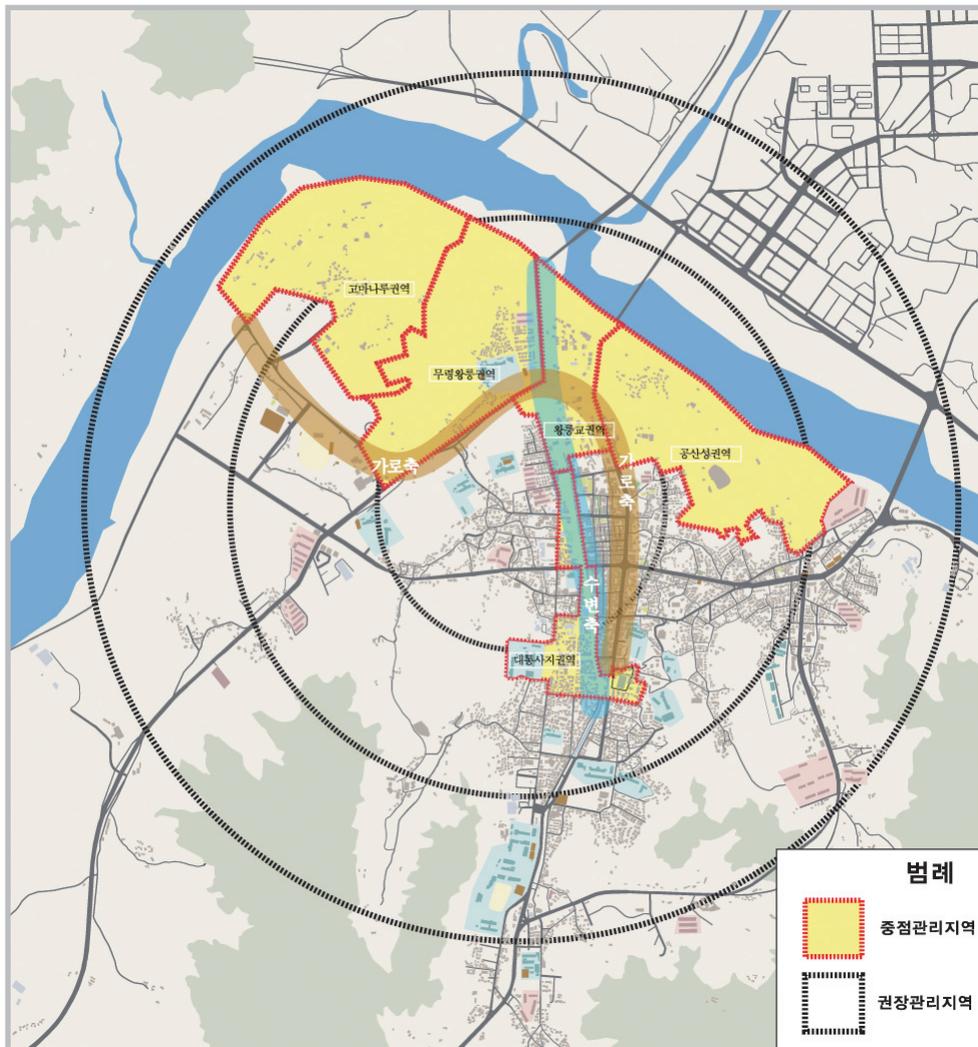
V. 경관형성설계지침

VI. 실행방안

## 2. 경관특성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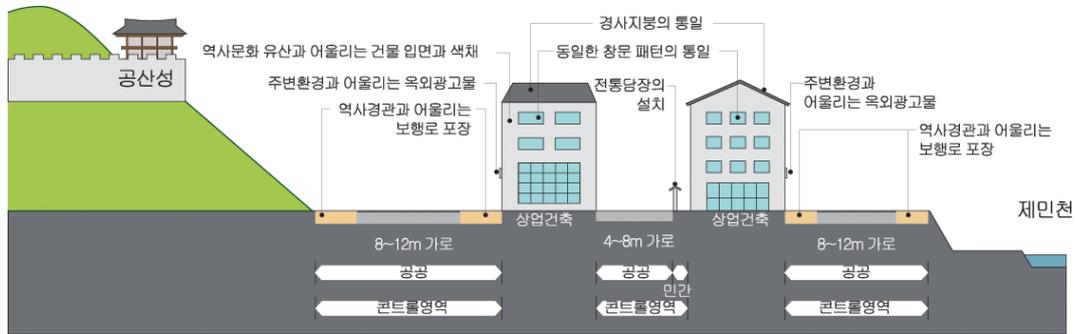
### 1) 중점관리지역

역사문화유산 경계로부터 외부 인접 지역을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항목을 설정한다.



(그림 5-5) 경관중점관리지역구분

## (1) 공산성 권역



(그림 5-6) 공산성권역 가이드라인

### ① 건축물

- 공산성권역 경계로부터 외부 인접 지역의 건축물은 입면 및 지붕에 역사문화유산과 조화로 운 색채를 적용한다.
- 저층부의 패턴, 재료, 색채는 역사문화유산과 연계되도록 한다.
- 역사문화유산과 인접한 필지는 건축물의 규모를 줄이거나, 건축선을 이격하고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문화유산과 공간감을 확보한다.
-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시설물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 역사문화유산의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역사유산과 이질감있는 옥외간판 건물입면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역사유산과 거리감있는 건물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건물

(그림 5-7) 공산성권역 건축물 규제 및 권장요소

### ② 시설물

-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전체적 통일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역사 유산의 공공시설물과 형태, 재료, 색채의 디자인 연계를 통한 시설물의 조화를 이룬다.
- 역사유산의 경계부 이미지(담장, 돌담 등)와 조화로운 바닥포장의 재질 및 패턴을 적용한다.
- 역사유산 경계부에 불필요하거나 역사유산의 품격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친환경 재료의 조합으로 고상한 느낌의 경관을 형성한다.
- 역사문화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는 가로시설을 도입한다.



복잡한 형태 및 요소

형태에 지역특성 반영, 색채 통일성(일본 도야마)

경계선스와 경계선의 조화 고려

담장과 보행로 조화

(그림 5-8) 공산성권역 시설물 규제 및 권장요소

## (2) 무령왕릉 권역



(그림 5-9) 무령왕릉 권역 가이드라인

### ① 건축물

- 무령왕릉권역 경계로부터 인접 지역의 건축물은 입면 및 지붕에 역사문화유산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 건물의 재료,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조성되도록 한다.
-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시설물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여 규모, 서체, 재료, 색채 등이 역사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한다.



주변과 거리감있는 옥외간판

건물입면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

역사환경과 조화로운 건물형태

(그림 5-10) 무령왕릉 권역 건축물 규제 및 권장요소

②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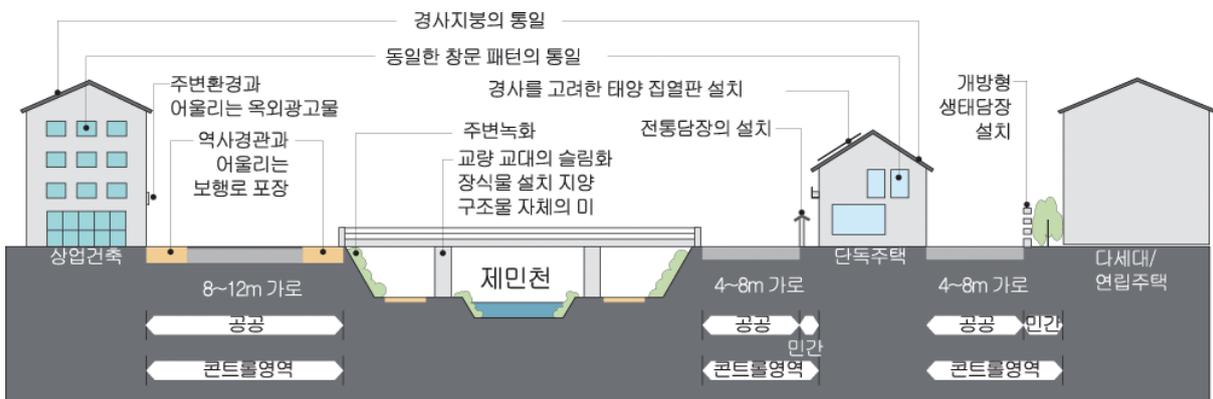
- 역사공간 성격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도입한다.
- 자연재료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적용한다.
- 마을안길에 디자인 가로조명시설 (가로등, 블라드등)을 설치한다.
- 무채색 모노톤 계열의 색상과 반복적인 패턴을 도입하여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전통적인 고풍스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안등의 과도한 장식요소    역사유산의 형태, 재료, 색채 반영    주변환경과 석재소재의 부조화    주변환경과 조화, 친환경소재 적용

(그림 5-11) 무령왕릉 권역 시설물 규제 및 권장요소

(3) 왕릉교 권역



(그림 5-12) 왕릉교 권역 가이드라인

① 건축물

- 왕릉교인접 지역의 건축물은 입면 및 지붕에 역사문화유산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을 조성한다.
- 건물의 패턴, 재료, 색채는 역사문화유산과 연계되도록 한다.
-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시설물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여 규모, 서체, 재료, 색채 등이 역사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한다.



문화유산과 거리가 먼 간판형태    문화유산과 어울리는 옥외광고물    문화유산과 이질적인 건축외관    조화로운 건축물 외관연출  
(그림 5-13) 왕릉교 권역 건축물 규제 및 권장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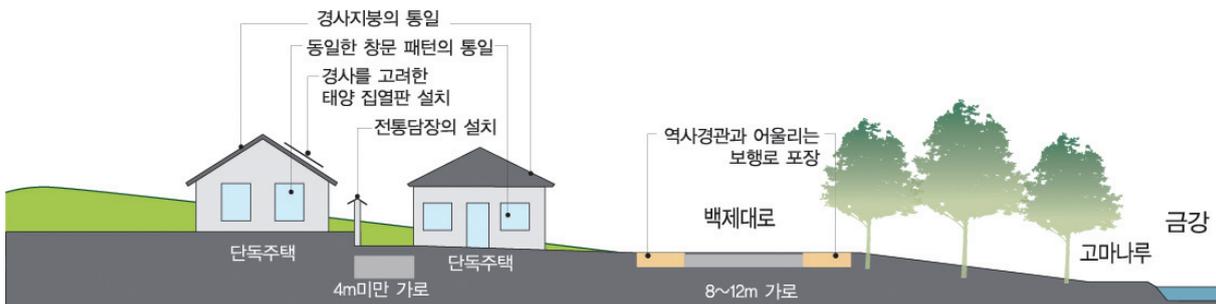
② 시설물

- 역사공간 성격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도입한다.
- 자연재료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적용한다.
- 마을안길에 디자인 가로조명시설 (가로등, 블라드등)을 설치한다.
- 무채색 모노톤 계열의 색상과 반복적인 패턴을 도입하여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전통적인 고풍스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블라드 형태 단조로움    주변환경을 고려한 형태 및 색채    보행로 패턴 및 소재의 부조화    친환경 목재(밤나무)소재 사용  
(그림 5-14) 왕릉교 권역 시설물 규제 및 권장요소

(4) 고마나루 권역



(그림 5-15) 고마나루 권역 가이드라인

① 건축물

- 고마나루 인접 지역의 단독주택의 지붕 및 담장에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을 조성한다.
- 건물의 재료, 색채는 주변환경과 이질감이 없도록 한다.



주변환경과 부조화 주택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



공간대비 규모가 큰 사례



전통건축형태 표현

(그림 5-16) 고마나루 권역 건축물 규제 및 권장요소

② 시설물

- 고마나루의 공간 성격에 부합하는 보도블럭 및 가드레일 소재를 적용한다.
- 자연재료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적용한다.
- 마을안길에 디자인 가로조명시설 (가로등)을 설치한다.
- 무채색 모노톤 계열의 색상을 도입하여 차분하고, 고마나루 이미지를 부각하여 전통적인 고풍스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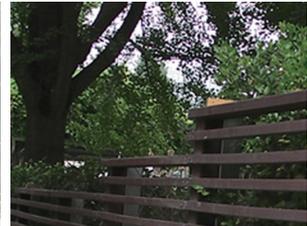
과도한 색채 및 형태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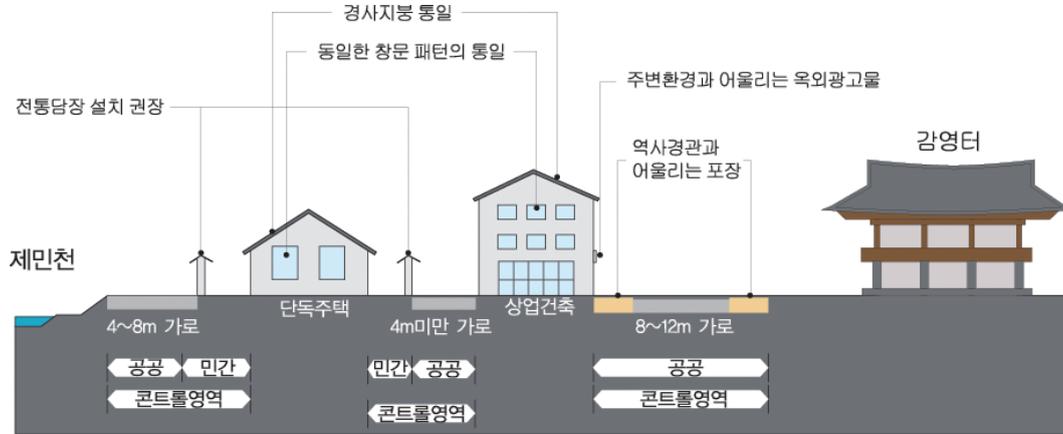
가드웬스와 주변경관의 부조화



목재를 사용한 가드웬스

(그림 5-17) 고마나루 권역 시설물 규제 및 권장요소

(5) 대통사지 권역



(그림 5-18) 대통사지 권역 가이드라인

① 건축물

- 대통사지 및 감영터 인접 지역의 건축물은 지붕 및 입면에 역사유산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 건물 외부입면의 패턴, 재료, 색채는 역사문화유산과 연계되도록 한다.
- 역사유산과 인접한 필지는 건축물의 규모를 줄이거나, 건축선을 이격하고,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문화유산과 공간감을 확보한다.
-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여 규모, 서체, 재료, 색채 등이 역사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한다.



주변과 거리감있는 옥외간판    건물입면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유적지와 어울리지 않는 건물    역사유산지구내 전통가옥 (가시하라(檀原) 고도보존지구)

(그림 5-19) 대통사지 권역 건축물 규제 및 권장요소

② 시설물

- 역사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도입한다.
- 학교 앞에 용기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고 포장재 역시 보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도로변과 소공원에는 벤치, 가로등, 이정표, 자전거 거치대, 휴지통, 블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 블라드는 조명설비를 내장시켜 야간 시 가로등 역할을 하도록 하고, 모든 재료의 마감은 무광택, 무채색으로 원재료의 특성이 드러나도록하여 고풍스런 가로분위기를 조성한다.



주변환경과 부조화한 블라드 형태



용기형 사고석 포장



감영터앞 보행로 가로시설물 혼잡



도로 쾌적성 확보

(그림 5-20) 대통사지 권역 시설물 규제 및 권장요소

## 2) 권장관리지역

경관중점관리지역 인접지역을 권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항목을 제시한다.

## 3.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 1) 건축물

#### (1) 대상

- 공주고도 공공건축물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공주 고도보존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정체성과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2)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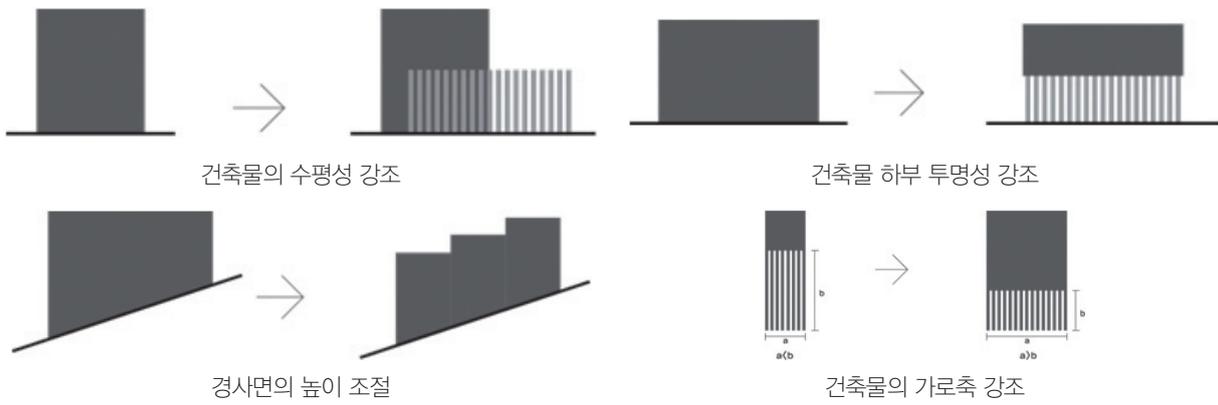
- 건축물은 도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도시맥락 속에서 전체로서의 도시적 통일성과 부분으로서 건축적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3) 기본원칙

- 공주고도의 건축물은 도시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야 한다.
- 공주고도의 건축물은 친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
- 공주고도의 건축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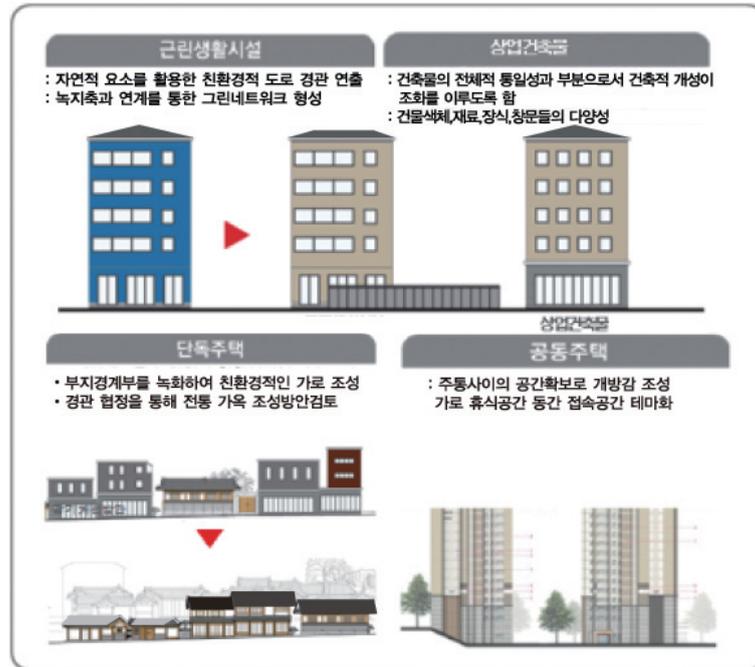
#### (4) 적용기준

- 건축 규모가 작아 수평적 비례가 나오지 않는 경우 가로로 긴 벽을 조성하여 수평성을 강조한다
- 건축 상부 매스를 지면으로부터 띄우고 아랫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가로로 긴 형태를 강조한다.
- 경사면에 큰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매스를 분절하여 높이를 낮춘다.
- 수직의 층을 이루되 전체적인 형태가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를 취한다.



(그림 5-21) 적용기준

(5) 세부지침



(그림 5-22) 세부지침

① 주거건축물

단독주택

- 현황 및 문제점
  - 불규칙한 건축 한계선과 통일되지 않은 지붕형태로 혼란스러운 주거환경 이미지 형성
  - 건축물 입면 및 지붕 마감재 색상 범위가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 고채도의 지붕 색채들이 주변 자연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콘크리트 위주의 인공 담장으로 고도와 동떨어진 삭막한 경관 이미지 연출



고채도의 지붕색채



통일되지 않은 지붕형태



복잡한 건축물 입면 및 지붕

● 기본방향

- 통일감 있는 지붕형태 및 건축 한계선 확립으로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이미지 연출
- 건축물 입면 및 지붕 색상 범위의 기준 정립으로 고도다운 주거 공간 조성
- 지붕 소재색 제시로 정돈된 입체적 경관 형성
- 시설물 또는 옥외광고물에 의한 역사문화경관의 시각적 차단방지

● 설치 및 배치

- 블록별 주택의 형태, 외관, 색채 등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정돈된 단독주택지 경관을 형성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되는 구간은 조경 식재 처리 권장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기존의 건축물 상태를 고려하여 일률적인 경사지붕적용은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양 · 박스형태의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있는 디자인 사용 · 새로 개발되는 신시가지에는 현대적인 모던한 스타일의 지붕 형태를 적용하여 다양성 확보 · 창문의 형태 : 장방형의 일정한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주거환경을 연출하고 백제적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	○ ○ ○	○
지붕 및 담장	·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또는 우진각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일 경우 하중을 고려하여 일부 녹화 · 태양열, 태양광, 태양전지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적용 · 담장은 생울타리, 돌, 흙, 관목류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축조하여 지역경관에 어울리는 관례적 높이와 폭으로 조성함. 높이는 사람의 키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함(150cm 내외)	○ ○ ○	
재질	· 둘 이상의 재질을 혼용할 경우에는 이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 · 주택의 주차장 및 마당 재질은 녹화 및 투수성 재질 권장 · 지붕은 경량기와 또는 신소재, 아스팔트 씬글 등의 소재 사용	○ ○	○
색채	· 적벽돌, 목재 등 재질 자체색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경관 형성 권장 · 공주고도 주색인 회색은 지붕색으로, 입면은 중저채도의 색채를 사용 · 과장된 도색을 지양하고 조경 식재 등을 통한 주변 자연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로운 친환경 이미지 연출 권장	○ ○ ○	

● 사례



녹지의 확장과 개방감 있는 주거 공간(○)



정돈된 주거환경(○)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 지붕색채 및 형태(○)

공동주택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건축물의 경우 보조색 및 강조색의 명도, 채도 차가 커 혼란스러운 경관을 형성
-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인해 유적지 경관 차단
- 녹지율 등 친환경이미지 결여 및 획일화된 건축형태로 고도이미지와 거리감있는 경관이미지 형성



공동주택에 의한 유적지경관 가림



고층아파트로 인해 스카이라인 차단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는 지붕 색채

● 기본방향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조성 및 입면의 색채계획으로 고도다운 도시경관 창출
- 녹지율을 높여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확대
- 저층부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권장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

● 설치 및 배치

- 답답한 경관을 형성하는 과밀한 형태를 지양하며, 조망축과 통경축을 고려하여 계획
- 주요도로에서 조망 시 시각적 초점이 되는 건축물은 각 단지의 랜드마크 동으로 설정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입면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권장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주동 형태	·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박공형, 유선형 등 주동형태도입 · 주동의 높이 변화는 인접동의 경우 3~5층 이내, 같은 동일 경우 1~3층 이내가 적절 · 벽면의 길이가 25m 이상일 경우, 시각적 위압감 완화를 위해벽면을 분절하고, 측면 폭의 1/3 이상이 돌출시키거나 후퇴	○ ○ ○	
지붕	· 단조로운 형태의 평지붕 지양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우진각지붕 등을 적용 · 지나친 장식성을 배제하고 옥탑을 지붕형태와 조화롭게 유도	○ ○	○
재질	· 저층부(3~4층 이하)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조형적 요소를 포함한 석재 및 벽돌 등 자연친화적 소재	○	
색채	· 주변 기초색과 조화롭고, 따뜻한 주거공간을 느낄 수 있는 색채 사용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부(60~70%), 보조부(20~25%), 강조부(5~10%)로 구분하여 비율에 맞도록 계획 · 과도한 색채 및 패턴의 사용은 지양	○ ○	○

● 사례



개방감 있는 외부공간(○)



다양성과 개성있는 건물형태(○)



지역정체성을 살린 지붕형태(○)

② 상업용 건축물

상가

● 현황 및 분석

- 노후화된 벽면에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여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로 가로경관이 훼손
- 건물 형태의 다양성 결여



건물 규모 및 높이로 인한 유적지 경관 차단



옥외광고물의 과대



경관을 저해하는 네온사인간판

● 기본방향

- 저층부는 투명한 자재 및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여 개방감과 쾌적성이 느껴지도록 조성
- 옥외광고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인지성이 높일 수 있도록 정해진 면적에 따라 설치
- 차양막은 건물내 같은 디자인으로 적용하여 건물과 통일성을 부여

● 설치 및 배치

- 유적지 주변 가로 건축물은 지나치게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로 계획하여 통경축 확보
- 건축물 배치 시 지정된 건축선에서 일정간격을 후퇴시키도록 유도하여 개방감 확보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입면 형태	· 벽면 또는 문 손잡이 등에 전통문양을 적용하여 지역 정체성 표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 건축벽면을 장식하는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및 수량제한 · 에어컨 실외기 등 건축물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입면 디자인	○ ○ ○	○
지붕	· 지나친 장식성을 지양하되 지역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맞배 또는 우진각 지붕 형태의 옥탑부 지붕 적용	○	
재질	· 공주고도의 경관특성을 고려한 재질 사용 · 저층부 건물의 외벽은 개방감 및 반사율이 낮은 유리재질 사용	○ ○	
색채	· 건축물 마감 자체색의 사용을 권장하며, 부득이 도색할 경우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	

● 사례



저층부 상가의 투명성, 개방성을 반영한 바로크 건축물(○)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옥외광고물(○)



고도의 이미지를 반영한 상가 건축물 형태(○)

③ 공공건축물

관광안내소

● 현황 및 분석

- 획일적인 형태로 권위적이고 낙후된 건축이미지
- 유적지를 압도하는 규모의 건축물로 경관 차단



개방형태의 구조로 개선 필요



과대한 건축물 규모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은 형태

● 기본방향

- 역사유산에 대한 관광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주요 거점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며, 해당 역사유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연출
-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로 보행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건물 구조

● 설치 및 배치

- 보행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며 보행약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배치
- 역사유산의 조망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배치
- 관광안내소는 기념품판매소, 화장실, 매표소 등 관람객 편의를 돕는 유사건축물과 통합
- 생활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차폐되도록 배치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입면 형태	· 역사유산을 부각시키기 위한 간결한 디자인	○	○
	· 관광안내소와 주변 시설물이 통합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	○	
	· 복잡한 요소를 지양	○	
	· 부속시설 등에 의해 본래 건축물이 잠식되지 않도록 함	○	
지붕	· 복잡한 형태 또는 장식성이 있는 지붕디자인을 지양	○	○
	· 역사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붕형태		
재질	· 역사유산과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형성	○	○
	· 주변 시설물과 유사하거나 통일감 있는 마감재료를 적용	○	
	· 역사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을 지양	○	
색채	· 단독건물의 통일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색채 사용을 지양	○	○
	· 건축물 내부의 색채는 단색으로 하여 간결하게 적용		
	· 저채도 색채사용으로 명도대비를 최소화하고, 원색사용을 지양		

● 사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형태(○)



개방성이 보이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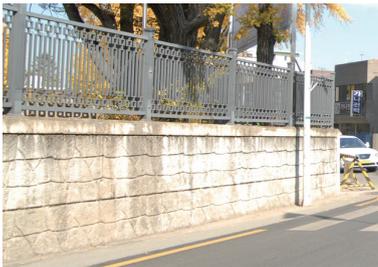


건물과 어닝과 부조화 사례(×)

공공기관(교육시설)

● 현황 및 분석

- 적벽돌 등의 소재를 사용한 슬래브 형태 건축물
- 건물외벽 색채가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나타냄
- 획일적인 건축물 외부 형태



획일성을 나타내는 학교옹벽



학교건물 및 옹벽 형태



우진각 지붕형태의 건축물

● 기본방향

- 기존의 획일적인 건물디자인 형태에서 벗어나 건축물 자체가 학생들 체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옹벽 등을 활용한 담장보다는 방음림 또는 조경목을 활용한 담장을 적용해 자연친화적인 학교, 가로 이미지 형성

● 설치 및 배치

-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으로 부터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입지하도록 계획
- 학교내 보행로 단차를 가급적 낮춰 장애 없는 학교공간이 되도록 계획

##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입면 형태	· 획일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정서에 맞는 창의적인 설계 · 교실 내 자연채광을 극대화 하는 친환경 설계	○ ○	
지붕	· 지나치게 장식성이 강한 지붕디자인을 지양 · 평지붕일 경우 옥상 녹화	○	○
재질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재질의 사용 · 내구성 있고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한 재료의 사용	○ ○	
색채	· 주변과 조화롭고 재료자체의 색을 사용한 디자인 · 이용자의 정서를 고려한 입면색채 및 패턴	○ ○	

## ● 사례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



창의적인 외부건축형태(○)



개성있는 외관이 거리 경관과 조화(○)

## 2) 오픈 스페이스

## (1) 대상

- 공주고도 공공공간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공주 고도보존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정체성과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도로 공공공간 - 보행로, 자전거 전용도로
  - 친수 공공공간 - 하천
  - 공원 공공공간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 기타 공공공간 - 공개공지

## (2) 기본방향

-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공공성 증진을 목표로 공공공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정립한다.

## (3)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이동과 휴식이라는 기본적 기능 우선

- 안전한 공공공간으로서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구축
-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중시

#### (4) 세부지침

##### ① 도로

##### 보행로

- 현황 및 분석
  - 보도 위 복잡한 시설물 설치와 좁은 폭원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
  - 보도의 색채, 형태, 재질의 이질감으로 인해 연속성 결여
  - 통행에 방해되는 상가물품 설치



보행로에 자극적색상 사용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



상가물품 보관장소로 이용

- 기본방향
  - 보행자중심의 가로를 위해 보행구간 내 턱이나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
  - 보도 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유효 보도 폭을 확보

- 설치 및 배치
  - 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패턴의 통일성을 고려
  - 횡단보도 진입부와 차도의 경계턱을 낮춰 보행자의 접근성 향상

#####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평탄성을 유지하며 보도블록 간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 보행로의 선형은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 ○	
재질	· 점토블럭, 사교석 등 투수율이 우수하며 견고한 친환경 재질의 블록 사용 · 지역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적용	○ ○	
색채 및 패턴	· 주변 역사환경과 부조화되는 고채도의 색 사용을 지양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지 · 한 구간 내 무분별한 패턴의 혼재를 지양하며 장식보다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디자인	○ ○	○

● 사례



보행로와 차도의 턱을 없애고 차분한 이미지를 나타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보행로 및 성곽석(○)



보행로 패턴이 지역적 특성을 표현(○)

자전거도로

● 현황 및 분석

- 연결성이 단절된 자전거 도로로 인해 실질적 이용이 어려움
- 명확하지 않은 보도와 자전거도로와의 구분으로 보행자의 위험 초래



자전거도로 연결성 단절



보행로와 불명확한 구분



볼라드에 의한 자전거도로 통행 방해

● 기본방향

- 이용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폭원 확보
-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분

● 설치 및 배치

- 차도와 교차되는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의 주 재질을 연장하여 연속성을 높임
- 자전거 보관대는 대중교통과 연계 가능한 옹벽, 건축물 벽면 등을 활용하여 설치 권장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노면은 평탄도를 유지하고, 차도와 인접할 경우 턱낮춤 경사로를 설치할 것 · 도로와 자전거 도로와의 경계는 녹지대 설치	○ ○	
재질	· 투수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이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	○	
색채 및 패턴	· 역사 유산 지역에는 고채도의 원색은 피하고 저채도의 단색으로 계획 · 도로 포장면에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	○ ○	

● 사례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도의 경계에  
녹지대 설치(○)



차도와 병행설치된 사례(○)



자전거도로 분리설치(○)

① 친수공간

하천

● 현황 및 분석

-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책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 보행 접근성이 떨어져 수변 공간 이용자가 많지 않음
- 전변의 무질서한 건물 및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천 경관이 불량



이용율이 낮은 하천공간



접근성이 낮음



옹벽설치로 친환경성이 낮음

● 기본방향

- 하천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구조 및 친환경 소재를 선택하여 생태하천의 친환경적 공간을 구현하도록 함
- 수변을 조망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계획
- 지역의 역사, 문화공간을 표현하도록 함

● 설치 및 배치

- 수변 공간 주변에는 수상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물을 적절한 곳에 배치
- 수변공간에는 산책로, 휴식공간, 감상공간, 열린문화광장, 바닥분수, 상징공간, 생활체육시설, 5일장 활성화 공간, 생태습지, 경관조명시설 등을 설치

##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하천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물 및 시설물은 통합적인 시설물	○	
재질	· 하천과 잘 조화되는 목재, 호박돌 등 자연재료의 사용 · 침수가 잦은 하천은 성곽석을 이용한 홍수 방어벽 설치	○ ○	
색채 및 패턴	· 색채는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계획 · 인위적인 색채를 지양하고 재료자체색의 활용 권장 · 지형적 특성과 역사 문화 유산 이미지, 패턴을 적용하여 지역정체성과 조화	○ ○ ○	

## ● 사례



친환경 하천조성사례(○)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정비(○)



옹벽녹화를 통한 친환경 하천 조성(○)

## ② 공원

## 근린공원

## ● 현황 및 분석

- 접근성이 낮으며 조명 설치 미흡
- 지역 아이덴티티가 결여

## ● 기본방향

- 보행로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주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 이용자의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기능을 충족시킴

## ● 설치 및 배치

-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
- 이용하기 쉬운 휴식시설 설치 및 친근한 공간으로 조성

##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이용도를 높이도록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 도입	○	
재질	· 폐쇄성이 낮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 활용	○	
색채 및 패턴	· 시각적으로 과장되고 자극적인 색채를 지양 · 시설물과 색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녹지를 포함한 경관요소와 조화가 되도록 함 · 과장된 패턴은 지양하고 주변녹지와 조화로운 공원계획 권장	○ ○	○

● 사례



휴식공간으로서 공원기능(○)



청소년의 참여로 설치된 휴식 시설물(베를린)(○)



시내중심가로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접근성 높임(드레스덴)(○)

③ 공원

어린이공원

● 현황 및 분석

-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테마적 요소의 공원이 부족
-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해 이용 시 위험에 노출



공원내부가 수목에 가려짐



접근성 개선



놀이시설물 개선 필요

● 기본방향

- 이용대상자인 어린이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를 부여하여 계획
- 문화적 형태를 부여하여 고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설치 및 배치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을 위한 방법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주차 및 노점 행위를 지양
- 수목가림을 방지하고 생울타리 등의 가시율이 낮은 식재를 도입하여 쾌적성 및 개방성 향상

● 디자인 (형태, 재질, 색채, 패턴)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어린이의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설치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여주는 놀이공간으로 구성 · 놀이시설과 더불어 다양한 학습체험시설의 설치 권장	○ ○	
재질	· 공원내의 보행자 동선은 보도, 식재, 낮은 담, 벤치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유도 · 안전한 재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재질을 통한 교육적 효과 창출 권장	○ ○	
색채 및 패턴	· 지역성, 상징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 · 바닥패턴에 변화를 부여하여 흥미로운 놀이동선을 제공		○ ○

● 사례



어린이 참여를 통해 조성한 놀이시설(○)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례(○)

④ 공개공지

● 현황 및 분석

- 좁은 공개공지로 인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어 공공성이 낮음
- 불필요한 화단조성 및 불법 적재공간으로 사용되어 공공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



적재공간으로 이용



벽면후퇴(Setback)가 일률적이지 않음



서로 다른 재질 사용

● 기본방향

- 공개공지는 가능한 보도와의 단차를 없애고, 보도와 일체성을 주며 개방성이 있는 식재대 등으로 한다
- 마감재는 보도의 포장재와 조화를 이루고,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도 충분히 고려된 안전성있는 소재 선정한다

● 설치 및 배치

- 가로의 연속성 및 개방성 확보를 위해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도록 한다

● 디자인(형태, 재질, 색채, 패턴)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보도와의 단차를 없애고 개방성 있는 공간 구성 ·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폐쇄적인 공개공지 지양	○	○
재질	· 보도의 포장재와 조화를 이루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	
색채 및 패턴	·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는高明도, 高채도의 색상을 지양 · 과장된 패턴을 지양하며 보도와 조화를 이루어 연속성, 개방성을 확보	○	○

● 사례



식재를 이용한 공간조성(○)



친환경인 휴식공간으로 조성(○)



옹벽설치로 접근성 단절(×)

3) 공공구조물

(1) 대상

- 공주고도 공공시설물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공주고도 보존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2) 기본방향

- 공공구조물은 구조물에 대한 물리적, 구조적, 기능적 요구사항이 명쾌하게 표현되어 그 형태를 구현하고 별도의 도색유지가 필요 없는 도시구조물의 구현이 미관기준이다.

(3)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1. 제민천에 보행녹지축을 연결
2. 일관성있는 구조, 색채와 형태의 일관성 도모
3. 공주고도 공공구조물은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높임

(4) 세부지침

① 교량

● 현황 및 분석

- 보·차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구조물 주변 및 구조물 내에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보행자와 주행자를 위협함
- 지역적 특성이 결여된 교량으로 인한 정체성 낮음
- 낡은 교량형태로 심미성 저하



교량 노후화



소재색사용으로 주변과 부조화



획일화된 교량 형태

- 기본방향

- 안전과 미관이 함께 고려된 디자인
- 자연과 조화되고 도시 맥락을 반영하는 디자인
- 시각적, 생태적으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 확실적인 산업화 재료에 의한 물개성의 극복
- 친환경,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개념의 도입

- 설치 및 배치

- 보행자 및 주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물을 설치
- 하부 교각의 설치는 되도록 지양하고 교량의 하부에 보도 및 도로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물의 설치를 권장

- 디자인(형태, 재질, 색채, 패턴)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기능을 우선하되 교량 자체가 조형미를 가지도록 불필요한 장식 지양 · 교량의 상부와 하부구조는 일관성 있는 형태로 디자인	○	○
재질	·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	○	
색채 및 패턴	· 색채를 사용해야 할 경우 무채색계열의 사용을 권장하고, 구조물이 가진 소재의 자체색상을 사용할 경우 원색을 배제 · 인위적 패턴을 지양하며 지역적 특성 또는 역사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패턴 사용	○ ○	

- 사례



주변 환경과 조화를 나타낸 교량 형태(○)



간결한 형태 교량(○)



교량의 조형미를 나타낸 사례(○)

## ② 터널

- 현황 및 분석

- 입지적 위치의 중요성과 고도라는 도시의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고 화강석 마감 노출
- 지역정체성이 결여된 터널로 인한 경관성 저하



터널 주변환경과 부조화

● 기본방향

- 조형적 요소의 최소화로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
- 불필요한 웅벽부 최소화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설치 및 배치

- 터널을 조망 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조형적 구조물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한 디자인 계획
- 갱구부의 시각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디자인을 권장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역사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나 목재루버, 담쟁이 등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정비 · 콘크리트 사용면적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웅벽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	○
재질	·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	○	
색채 및 패턴	· 주변 식생의 자연스러운 연결 · 산악에서 터널 전면 중앙분리대로 녹지가 자연스럽게 연결	○ ○	

● 사례



성곽석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나타낸 터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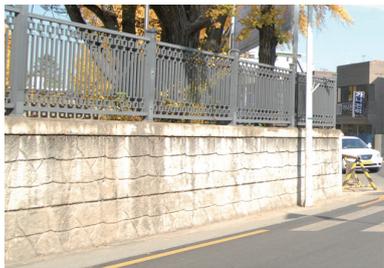
목재를 적용한 터널(예시)(○)



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터널(예시)(○)

③ 옹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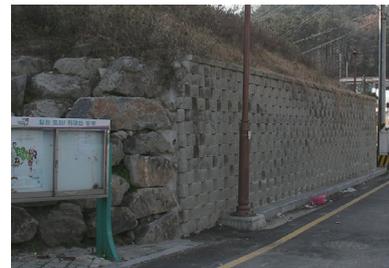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 콘크리트재료를 사용하여 거리미관 저해 요소로 작용
  - 획일적인 형태로 조성하여 낙후성과 조형미 반감



주변환경과 거리감



옹벽위에 석판을 설치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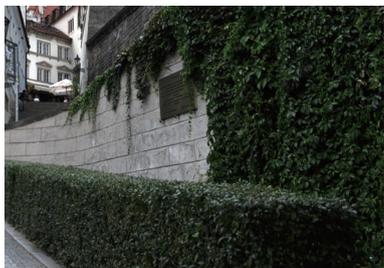
무미건조한 형태 및 색채

- 기본방향
  - 조형적 요소의 최소화로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
  - 불필요한 옹벽부 최소화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설치 및 배치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시멘트 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한 디자인 계획
  - 갱구부의 시각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디자인을 권장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갱구부 형태를 고려한 진입부 디자인 권장 · 콘크리트 사용면적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옹벽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	○
재질	·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	○	
색채 및 패턴	· 주변 식생의 자연스러운 연결 · 산악에서 터널 전면 중앙분리대로 녹지가 자연스럽게 연결	○ ○	

● 사례



벽면녹화로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



성곽석재를 활용한 옹벽(○)



성곽도시이미지를 위해 조성한 사례(○)

#### 4) 옥외광고물

##### (1) 대상

- 공주고도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공주고도 보존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건물부착형 광고물 - 가로형, 연립형, 돌출형, 창문이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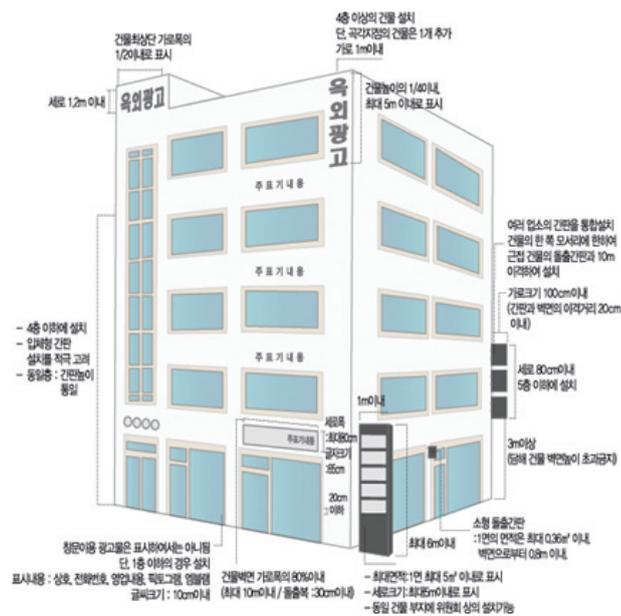
##### (2)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1. 공주고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을 개선한다.
2. 공주고도의 도시 경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형적 요소로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를 계획한다.
3. 장소와 업소의 개성을 표현하는 옥외광고물을 지향한다.

##### (3) 세부지침

###### ① 건물부착형 광고물

종류	적용기준
(1) 가로형	- 건물 정면의 1층에 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 (문자형)으로 표시 2층 이상의 경우에는 입체형으로 표시 - 가로형 간판크기는 업소 폭의 80%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80cm 이내 - 글자크기는 65cm 이내, 보조 표기(전화번호, 지점명칭 등)는 10cm 이내 - 가로형 간판의 최대 가로크기는 10m 이내로, 건물 벽면으로 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 - 가로형 간판의 가로크기는 가로 폭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로 표시
(2) 연립형	- 개별업소의 표시면적을 최대 0.5㎡ 이내, 총 표시면적을 최대 8㎡ 이내 - 연립형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되며, 벽면의 각각지점에 'ㄱ'자 형태로 표시
(3) 돌출형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표시 -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으로 설치, 간판의 가로크기는 80cm이내로, 세로 크기는 120cm 이내로 표시하며, 가로쓰기 원칙



(그림 5-23) 옥외광고물 세부지침

● 현황 및 분석

- 광고물의 대형화, 과다설치, 고채도 사용 등으로 공주고도 미관 및 쾌적성 저해
- 실사출력을 이용한 플렉스형 간판이 주류이며 커팅 시트방식 간판 위주로 품질 면에서 낮은 수준
-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형태 및 색채 사용으로 시각적 혼란



과도한 형태의 옥외광고물



시각적 자극을 주는 색채



개선이 필요한 옥외광고물

● 기본방향

- 도시 가로경관으로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추구
- 판류형 간판 지양 및 입체문자형 간판 권장
- 지역색채 적용 및 특성에 맞는 업종별 색채 적용



- ◇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이격
- ◇ 건물벽면높이 초과불가
- ◇ 세로 80cm 이내 5층 이하에 설치
- ◇ 가로 100cm 이내



(그림 5-24) 옥외광고물 기본형태

● 설치 및 배치

- 가볍고 변형이 적으며 설치가 용이하고, 간판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도록 함
- 노후된 벽면에 입면 보강대를 설치하여 고도로서 가로미관 향상 추구

● 디자인(형태, 재질, 색채, 패턴)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간판형태는 도시 가로경관 구성요소와 연계 · 문자형으로 디자인	○	○
재질	·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	○	
색채 및 패턴	· 업종별 특색에 맞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소재의 자체색상을 사용하여 이질감 최소화 · 지역적 특성 또는 역사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패턴 적용	○ ○	

● 사례



건물 입면을 가리지 않은 문자 형태- 오스트리아 그라츠(○)



목재소재 사용으로 지역정체성 표현(○)



국내 옥외광고물 개선 사례(○)

5) 공공시설물

(1) 대상

- 공주고도 공공시설물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공주고도 보존계획에 의거하여 지역정체성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2) 기본방향

- 공공시설물은 장식성보다는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하며, 도시공간의 밀도는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개념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1. 공주 고도지역의 공공시설물은 공간에 맞는 적절한 형태와 재질로 장소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
2. 공주 고도지역의 공공시설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주 고도지역의 공공시설물은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4) 세부지침

- 휴게시설물 - 벤치
- 위생시설물 - 휴지통, 공중화장실
- 통행시설물 - 버스정류장, 자전거거치대, 보도블럭, 교량
- 보호시설물 - 블라드, 휨스
- 녹지시설물 - 가로화분대



(그림 5-25) 기본조형요소의 적용

① 휴게시설물

벤치

- 현황 및 분석
  - 필요한 장소에 벤치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용에 불편
  -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킴



접근성 낮음



설치장소 개선필요



벤치시설 필요

- 기본방향
  -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여 휴게시설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
  - 역사유산지구는 주변시설물과의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통합디자인 구축
  -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의를 위해, 과도한 디자인을 금하며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배치

● 설치 및 배치

-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를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로의 결절점, 건물의 입구부, 오픈스페이스, 보행전용가로 등 보행자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
- 동선 중앙 또는 수직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보행로 경계선에 평행이 되게 배치하여 관람객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등)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벤치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 공간특성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공원이나 특화된 가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디자인 지향 ·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형태가 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 · 한 공간 내에서 시설물간에 일관성을 가지도록 통일감 부여	○ ○ ○	
재질	· 앉음판 부분에는 나무, 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소재 사용 · 문화유산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의 설정 ·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오염 및 부식을 방지하는 재료 사용 · 하나의 벤치에 다양한 마감재료의 혼용을 지양 · 문화유산 품격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 ○ ○ ○ ○	○
색채 및 패턴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재 자체색 사용 권장 · 한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을 규제 · 기타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톤 사용으로 조화로운 색채 계획 · 주변 환경의 색채를 최대한 사용하여 조화로운 공간이미지를 연출	○ ○ ○ ○	○

● 권장 & 비권장사례



주변시설물과 조화로운 형태(○)



통합형태로 공간활용도 높임(○)



동물형태의 벤치설치사례(○)  
(오스트리아 그라츠)

② 위생시설물

휴지통

● 현황 및 분석

- 유적지 및 주변시설물과 부조화를 이루는 고명도, 고채도의 색상과 형태로 일관성 결여됨

-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가 잘 되지 않음



가능성 낮음

#### ● 기본방향

- 고광택소재는 지양하며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자극적 색채는 지양
- 재활용 분리수거 휴지통을 권장하며 금연구역의 재떨이 설치 지양
-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며 휴지통내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계획
- 이용자의 위생 및 편의를 위해 관람 동선상에 설치되는 위생시설로, 최대한 간결하게 연출하고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색채 및 형태의 마감재 적용

#### ● 설치 및 배치

- 휴게시설물에 인접하여 설치를 할 경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계획
- 휴지통 설치 시 쓰레기 발생 예상지역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할 것
- 여러 개의 휴지통을 동시에 배치할시 산발적인 개별 배치를 지양하고, 한 장소에 밀착배치하여 정리된 경관 연출
- 연접한 공공시설물과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
- 휴지통의 기초부가 지면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

#### ● 디자인(형태, 재질, 색채, 패턴)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재활용 분리수거 휴지통 설치 사용 · 쓰레기 투입이 편리하나 적치행위방지를 위하여 윗면은 곡면 처리 · 이용자의 쓰레기 투입 및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디자인 · 픽토그램을 도입하여 분리수거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	○ ○ ○ ○	
재질	· 고광택 재료의 사용 지양 · 녹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빗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휴지통 주변의 편의시설과 유사 또는 동일 재질 적용으로 통일감 ·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문화유산 및 주변환경에 순응하도록 함	○ ○ ○	○
색채 및 패턴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상 사용 · 형태와 어울리는 단순한 패턴 사용 · 휴지통은 갈색계열의 저채도의 색상이나 무채색으로 계획하고 여러개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여 계획 · 안내 문구는 시설물과 일체화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	○ ○ ○ ○	

● 사례



가로시설물과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형태(○)



관리 및 사용이 용이한 디자인 형태(○)

공중화장실

● 현황 및 분석

-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위치의 선정과 출입구 단차
- 이용자 및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소 선택과 과도한 외부형태



규모가 큰 공중화장실



설치장소 고려 및 형태 개선 필요



접근성 개선

● 기본방향

- 여성,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시설물의 청결함을 유지
- 이용자의 위생 및 편의를 위해 관람동선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 설치 및 배치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 설치를 권장
- 설치공간에 알맞은 크기를 모색해 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설계
- 문화, 복지 시설 등에 설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
- 역사유산과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독립적인 위치에 배치
- 관람동선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 보행로 상에서의 전면진입을 지양하고 우회진입을 유도
- 건축입면과 조화로운 낮은 형태의 가림막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이 시각적으로 보호되도록 배치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입구에 경계턱 및 단차를 없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로 계획하고 통풍에 대한 고려 필요 · 문화유산과의 형태적 충돌이 없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남녀 화장실 진입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동선을 분리되도록 함	○ ○ ○ ○	
재질	· 설치지역의 특성 및 내구성, 경제성,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한 재질 사용 · 투수율이 높고 미끄럼 없는 바닥재를 사용하여 청결 및 안전성 확보 · 석재 및 목재 등 자연적인 마감재로 도입으로 문화유산과 조화 연출 · 문화유산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 선정으로 조화 도모	○ ○ ○ ○	
색채 및 패턴	· 문화유산과 동일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 색채로 순응하도록 연출 · 유사한 계열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여 균형감 있는 색채를 연출 · 창틀과 같은 국소부위에 원색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	○ ○ ○	

● 사례



주변경관을 고려한 화장실(○)



개방적 형태의 공공화장실(○)



전통건물형태의 공공화장실(○)

③ 통행시설물

버스정류장

● 현황 및 분석

- 주변환경과 부조화한 색채 및 과도한 크기의 시설물 설치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 초래
-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재질 및 형태



강한 색채 사용



형태 개선 필요



규모가 큰 형태

● 기본방향

- 역사유적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시각적 혼란을 방지
-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의 설치

- 날씨, 교통, 관광정보 등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여 정보시설물 역할

● 설치 및 배치

- 접근·대기·승하차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 설치에 유의
- 보도폭이 좁은 경우 차도 쪽으로 설치하여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도쪽 방향에 설치 · 충남의 통합적 디자인 형태를 적용하되, 지역 특성의 일부 적용 ·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로 야간조명	○ ○ ○	
재질	· 정류장 벽면의 소재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투명 소재 사용	○	
색채 및 패턴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색채 및 소재 사용 · 고도공주의 환경색채 범위 내에서 포인트 색(전체면적의 10% 내외)으로의 사용 · 장식적 패턴의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 특성 적용	○ ○ ○	

● 사례



기능성을 강조한 형태(○)



보행자를 고려한 설치위치(○)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자전거보관대

● 현황 및 문제점

- 설치장소의 부적합성과 보관시설의 낙후성
-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형태와 재질



자전거 보관시설 개선



보관시설 형태 개선



설치 위치 고려

- 기본방향

- 설치가 필요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며, 설치 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
-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제거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안전한 보관시설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 설치 및 배치

- 공공건물 출입구, 상가입구 등 이용 빈도가 많은 곳의 빈공간에 설치
- 보행에 방해되지 않고,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비가림막의 설치를 금지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기능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하며 심플한 디자인을 권장	○	
재질	· 쉽게 손상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	○	
색채 및 패턴	· 가급적 페인트 도색을 지양하며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제외하여 도색할 것 · 소재 자체색을 사용하며, 포인트색 적용 시에는 전체 면적의 20% 내에서 배색하도록 권장 ·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장식적 도안은 지양	○ ○	○

- 사례



간결한 디자인(○)



광장 공간에 설치(○)



개선된 형태(○)

### 보도블럭

- 현황 및 분석

- 보도블럭이 노후화되어 보행에 지장
- 통일성없는 보도로 인한 시각적 혼란을 초래(다양한 색상과 패턴)
- 지나치게 좁은 유효 보도폭과 보도블럭이 파손



색채가 강한 소재 사용



복잡한 패턴 적용



포장 소재 개선

● 기본방향

- 누구나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감처리 등을 고려한 디자인
- 연속성 있는 보도를 위해 인접가로와 조화되는 디자인

● 설치 및 배치

- 최소 유효 보도폭원을 확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의 설치를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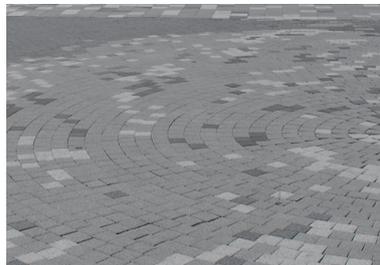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요철이 심하고 복잡한 형태는 지양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유지, 보수가 용이한 형태의 블록재의 사용을 권장 · 시설물과의 연접부는 미려하게 마감처리하고 돌출부를 없애 보행권을 확보	○ ○ ○	
재질	· 투수성과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보행성을 높임 · 친환경 재료를 사용	○ ○	
색채 및 패턴	·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지향하며 원색적인 포인트 색상은 최소화 · 지나친 패턴의 혼용을 지양하고 단순화된 패턴과 낮은 명도와 채도의 보도를 권장	○ ○	

● 사례



지역 소재를 활용한 사례  
(일본 오부세정 밤나무(○))



투수율이 높은 소재적용(○)



석재판을 활용한 사례(○)

## ④ 보호시설물

## 블라드

- 현황 및 분석
  -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아 블라드 본래의 기능 상실
  - 지역적 특성이 배제된 색채와 형태의 사용
  - 점자유도블록 위에 설치되어 장애인의 통행을 방해



설치위치 및 광택소재 개선



높이가 낮아 통행에 장애요소



적정높이로 개선 필요

- 기본방향
  - 주변시설물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과 색채 사용을 권장
  -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보행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탄성을 가진 재료 사용 권장
- 설치 및 배치
  - 설치대상은 보행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공간 등의 옥외공간과 도로나 주차장이 만나는 경계부위의 포장면에 배치할 것
  - 블라드의 간격은 휠체어, 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1.5m~2m를 유지할 것

##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보행을 고려하여 원형단면으로 하고, 필요시 조명의 기능 적용 ·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 안전을 위하여 지나치게 낮은 블라드 형태는 지양	○ ○	○
재질	· 부분적으로 탄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	
색채 및 패턴	·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적 사용 지양 · 고광택 반사체 소재 사용을 지양하고, 야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부분 반사체 적용을 허용 ·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지향하되 지역정체성 반영	○ ○	○

● 사례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높이 형태(○)



석재를 이용하여 주변환경과 형태 및 색채조화(○)



지나친 원색이나 광택재사용 사례(×)

웬스

● 현황 및 분석

- 기능보다는 지나친 시각적 장식 패턴의 사용으로 인해 미관 저하
- 석재 또는 고풍택 재료의 직접적인 노출로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웬스 형태
- 관리 및 보수의 미흡으로 인해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웬스 일부가 사라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웬스시설물의 개선필요



석재소재를 사용한 형태의 디자인



복잡한 패턴

● 기본방향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장식적 패턴을 지양하고 자연소재를 사용
- 기능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계획
- 장소와 지역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거리환경개선과 보행자의 안전을 돕도록 할 것

● 설치 및 배치

- 차량통행이 많거나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도로폭이 충분할 경우 웬스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고 식수대를 통해 자연울타리로 계획할 것을 권장
- 장소에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하고 보행로와 차로의 연속된 구분이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형태적 예술성보다는 기능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할 것 ·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1,1m를 표준으로 할 것	○ ○	
재질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소재의 이용 권장 · 무광택재질의 사용 권장	○ ○	
색채 및 패턴	· 원색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을 피하고 저채도의 색상 사용 권장 · 재료 자체 색의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친 색채나 장식의 남용 지양 · 복잡하고 장식적임 프레임보다는 간결하게 상징성 부여 · 안전을 고려한 수직적 패턴(수직바 사용)을 권장하며 기능에 충실한 심플한 디자인	○ ○ ○	○

● 사례



시설물과 색채 조화를 이룬 간결한 형태(○)



지역특성을 적용한 형태(○)



회랑구조물과 색채 및 형태의 조화(○)

⑤ 녹지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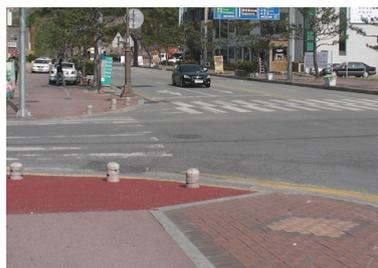
가로화분대

● 현황 및 분석

- 인공적인 재료사용으로 인해 주변과의 이질감이 두드러짐
- 부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줌



과도한 크기



웬스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분대 설치



화분대 관리 필요

● 기본방향

- 거리환경개선에 부합하는 기능에 충실한 가로화분대를 계획
- 설계대상공간의 포장부위에 배식을 하거나 수목의 적정 생육토심 확보, 또는 높이차 극복을 위하여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배치

● 설치 및 배치

- 설치대상 공간에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만 설치하도록 권장
- 설치할 경우 주변 공공시설물과 기능의 통합을 고려하여 설치

● 디자인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공간에 맞는 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역사유물에서 형태를 도출하여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계획	○ ○	
재질	· 두 가지 이상의 재료의 혼합은 지양 · 인공재료보다는 자연 재료의 사용	○	○
색채 및 패턴	· 재질 자체의 소재색 사용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 사용 · 심벌이나 로고를 반영한 디자인은 지양	○ ○	○

● 사례



보행로와 조화를 이루는 화분대(○)



가로 웬스와 조화 고려(○)



지나친 크기로 공간 차지(×)

⑥ 기타시설물

상징조형물

● 현황 및 분석

- 공주고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형물의 부재로 역사고도로서 이미지 저하
- 주변 환경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조형물로 인한 상징성 결여

● 기본방향

- 조형물 자체의 정체성 부여 및 구조적 안전성 고려
- 구조물이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계획
- 도시미관의 질적 향상과 상징성 제공을 위해 사실적 표현 지양

- 설치 및 배치

- 도시내 또는 보행가로변에 상징조형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로서 위압감을 줄이고 가급적 녹지와 함께 설치
- 공주진입로 주변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주변 환경여건 고려

- 디자인(형태, 재질, 색채, 패턴)

구분	내용	권장	규제
형태	· 위압적이며 주변 경관을 차폐하지 않는 조화로운 디자인 · 설치될 공간면적과 규모를 고려한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상징적 디자인	○ ○	
재질	· 고광택 소재의 사용은 절제하고 자연소재의 사용을 권장	○	
색채 및 패턴	· 주변을 고려하지 않은 원색적인 조형 색채는 지양 · 시각적 혼란을 주는 패턴의 사용을 지양하고 단조로운 패턴을 통해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계획	○	○

- 사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물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형태 관문



랜드마크 타워로서 상징물(고베)

## 6) 환경색채

### (1) 대상

시범지구내 공주 고도의 경관계획에 바탕을 둔 지역이미지에 부합되도록 환경색채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시가지 경관 : 상업지역, 주거지역
- 가로경관 : 가로시설물, 구조물
- 역사문화재 : 건축물

### (2) 기본방향

- 공주고도 환경색채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색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도시에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개념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지역의 역사문화적,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여 독창성을 확보한다.
-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색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통합성을 유도한다.

(4) 경관유형별 색채적용

①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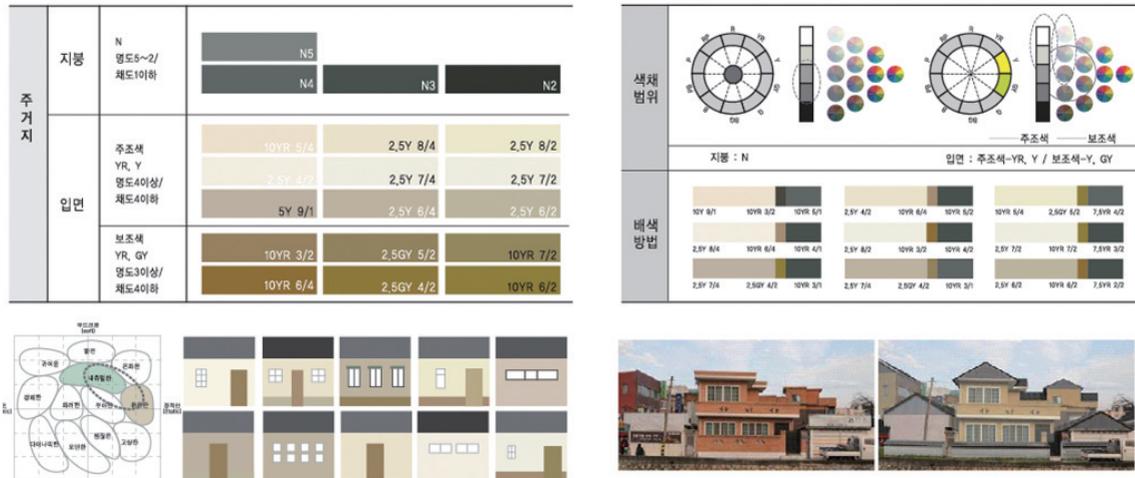
구분	유적지	시가지	주거지	수변축	산림축	
<b>지붕</b> 명도 5~2 채도 10이하						
<b>입면 담장</b>	<b>주조색</b> 명도 70이상 채도 20이하					
	<b>보조색</b> 명도 50이상 채도 40이하					
	<b>강조색</b> 명도 50이상 채도 10이하					
<b>색채이미지</b>	품위있는	전통적인				

(그림 5-26) 건축물 유형별 색채적용기준

-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주거지역(단독주택)

지향이미지 : 내추럴한, 은은한

- 주거지역은 중명도/저채도의 YR을 기초색으로 하고, 지붕은 중명도/저채도의 N계열을, 입면의 주조색은 고명도/저채도의 YR, Y계열과 중명도/저채도의 YR로, 보조색은 중명도/저채도의 Y, GY로 계열을 선정하여 내추럴하고, 은은한 이미지의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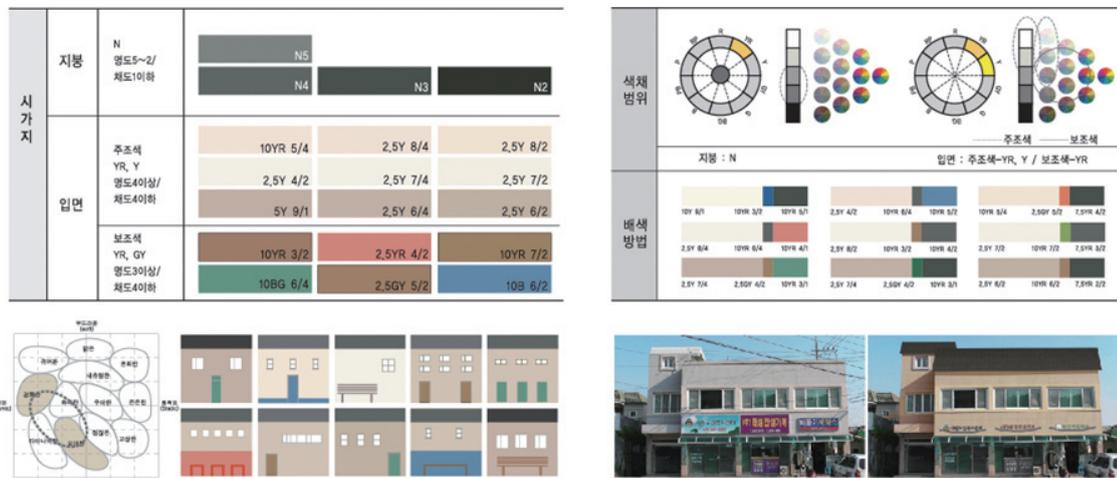


(그림 5-27)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주거지역(단독주택)

●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상업지역

지향이미지 : 세련된, 활동적인

- 상업지역은 증명도/저채도의 Y를 기초색으로하고, 지붕은 증명도/저채도의 N계열을, 벽면의 주조색은 고명도/저채도의 YR, Y계열로, 보조색은 고, 증명도/저채도의 BG, B, YR 계열을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배색과 어울리는 모던하고 경쾌한 이미지의 배색



(그림 5-28)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상업지역(상가건물)

● 유형별 색채 가이드라인 - 유적지

지향이미지 : 고상한, 점잖은

- 유적지의 주조색은 무채색의 N(Grey)과 YR계열로, 지붕은 증명도/저채도의 N계열을, 벽면의 주조색은 고명도의 무채색과 고, 증명도/저채도 Y, YR계열, 보조색은 증명도/저채도의 YR계열을 선정하여 고상하고 점잖은 이미지의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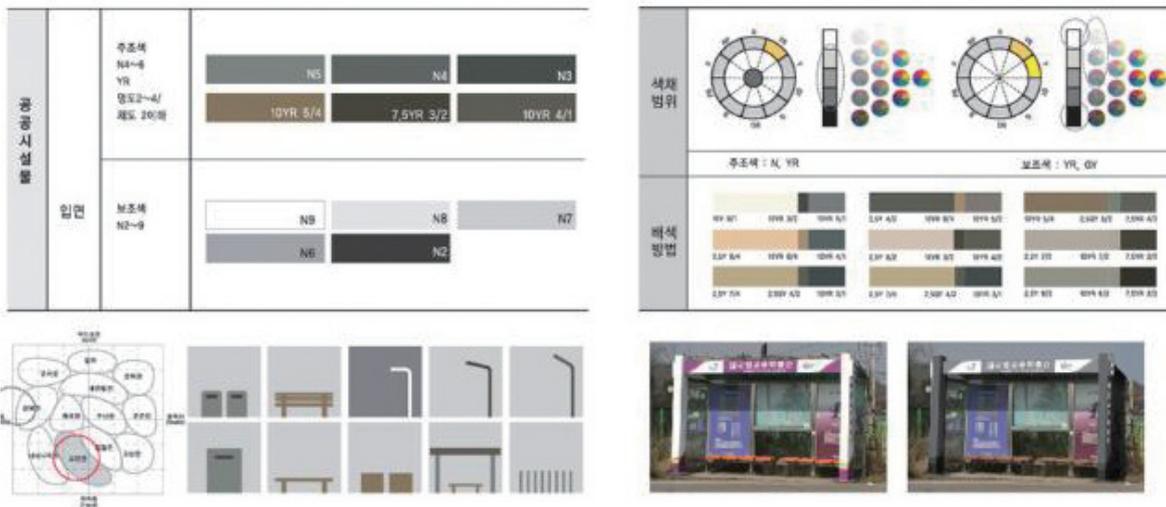


(그림 5-29)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유적지(단독주택)

●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지향이미지 : 모던한, 진보적인

- 공공시설물의 주조색은 중명도 N계열과 저명도/저채도의 YR계열을, 보조색은 고, 저명도의 N과 표기요소에 나타나는 고명도의 N계열을 적용하여 모던하고, 진보적인 이미지의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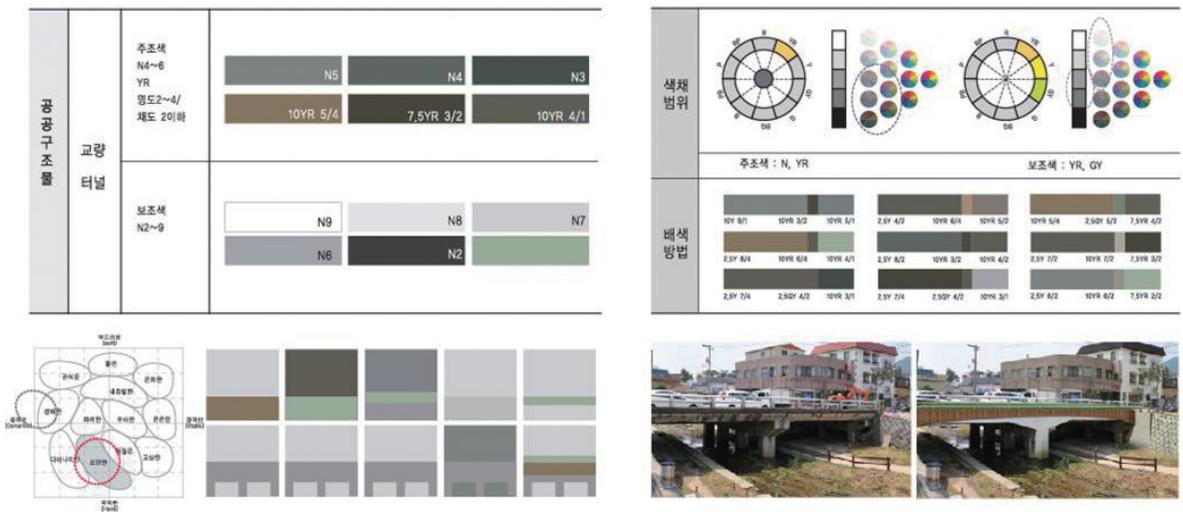


(그림 5-30)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공공구조물

지향이미지 : 모던한, 진보적인

- 교량의 주조색은 무채색 계열의 GY계열로, 녹지주변에는 중명도/저채도의 GY계열을 선정하고, 보조색은 중명도의 N과 중명도/저채도의 B, GY로 계획하여 모던하고, 진보적인 이미지의 배색



(그림 5-31) 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 공공구조물

● 유형별 색채 가이드라인 - 옥외광고물

구분	유적지	시가지	주거지	수변축	산림축
옥외 광고물	<b>주조색</b> N3~N4 YR 명도 2~4/ 채도 40이하				
	<b>보조색</b> N2~N9 Y,R 명도 6~8/ 채도 8~10				
	<b>강조색</b> 명도 5이상 채도 100이하				
색채이미지	현대적인				

(그림 5-32) 옥외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

7) 조망경관

(1) 대상

- 유적지가 역사성과 장소성을 나타내며 누구나 즐겁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적극 활용되기 위하여,

점적 유적지 또는 면적 대규모 유적지의 부속 건축물로서 별도의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유적지 외부(조망점)에서 내부(조망대상=유적지)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

## (2)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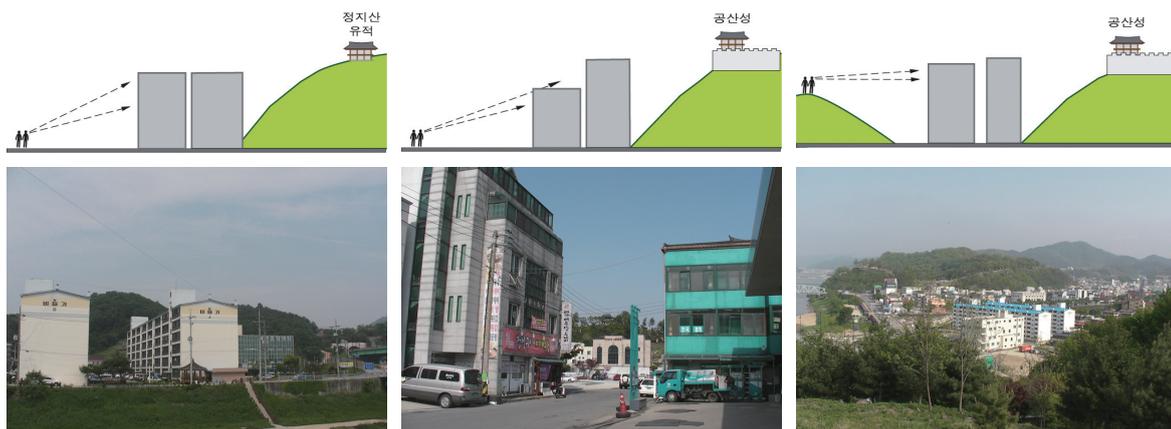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어느 부분까지를 조망하느냐에 따라 조망각도는 달리 결정되므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결정 시 당해 문화재 특성, 입지환경을 고려 조망권(조망축)을 확보하고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지점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경관분석

## (3)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유적지 주변 조망경관의 관리를 통하여 조화로운 역사문화경관을 도모
- 유적지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
- 유적지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

## (4) 세부사항

- 조망점은 공간별 특성에 따라 형성, 관리, 보존형으로 정비
- 형성 및 관리형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앉음벽(벤치), 파고라, 음수대 등을 이용한 휴게공간으로 조성
- 역사특성거점 경관중점관리구역 선정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주요 조망점 3곳 이상을 선정하여 대상지와 배려해야 하는 경관 자원 등을 중첩하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된 현장사진을 바탕으로 가상건축물 및 개발안을 합성하여 이미지를 제시
- 유적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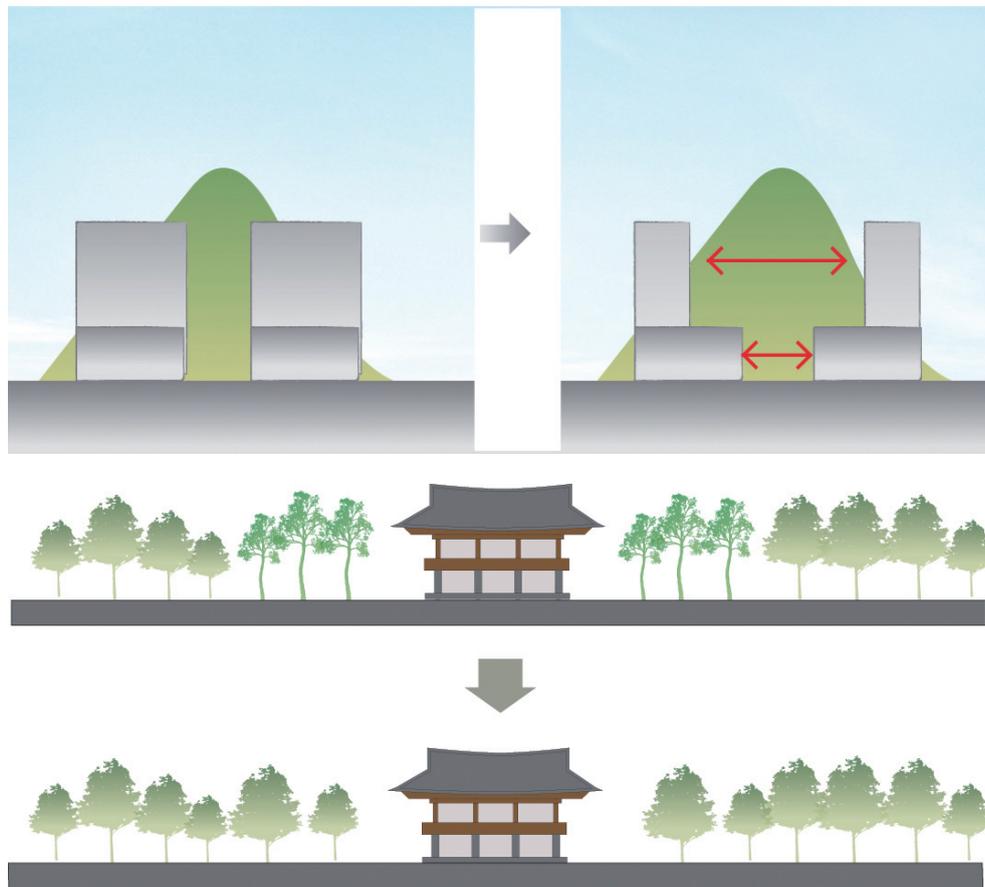
주거지역에 중층건물이 형성된 경우

역시유산이 구릉지에 위치한 경우  
(그림 5-33) 유적지 주변 조망점

유적지 내부 조망점이 고지대에 위치한 경우

- 산림경관

- 전통수종을 식재하여 고마나루, 정지산백제유적, 공산성, 옥녀봉성 등으로 연결되는 고도의금강변 산림경관으로 활용
- 공산성, 정지산, 송산리고분군, 고마나루 등의 역사문화자원은 지형적 특징을 살려 수림사이로 유적을 볼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여 조망 포인트로 활용
- 공산성 동측의 토성 하부의 농경지를 전통수종으로 조성하여 주거지역과 공산성간의 완충 녹지공간으로 활용
- 주변 산림경관에 대한 조망경관 보전을 위한 통경축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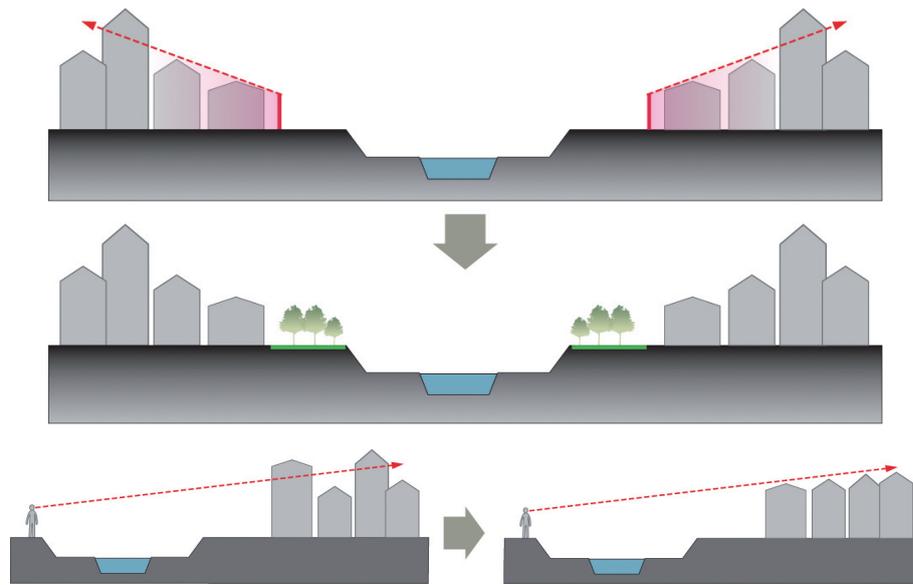


(그림 5-34) 산림경관

- 수변경관

- 자연친화적 금강변 경관조성을 위해 수변지역의 인공시설물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형태로 개선 활용
- 제민천 상류에서 금강 본류에 이르는 각 구간의 적지에 생태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마련함

- 친수공간 도입 시 이용성이 높은 녹지대를 우선 배치하고, 특정한 이용객을 고려한 시설은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배치
- 제민천과 연결한 건축물의 경우 식재를 이용하여 위압감 해소
- 수변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차폐감 완화 및 부감으로 조망되는 수변경관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유도



(그림 5-35) 수변경관 조망점

## 4.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 1)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단독주택) – 시가지경관, 가로경관, 수변경관(무령왕릉 권역)

(표 5-5)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단독주택)

내용	가이드 라인	
건물 (단독주택)	규모 및 배치	· 도심부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흔적 및 도시구조를 적극적으로 배려한다. ·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높이	·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높이를 도모한다. · 높이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
	지붕	· 우진각 지붕 또는 팔작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일 경우 하중을 고려하여 일부 녹화를 고려한다.
	형태 및 입면	·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도모한다. ·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한다.
	색채	·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담장 및 울타리	· 자연적 소재 사용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미지	개선전 이미지	개선후 이미지
		

## 2)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상가건물) – 시가지경관, 가로경관, 수변경관(왕릉교 권역)

(표 5-6)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상가건물)

내용	가이드 라인	
건물 (상가)	규모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은 지양한다.</li> <li>· 대상지 주변의 역사자원 등으로의 조망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한다.</li> <li>· 도심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li> <li>· 높이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li> </ul>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li> <li>· 경사 지붕또는 우진각지붕을 권장한다.</li> </ul>
	형태 및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 경관자원 및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의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li> </ul>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설치 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li> </ul>	
이미지	개선전 이미지	개선후 이미지
		

### 3)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상가주택) – 유적지경관 (무령왕릉 권역)

(표 5-7)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상가주택)

내용		가이드 라인	
건물 (단독주택)	규모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역사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흔적 및 지역구조를 적극적으로 배려한다.</li> <li>· 주변지역 및 기존 지역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높이를 도모한다.</li> <li>· 높이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li> </ul>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진각 지붕또는 팔작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일 경우 하중을 고려하여 일부 녹화를 고려한다.</li> </ul>	
	형태 및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적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는 형태 및 외관을 고려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의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li> </ul>	
이미지	개선전 이미지		개선후 이미지
			

#### 4)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단독주택) – 유적지경관 (고마나루권역)

(표 5-8)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단독주택)

내용	가이드 라인	
건물 (상가)	규모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흔적 및 지역구조를 적극적으로 배려한다.</li> <li>· 주변지역 및 기존 지역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높이를 도모한다.</li> <li>· 높이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li> </ul>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형 지붕 또는 우진각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일 경우 하중을 고려하여 일부 녹화를 고려한다.</li> </ul>
	형태 및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단독주택의 형태 및 외관을 고려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마나루지역의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li> </ul>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 소재 사용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li> </ul>	
이미지	개선전 이미지	개선후 이미지
		

### 5)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상가건물) – 유적지경관(무령왕릉 권역)

(표 5-9)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상가건물)

내용	가이드 라인	
건물 (상가)	규모 및 배치	· 지나치게 큰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을 지양한다.
	높이	· 유적지 및 경관특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한다. · 역사자원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 · 높이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
	지붕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형태 및 입면	· 유적지가 돋보이고, 유적지와 조화될 수 있는 형태 및 외관을 고려한다.
	색채	· 백제역사지역의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
옥외 광고물	· 유적지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 옥외광고물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이미지	개선전 이미지	개선후 이미지
		

6)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단독주택) – 유적지경관 (대통사지권역)

(표 5-10)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단독주택)

내용	가이드 라인	
건물 (상가)	규모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부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흔적 및 도시구조를 적극적으로 배려한다.</li> <li>·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높이를 도모한다.</li> <li>· 높이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li> </ul>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형 지붕또는 우진각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일 경우 하중을 고려하여 일부 녹화를 고려한다.</li> </ul>
	형태 및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적지와 조화될 수 있는 단독주택의 형태 및 외관을 고려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유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li> </ul>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 소재(흙, 나무, 돌 등)를 사용한다.</li> </ul>	
이미지	개선전 이미지	개선후 이미지
		

### 7)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상가건물) – 유적지경관(대통사지 권역)

(표 5-11) 경관유형별 지붕적용 (상가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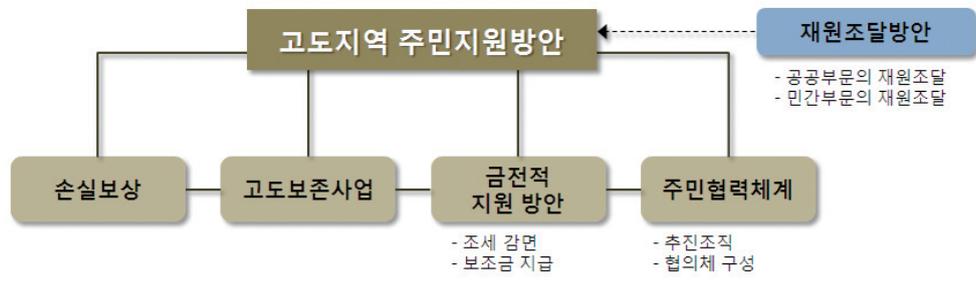
내용	가이드 라인	
건물 (상가)	규모 및 배치	· 지나친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을 지양한다.
	높이	· 유적지 및 경관특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한다. · 역사자원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 · 높이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
	지붕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형태 및 입면	· 유적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 및 외관을 고려한다.
	색채	·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
옥외 광고물	· 유적지와의 조화를 도모 · 옥외광고물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이미지	개선전 이미지	개선후 이미지
		

## Ⅵ. 실행방안

### 1. 주민지원 방안

#### 1) 추진방향

-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지구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별 특성에 따른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와 같은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하다.
- 주민지원과 관련 사항은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사업을 시행토록하고 있으며, 보존사업의 일부 사업이 주민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주민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지구지정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8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21조)
- 또한, 고도보존사업은 고도의 실체 확인에 필요한 토지 매입·보상 등 사업을 실시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이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피해도 발생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 국가는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고(동법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 제4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고도보존계획 수립 시에 고도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16조)
- 현재 ‘고도보존특별법’에서 지구지정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수준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여 고도보존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따라서, 고도 공주의 고도보존사업을 통한 백제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원활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주민·전문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조달 방안 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6-1) 주민지원방안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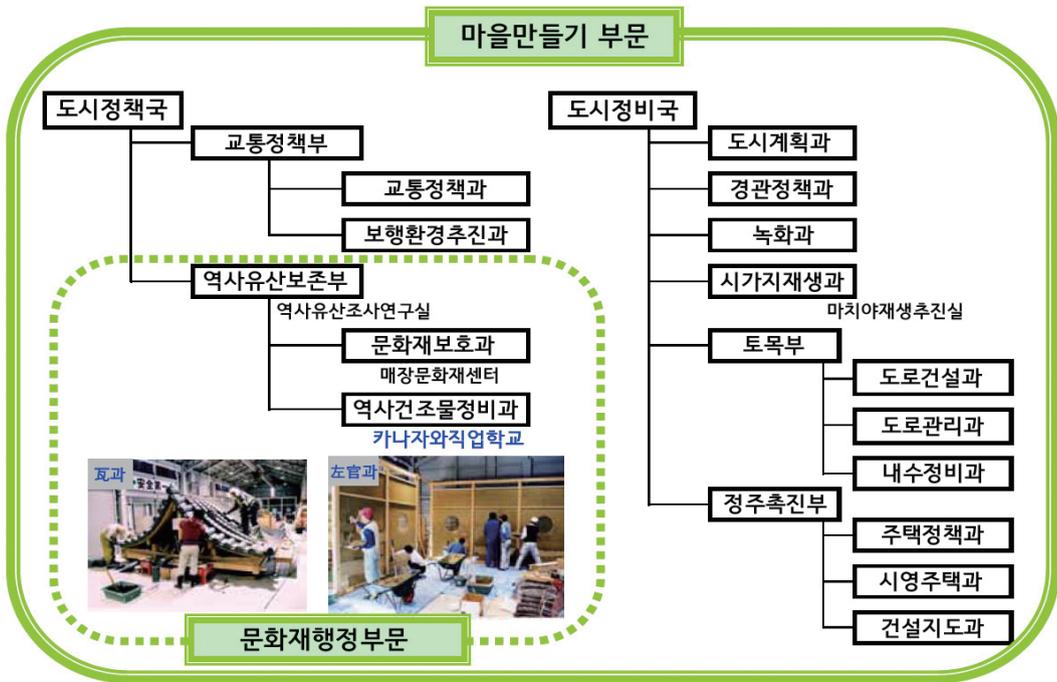
### 2) 국외(일본)사례

- 역사적 마을경관, 유산 등을 보존·정비하기 위해 전담행정조직, 협의회, 지원법인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추진체계

##### ① 가나자와시

- 가나자와시의 마을만들기 추진조직체제의 특징으로는 문화재 보호 행정과 마을만들기 행정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문화재 보호에 관한 실무는 교육위원회에서 시의 도시정책국이 보조 집행하고 있다.
- 2006년부터는 도시정책국내에 문화재의 보호·활용을 담당하는 「역사유산보존부」를 설치하고, 문화재를 포함한 시의 역사적 자산 전반의 보전, 정비, 지도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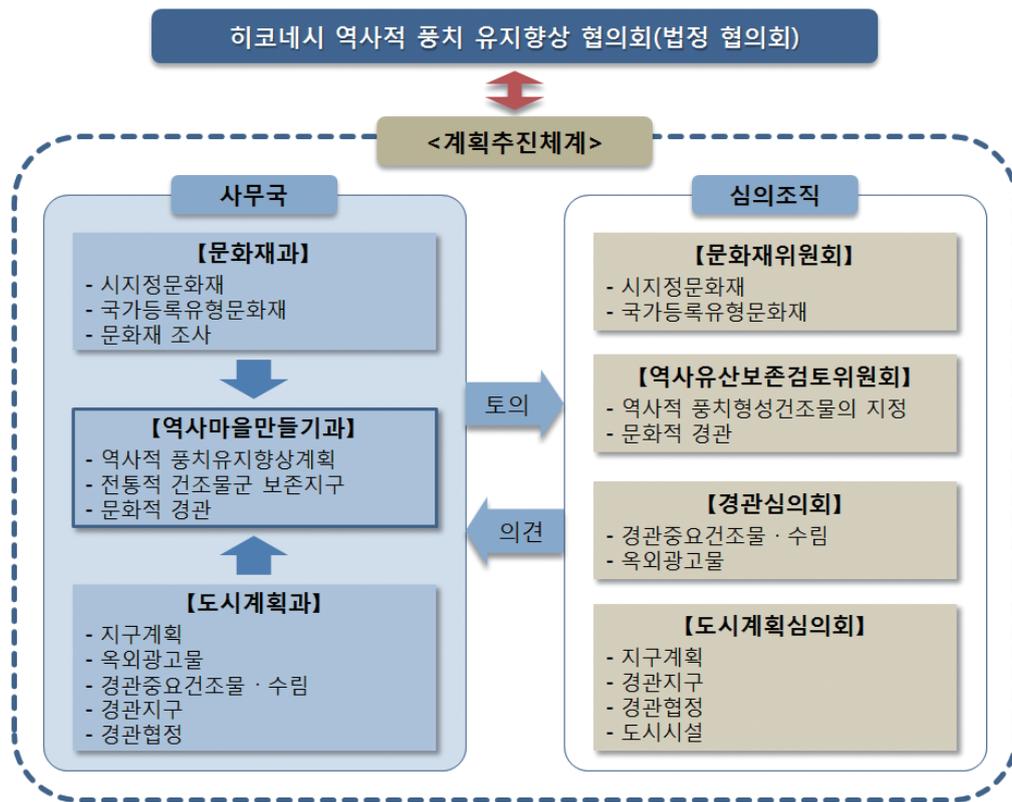


(그림 6-2) 가나자와시 역사유산보존 관련 추진체계(조직)

- 문화재 보호와 마을만들기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유산보존부를 시작하여 토목부, 도시계획과, 경관정책과 등 도시정비국의 관련 부서를 「마을만들기 플로어(청사 3층)」에 집중 배치하여 시청내의 횡단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월 1회는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연락조정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시책도 마을만들기 담당자 회의 안에서 안건으로 항상 논의되고 있다.
- 또한, 역사유산보존부에 각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고문으로 맞아 역사유산조사연구실을 2006년에 마련하였으며, 시역에 있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 조사·연구와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② 히코네시

- 히코네시(彦根市)에서는 교육위원회와 마을만들기국을 잇는 부서로서 마을만들기국에 역사마을만들기과를 새롭게 설치하고,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劃) 외에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나 문화적 경관 등 관련성이 깊은 분야를 소관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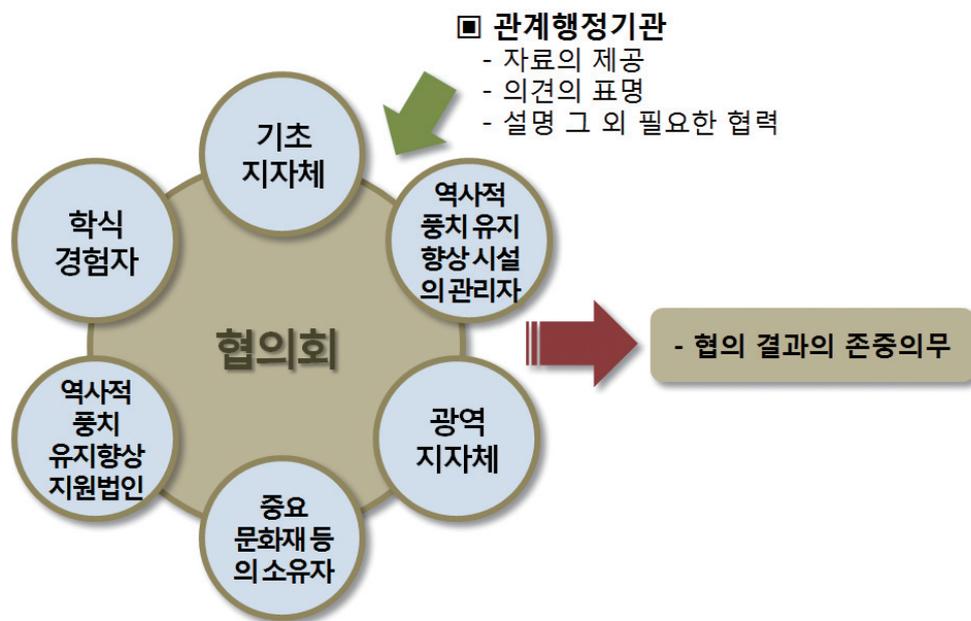


(그림 6-3) 히코네시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을 위한 연계체제

(2) 협의회

-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협의회」는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2008년)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계획의 작성·변경 및 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 관련되는 연락 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 협의회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의 방침, 중점구역의 위치 및 구역, 문화재의 보존 또는 활용,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시설의 정비 또는 관리, 역사적 풍치 형성건조물의 지정 방침, 역사적 환경형성 종합지원사업 등 국가의 지원책의 활용, 그 외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심의한다.
  - 도로나 공원의 시설관리자,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지원법인, 도도부현, 중요 문화재 건조물 등의 소유자, 학식경험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



(그림 6-4)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협의회

- 타카야마시(高山市)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타카야마시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계획 협의회	
- 타카야마시부시장	- 타카야마시 문화재 심의회 회장
- 기후현 타카야마 토목 사무소장	- 타카야마시 아름다운 경관과 윤택한 마을 만들기 심의회 회장
- 기후현 교육위원회 사회교육문화과장	- 타카야마시 가로경관 보존 연합회 회장
- 타카야마시 교육위원회	- 타카야마시 기반 정비부

-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의 의무가 있으며,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정촌은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의견의 청취해야 한다.

### (3) 지원법인

- 시정촌(기초지자체)을 대신하거나, 시정촌과 함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시정촌장이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적 등을 가지는 공익법인 또는 NPO법인을 그 신청에 의해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지원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사단법인 가나자와 직공대학교

- 가나자와 직공대학교는 1996년에 일본 최초 직공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교로서 카나자와시가 설립하였으며, 운영은 카나자와시와 9개 단체의 출자에 의한 「사단법인·가나자와 직공대학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중견의 직공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강과목은 석공, 미장, 목수, 창호, 표구, 기와, 조원, 다다미, 금속판 등 9개과 총 정원 50명이다.
  - 수강생은 각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직공을 대상으로 학비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6-5) 가나자와 직공대학교



(그림 6-6) 수복전공과 강의

#### ② NPO 하기(萩)마을 전체 박물관(NPO萩まちじゅう博物館)

- ‘NPO 하기마을 전체 박물관’은 2004년 6월에 설립하여 하기사(萩市)를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진단하고 지역내 점재되어 있는 12개 지역중요자산을 보존·활용한다는 새로운 마을만들기 「하기마을 전체 박물관 구상」에 근거하여 시민과 행정의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요 활동으로 핵심시설인 하기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문화재 시설을 활용한 하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나 전시회의 개최, 인터넷 활용에 의한 정보발신, 지역자산의 정보 수집이나 리스트화, 옛 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풍치를 느끼게 하는 ‘지역명(筋名)’의 부활, 공개 문화재 시설의 활용 등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하기박물관을 활동거점으로 「마을박물관추진반」, 「학에서포트반」, 「연수반」, 「하기박물관 가이드반」등 11개 반으로 나누어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동사업으로서 미지정 문화재를 전국에서 보내오는 신탁금으로 지키는 「월 코인 트러스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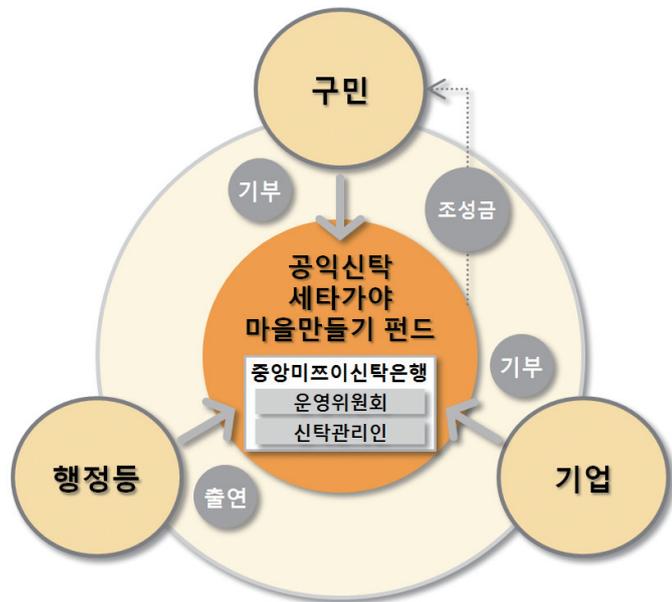
(그림 6-7) 활동거점인 하기박물관



(그림 6-8) 활동 소식지

#### (4) 펀드(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

-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펀드는 주민, 행정, 또는 기업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한 입장에서 구민 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는 공익신탁제도<sup>2)</sup>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미즈이신탁은행이 펀드 수탁자로 설립취지에 따라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펀드 운영위원회는 학식경험자, 구민, 행정에 의해서 구성되어 조성처의 전형 등 공익사업 수행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조언·권고하고, 이것에 근거해 수탁자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탁관리인에 의해서 신탁법상의 권한 행사, 중요 사항을 승인한다.



(그림 6-9)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의 구조

2) 공익신탁제도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신탁은행등)에게 위탁하여, 수탁자는 이것을 관리·운영하면서 공익활동을 실시해나가는 구조임. 이 제도는 신탁법(1922년 제정)에 근거하고 있음.

-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는 일본에서도 앞서 시작된 마을만들기의 시민참가형 펀드로 조성에 의한 자금적 지원에 의해서 구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음.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운영방법은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 공개 심사회 방식에 의한 조성 결정 : 전형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있다.
  - 「서로 배우고 육성하는 장」으로서의 운영 : 활동 발표회(연 2회)를 통하여 활동그룹 상호간 정보교환이나 학습,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구민 서포터에 의한 펀드 지원 : 구민 서포터의 참가에 의해 발표회의 기획이나 운영, 펀드지원 자선 콘서트의 개최 등이 실시하고 있다.
  - 개인·기업, 행정으로부터의 기부금에 의한 기금 조성 : 기금은 행정으로부터의 출연금 이외에 세타가야구 내외의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3) 시사점

#### (1) 전문화된 행정조직 신설

-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지역의 관련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조직내 역사문화, 문화재보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 일본 가나자와시는 도시정책국내 '역사문화보존부' 및 히코네시의 마을만들기국내 '역사마을만들기과'를 신설하고 역사적 자산 전반의 보전,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또한, 담당부서의 신설을 통하여 도시계획, 토목, 경관, 교통 등 관련 부서와의 횡단적 제휴가 강화되어야 한다.

#### (2) 지역 내 전문조직 및 전문가 육성

-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위해서는 행정조직 외에 지역 내에서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조직과 이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 일본에서는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적 등을 가진 공익법인 또는 NPO법인을 지원법인으로 지정하여 지역문화유산 보전활동, 전문가 육성,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3)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주민활동 지원

- 고도보존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전문가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일본에서는 행정, 문화재·건조물 소유자, 전문가, 시설관리자, 지원법인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의회를 조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연락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2. 공주 고도 경관형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1) 기본방향

#### (1) 고도육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생적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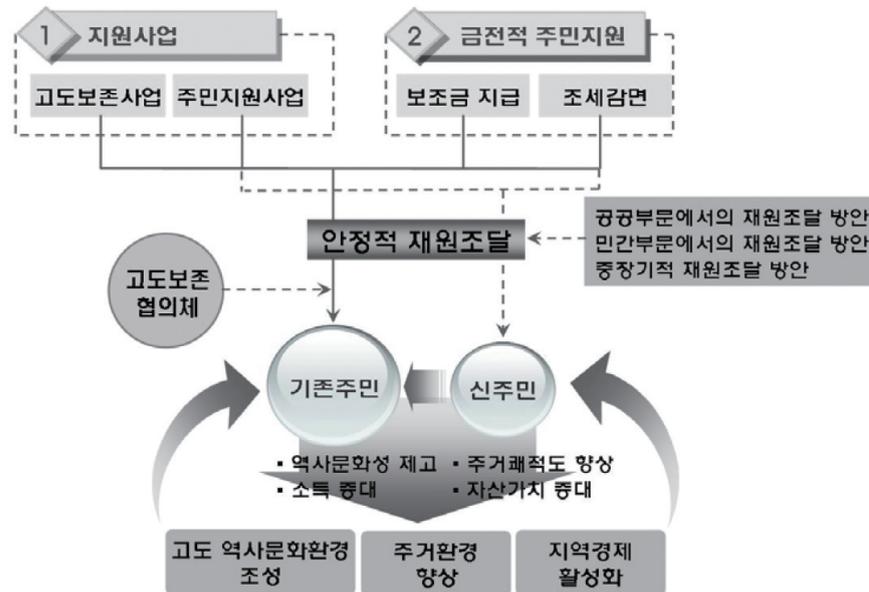
- 정부 주도의 주민지원은 한정된 재원, 동기부여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고도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서 주민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성해가는 것은 궁극적인 주민지원 방안이며, 고도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기초로 주민 생활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행정·지역주민·지역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적 협력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는 주민 자생의 목표를 실현시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 협력체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하나의 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 고도의 특성 상 주민의 역할은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추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단계별 발전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협력체계 구축 초기에는 정부 및 전문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점차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상향식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지원방안

-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지원은 고도보존사업이 추진되어 공주의 역사적 진정성이 회복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있다.
- 고도보존사업은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고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여 공주 지역의 매력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자산가치의 상승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출처 : 문화국토를 위한 고도육성방안, 문화국토심포지엄자료, 2009  
(그림 6-10) 주민지원의 기본방향

- 단, 고도보존사업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의 현 주민들에 대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보다 규제 내용이 강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수선지원금, 매수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표 6-7) 주민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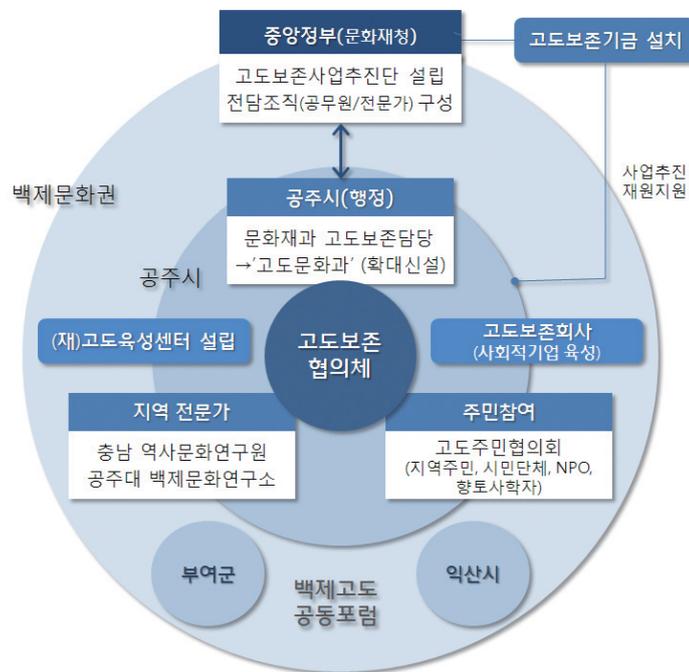
구분	규제 강도		직접적 지원	간접적 지원	비고 (제도개선)
	기존 용도	규제 강도			
특별보존지구			매입·보상(현금보상 또는 복합용도 개발지역 및 중밀 한옥단지 조성을 통한 대토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고도보존사업 (밭갈지 관광자원화 사업, 제민천 및 생태습지 회복사업,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복합용도개발지역 조성사업, 중밀 한옥단지 조성사업, 문화유적 연계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산가치 상승)	기존 주민은 물론 신주민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감면 방안 강구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등)
역사 문화 환경 지구	주거	강화지역	건물수선지원금, 매수청구권 (매입요청 시 복합용도개발지역 및 중밀 한옥단지 입주권 부여)	행정기능회복으로 구도심의 중심성 부각 복합용도개발지역 및 중밀 한옥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 단지설계비 등을 공공이 부담 하여 공급주택가격 저렴화 (기존주민 수용 최대화)	
		동일	건물수선 지원금		
	완화지역	자산가치 상승			
	상업/ 근린 생활 시설	강화지역	건물수선 및 간판개선 지원금, 매수청구권, 뚝방상가대상매입·보상 (복합용도개발지역/중밀 한옥단지 입주권 및 영업권 부여)		
완화지역		자산가치 상승			
복합용도개발지역/ 중밀 한옥단지/ 문화상업단지(기존 주민)			환지, 복합용도개발지역 및 중밀 한옥단지 내 임대주택건설,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 문화상업단지내 영업권 부여 등		

출처 : 공주고도보존계획, 공주시·국토연구원, 2009

### 3) 지원체계 구축방안

#### (1) 고도지역 내부 협력체계 구축

- 공주 고도보존을 위한 고도 내부 협력체계는 지자체(행정)를 중심으로 공주 고도의 미래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관련 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 고도 보존 및 육성은 고도내부의 직접적인 관련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해 나갈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자생적인 고도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NPO로 구성된 지역 내 민·관·전 협력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 6-11) 공주 고도보존 내부 협력체계(지원체계)

- 고도보존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서 일관성있는 추진이 중요하므로,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고도보존협의체(또는 고도육성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고도보존협의체’는 고도보존계획 및 고도보존사업의 추진체계로서, 크게 문화재청, 관련 자치단체, 전문가, 주민대표(주민 또는 주민협의회)로 구성되며, 추진 주체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수렴의 장이 되는 기구이다.
- 고도보존협의체는 고도관리 방법 및 주민보상 등 보전지구 지정 시 야기될 수 있는 주민 갈등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율하여 상호 신뢰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 고도는 일반적인 도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도보존협의체의 운영은 주민의 의식수준

- 및 요구사항과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과의 간극을 줄어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 고도보존사업이 진척되어 자생력을 갖추는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와 전문가 참여 비중을 줄이고, 지자체와 주민의 역할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의 역할이 크고, 고도보존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역할 비중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 따라서 전문화된 행정과 지역중심 전문가의 지원,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주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내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 조직체계 구축방안

- 고도보존 업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경관에 대한 전문성과 시간적 지속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이에 따른 중앙·지방 행정체제 구축 및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지역전문가 중심조직 설립 및 지역주민 중심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 ① 중앙행정 및 전문가 주도 전담조직체계 구축

-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도는 주민주도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초기에는 중앙정부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
- 특히, 고도보존과 관련한 정부부처, 전문가, 고도지역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고도홍보활동을 지속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도를 육성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이 고도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먼저 정부 조직 차원(문화재청)에서 부처간의 횡적 협조와 공동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도보존사업 추진단(가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고도보존사업 추진단’은 고도보존에 따른 부처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고도보존 유관제도 중에서 보완되어야 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협조와 의견 조율을 담당해야 한다.
- 다음으로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담당자 및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고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직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해 고도보존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전담조직에서 직접적인 사업지원도 가능하도록 재정적 운용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이러한 전담조직은 특히 발굴이나 복원사업과 같은 고도보존계획상의 고도골격 회복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전문화된 지방행정체계 구축

- 성공적인 고도보존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고도보존행정 체계구축이 필요한 바, 고도보존업무의 특화 및 전문화된 고도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확대와 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 현재 공주시는 고도보존과 관련된 업무를 문화재과 고도보존담당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은 3명에 그치고 있다.
- 공주가 고도라는 특성을 강조하고 대내외에 인식시킬 수 있도록 ‘고도문화과’(가칭)를 신설하여 고도보존계획 및 고도보존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도보존담당부서는 고도보존계획 수립 및 사업업무, 주민참여 지원, 고도보존관련 정보제공, 대민행정을 담당함과 동시에, 지자체 내부의 여러 부서와의 의견소통과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규모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위로는 중앙행정과 전문가들, 아래로는 지역전문가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아울러 고도보존계획은 기존의 도시 및 주민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훼손된 고도의 골격과 광역적인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역전문가 중심 조직 설립

-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주지역내에서 전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공주고도육성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주민과 주민협의체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능을 수행한다.
  - 고도육성센터는 도시계획, 건축,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세부적인 보존 및 정비사업, 민관연계 프로그램, 홍보, 교육 등을 기획하여 운용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양측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 고도육성센터는 지역의 특성과 성숙도 등에 따라 활동내용, 범위와 조직이 결정되어야 하며, 다만 고도보존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에서 뜻을 가지고 100% 출자한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고, 고도보존계획이 안착된 후에는 행정과는 독립된 재단과 공사, NPO 형태와 같이 민간과 공공단체가 공동출자한 고도보존회사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④ 지역주민 중심 조직 육성

- 공주고도주민협의회(가칭)를 창립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도육성의 주체가 되어 향후 진행될 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상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결집시키는 구심적인 조직을 구축한다.
  - 고도주민협의회는 보존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 및 이해사항 등을 조율하며, 고도가꾸기 등 주민참여 사업 추진, 고도 홍보 및 자원봉사 등을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 수행한다.
- 고도주민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고도내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공주전체 시민 활동체계를 구축한다.

### (3)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방안

- 고도지역 협력체계는 초기단계에 중앙정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체제로 고도보존에 대한 큰 방향과 개념을 정립하지만, 정착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지자체의 비중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전문가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단계적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도보존계획 추진 초기단계에는, 고도보존협의체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여 고도를 만들어가는 고도생성기, 고도보존협의체와 함께 행정과 전문가가 아닌 고도주민들로만 구성된 다양한 주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이들 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고도성장기, 이러한 협력구조가 정착되고 주민지원체계가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완성단계를 고도정착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① 고도 생성기 : 행정 및 전문가 중심 역할 극대화

- 초기단계인 고도 생성기에는 고도 육성의 기본방향과 과제, 고도보존계획, 행재정 토대의 구축 등 제반 사항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행정 및 전문가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 시범지구의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관주도형 고도보존계획을 추진하고, 이 시기는 고도보존에 대한 시민의식이 미성숙한 단계로서 고도보존관련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구성이 어려우므로 행정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협력체계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행정과 전문가는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해야 하며, 고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역사문화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민단체가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주민은 고도보존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도 주민들간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며, 특히 시범지구 내에서 생활하는 정주민들의 긍정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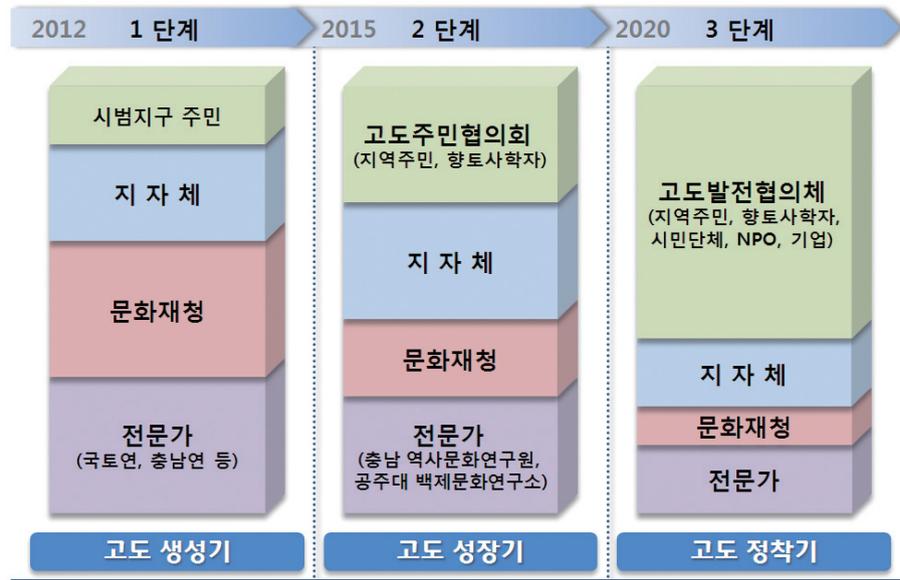
#### ② 고도 성장기 : 지역 전문가의 중심적 역할 수행

- 성장기에는 고도 관련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업시행과 추진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과 주민 간의 마찰이 잦아지므로 이를 해소할 창구가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역할은 외부인이 아닌 지역내에서 중립적인 가치와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시기에는 주민협의회가 결성되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고도보존 활동을 하게 되는 단계이며, 행정과 전문가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③ 고도 정착기 : 주민 중심의 체계 구축

- 정착기에는 고도의 정비가 일정 궤도에 올라 이를 가꾸고 유지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로서, 이러한 역할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
- 정착기에는 행정 및 외부전문가, 지역전문가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민-관-학의 안정된 관계를 통해 주민 중심의 고도 육성 시스템을 완성시켜야 한다.
- 고도 정착기에는 고도 내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 시민단체와의 협동단계에 이르도록 한다.

- 이와 같은 고도 생성기와 고도 성장기, 고도 정착기의 주민참여 발전단계는 주민의 협력 및 참여수준, 역량에 따라 발전 단계별 도달시기가 달라질 것이다.



자료 : 공주 고도보존계획, 공주시·국토연구원, 2009, p.252. (수정보완)

(그림 6-12) 고도보존협의체의 단계별 성장 방안

#### 4) 지역사회 참여방안

##### (1) 주민참여

-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고도보존·육성에 대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활동에 대한 행정의 정보 제공, 기술적 지도와 함께 기금 조성과 같은 금전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① 주민 교육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발전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고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보존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고도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도전문가를 통해 고도보존에 대한 주민학습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일련의 시민교육과정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고도보존 및 관리업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으며, 고도 공주의 역사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 및 지역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축제나 전통문화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누구나 부담 없이 백제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 등을 마련하여 고도공주의 전통문화를 후세에 계승하는 동시에 담당자 육성의 장으로 활용한다.

- 시의 문화시설에 대해서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문화시설 시민 무료 개방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체험교실이나 시민강좌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고도공주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주민활동 지원

- 고도보존·육성에 대한 주민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책의 실행근거로 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지원 내용으로는 고도보존과 관련된 주민활동 지원비 지급,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비 지급, (가칭) 1문화재 1지킴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지원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

## (2) 전문가 참여 및 육성

- 고도보존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기술의 제공, 조언,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 원활한 협의와 합의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 고도보존계획의 성격, 고도보존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법적 사항에 대한 전문 지식, 주민참여 방법 등을 주민과 지방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이들간의 상충된 의견을 조정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① 지역 전문가 육성

- 고도보존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을 추진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 양성은 중간·중립적인 조직의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구, 지원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내 전문가를 양성토록 한다.
- 지역 전문가 조직 및 지역 전문가의 역할은 고도보존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과 고도보존계획 정보제공 및 고도 소식지 발행, 주민교육 및 주민상담 전문가 파견을 통한 고도보존계획지원, 고도보존과 관련된 지역조사연구 담당, 전문가 등록 및 파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 또한, 도시계획, 건축, 문화재 등에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과 행정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주관할 수 있는 합의 형성 전문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전문가 Pool 운영을 위한 인력·재정지원

- 성공적인 지역 전문가 조직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 내 관련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행정 내 관련 인력이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고도보존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 (3)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 참여 방안

#### ① 지역단체 활동의 지원

- 일본 등 선진사례에서 보면 지역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단체는 전통적인 지역커뮤니티이며, 그 유대관계도 강하고 전통적인 사람들의 활동도 이 조직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 공주시는 지역내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면, 관련 활동에 대한 조성, 정보제공, 연수 개최 등 지원을 통하여 조직의 유지와 활성화를 지원함. NPO 등의 시민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커뮤니티와의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역의 전통문화, 전통공예기술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을 존중하면서 육성해나간다.

#### ② 표창 제도

- 주민이나 사업자가 고도보존·육성에 참여하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문화경관 형성에 기여한 건축물, 개발 등을 대상으로 표창함과 동시에 지역신문·방송 등 홍보를 통하여 폭넓게 소개한다.

#### ③ PR사업 및 이벤트 개최

- 공주가 고도로서 뛰어난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 등에 대하여 사진집의 작성, TV 프로그램의 제작·방영, 홈페이지 개설, 사진전이나 회화전의 개최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주를 PR하도록 한다.
- 고도보존에 관한 지역사회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 홍보잡지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나 각종 이벤트의 개최를 실시함. 또한, 고도보존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역 내 혹은 특정 테마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의 의식 향상 및 단체간 제휴를 도모할 수 있다.

#### ④ 행정의 추진체제 강화

- 행정은 시민, 사업자의 고도보존·육성과 관련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체제 강화 및 직원 연수에 노력하고, 관련 운용지침을 책정하여 이를 근거로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의 지도를 실시한다.

### 5) 재원확보 방안

- 고도지역은 고도의 중심시가지를 대부분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따른 상대적 자산가치 하락으로 규제완화 요구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고도보존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므로, 공공의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1)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세입은 당해 연도에 모두 지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는 통상적인 세입 및 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도보존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여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 주민지원 사업의 재원은 용도가 정해진 과목에서는 새로 재원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회계기준에서의 잉여금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성·집행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에 비해 자율적 운용이 가능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조성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활용가능 대상을 확대하여 재원조달처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특히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계정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정부 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재원조달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국가의 재정지원 및 민간에서의 재정조달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정착시키는 한편, 민간을 통한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및 국민의 인식전환을 통해 고도에 대해 개인의 재산침해가 아닌 모두가 보존해야 할 국가적 자원이라는 사회적 합의 및 지원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
- 이를 기초로 정부 또는 민간의 재원조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국가재원 활용 방안

- 공공자금 관리기금 활용방안
  - 고도보존 및 정비사업이 대부분 특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금 중 총괄계정은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의 전출도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전출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세계(歲計)잉여금 활용방안
  - 일반재원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을 고도보존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즉 회계기준에서의 잉여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특별회계) 활용 방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중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에 고도보존지역의 각 시·도지사·시·도별 고도보존예산을 신청하고 각 부처는 이를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3) 기금 및 부담금 활용 방안

- 복권기금 활용
  - 복권기금은 각종 기금이나 지자체 등을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고도보존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권기금의 직접사업 중에 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을 고도보존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고도보존사업을 직접 사업 항목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
  - 고도보존사업도 궁극적으로는 관광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관련되기 때문에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기금 활용
  - 단기적으로는 2009년 4월 제정된 「문화재보호기금법」을 활용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의 일정부분을 고도보존기금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도보존기금 설치
  - 궁극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역사문화환경을 향유하는 국민이 고도보존기금을 부담하게 하는 고도보존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고도보존기금은 개발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거나 고도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전액 지자체로 귀속시키되 그 중 절반을 고도보존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4) 민간부문에서의 자원조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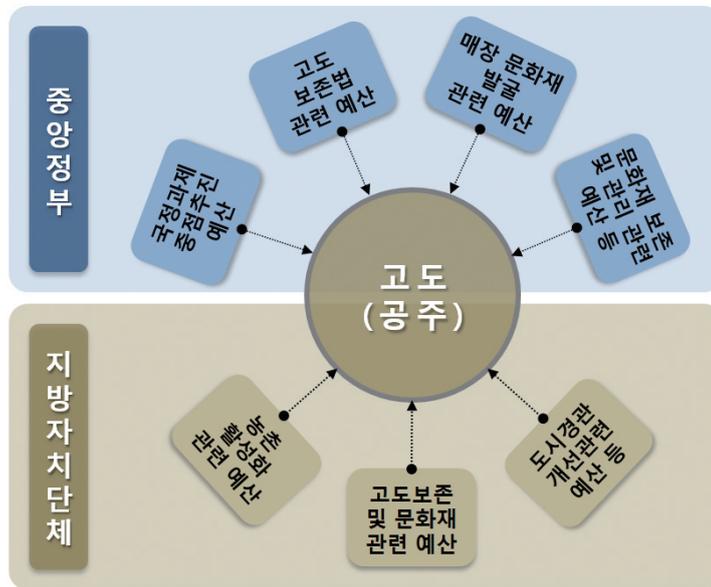
- 고도보존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개발이 아니라 토지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어렵다.
- 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상 기반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은 바, 동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우나, BTO(Build-Transfer-Operate)나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활용하여 고도지역내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립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일부 고도지역에서는 TIF(Tax Increment Financing)기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도보존사업으로 증가할 세수를 감안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일괄적 토지 매수 및 토지수용의 대안으로서의 리츠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일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고도보존 계획 및 사업 대상지 내 다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나 소액 자본을 투자받아 재원의 일부로 조달함으로써, 향후 고도보존계획 및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로 귀속시키는 방안도 부분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 이는 고도지역 주민이 대주주로서 지역주민 정착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키고 주민참여형 고도보존 관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① 지역펀드 조성

- 고도보존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의 출자금,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지역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지역펀드는 공익신탁제도를 활용해 중립적이고 유연한 입장에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 지역펀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펀드 조성 및 결정 등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개심사 방식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다.
- 활동성과 발표회 개최를 통하여 지원 활동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단순히 재정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과정을 거침으로써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② 다양한 예산의 통합적 활용

- 고도보존사업은 책정된 예산만으로 고도보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주어지는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고도보존사업에 집중해서 사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업 추진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고도육성 효과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 고도지역의 지자체는 공공디자인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간판정비사업 등 가로정비사업, 농촌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되는 각종 기금이나 지원금, 보조금을 고도를 육성하는 사업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료 : 고도지역 주민지원 구체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8, p.149

(그림 6-13) 선택과 집중의 예산확보 및 활용

## 6) 법제도 정비

- 『공주 고도육성 및 주민지원 조례』제정

-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고도보존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주민의 각종 지원사업, 고도주민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 공주 고도육성 및 주민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안)

제1조 목적

제2조 고도육성사업의 지원 범위

제3조 고도육성을 위한 조직 및 협의체에 대한 사항

제4조 주민협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사항

제5조 자원확보에 대한 사항

제6조 기타

- 자원확보방안 마련

- 현재 법령상에는 고도보존사업을 위한 소요 자원조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며, 고도보존계획이 국가차원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역사보존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가해짐으로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고도보존기금 설치를 통하여 고도보존 및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및 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비 부담을 줄인다.

## 3. 경관기준 적용방안

### 1) 적용시기

- 고도보존육성과 관련된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감리 시 고도경관기준을 활용하여 백제역사의 품격을 살리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창출하도록 한다.
- 고도보존육성과 관련된 용역 및 사업의 디자인 개발 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 및 사업자가 고도경관기준을 참고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비전에 적합한 디자인(계획)을 수립한다.
- 고도보존육성과 관련된 용역 및 사업의 실시설계 시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최종안에 대한 디자인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 고도보존육성과 관련된 시설물의 제작 및 설치 시 고도경관기준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

## 2) 적용방안

### (1) 관련계획 및 제도연계방안

#### ① 경관계획과 연계

- 경관계획 수립시 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관설계지침에 고도경관기준을 반영한다.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설정
  - 경관설계지침에 반영
- 국가지정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을 설정한다.
- 시도지정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을 설정한다.
-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시 국가지정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시도지정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설계지침을 수립하고, 고도경관기준을 반영한다.

####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

-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문화유산 및 주변지역 공공디자인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고도경관기준을 반영한다.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 문화유산이 포함된 지역 또는 문화유산과 연접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고도경관기준을 반영하여 상세한 디자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건축심의제도의 활용

- 건축심의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행위 시 고도경관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축심의 시 경관 및 디자인 측면의 건축미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 건축심의 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고도경관기준을 교부하고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고도경관기준은 심의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시에는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한다.

#### ⑤ 현상공모, 설계입찰 등과 연계

-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반되는 현상공모, 설계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 고도경관기준을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도록 한다.

## (2) 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정

- 공주시 지정 문화재의 주변지역에 대해 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보호구역에서 100m)을 지정한다.
- 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문화유산과 이질감을 가지는 외관, 과도한 건축물 색채연출) 등
  - 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공공시설물과 부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색채) 등
  - 옥외광고물의 서체, 규모, 색채 (과도한 규모 및 색채의 옥외광고물) 등
  - 기타 문화유산의 품격을 저해하는 행위 등

### ① 고도보존육성 자문 및 심의기구 설치

- 공주시 경관위원회를 활용하여 고도보존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심의/자문을 수행하도록 한다.
- 지자체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에 대해 지자체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득하도록 한다.
-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시 시도지정 문화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설계지침에 고도경관기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 ② 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경관위원회 구성

- 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정
- 문화재 경관중점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경관위원회의 구성분야
-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대상

---

## • 참고문헌

- 공주고도보존계획, 국토연구원, 2009
- 공주고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홍익대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08
- 부여사비왕궁지구 경관기준 작성연구, 부여군, 2010
- 문화유산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문화재청, 2010
- 고도육성사례조사자료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0
- 안민정 외), 고도아이덴티티 설정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2009
- 박소현, 문화와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는 고도
- 강종원, 공주고도 복원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방안, 2010
- 교토경관정책, 교토시청, 2010
- 제민천 생태하천 실시계획, 공주시, 2010
- 정지산유적정비 기본계획,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0
- 공산성 유적정비 기본계획,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0
- 반죽동 당간지주 정비기본계획,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0
- Landeshauptstadt Dresden, 2010
-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권영현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김경태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권미정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정재운	교수
	황종현	책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	LH공사
외부참여	남택영	교수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혜진	교수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위원	조경수	교수	남서울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종원	연구위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채미옥	문화국토전략센터장	국토연구원
	구시온	교수	충남대학교
	임선빈	연구위원	한국학중앙연구소
공주시	이열하	과장	공주시문화재과
	박연수	계장	공주시문화재과
	신경애	학예사	공주시문화재과

